

제11기  
가야학 아카데미

가야, 다시 만나다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제11기  
가야학 아카데미

가야, 다시 만나다

교육개요

- 운영일시 : 2014.4.23.~7.2. 매주(수)  
14:00~17:00(3시간)
- 횟 수 : 총 10회(각 강의 9회/ 현장답사 1회)
- 장 소 : 강당
- 내 용 : 가야, 다시 만나다
- 수 강 료 : 무료(답사비는 참가자 전액 부담)
- 수료기준 : 총 9강좌(답사제외) 중 7강좌 출석

회차	일자	강의 주제	강사 및 소속
1	4/23	가야사는 미완의 역사인가	이영식 인제대 역사고고학과 교수
2	4/30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	윤태영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3	5/7	관으로 본 한반도 삼국시대 복식의 계통과 흐름	함순섭 국립대구박물관장
4	5/14	〈문화기행〉 삼국유사 속 가야와 신라, 길 위에서 만나다	이재호 기행작가
5	5/21	유물·유적을 통해서 본 가야의 도교문화	김길식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6	5/28	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가야문화	곽장근 군산대 사학과 교수
7	6/11	가야토기 연구의 현황	김정완 국립김해박물관장
8	6/18	우리나라 고대 제철문화의 특성	이남규 한신대 한국사학과 교수
9	6/25	가야 마구의 이해	류창환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장
10	7/2	우리배의 역사와 보존	김익주 경담연구소장





## 목 차

제 11기 가야학 아카데미

1. 가야사는 미완의 역사인가 .....	7
2.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 .....	35
3. 관으로 본 한반도 삼국시대 복식의 계통과 흐름 .....	43
4. 삼국유사 속 가야와 신라, 길 위에서 만나다 .....	63
5. 유물·유적을 통해서 본 가야의 도교문화 .....	75
6. 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가야문화 .....	103
7. 가야토기 연구의 현황 .....	115
8. 우리나라 고대 제철문화의 특성 .....	127
9. 가야 마구의 이해 .....	141
10. 우리배의 역사와 보존 .....	157



Part. 1

---

# 가야사는 미완의 역사인가

이영식  
인제대 역사고고학과 교수

---



가야사는 미완의 역사인가?

첫째, 모든 역사에 미완이란 없다.

모든 역사는 과거완료형이다.

역사학에서 “~ ~라면”이란 반역사적 사고로 간주된다.

둘째, 그렇다면 완성되었다는 역사를 들어 보라.

천년왕국의 신라는 완성된 역사인가?

역사에 무슨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

셋째, 왜 가야사에만 “신비” “수수께끼” “미완” 등의 형용사가  
부쳐지는가?

“신비, 수수께끼”와 마찬가지로 “미완”이란 형용에는 또 다른 가야  
사 차별의 인식이 내재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가야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 1. 가야사의 의미

가야의 역사는 기원전후에 남쪽의 해안지역에서 시작되었고, 6세기 중엽 경에 북쪽의 내륙지역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삼국지·삼국사기·일본서기> 등과 고고학 자료를 보면 약 12개국 정도의 나라들이 가야라는 독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약 600년 동안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과는 다른 독립을 유지하였습니다. 가야가 신라에 통합되는 것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기 100년 전이었습니다. 100년 먼저 망했다는 사실과 600년 동안 역사를 함께 했던 사실 중 어디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런 간단한 산술도 못했기 때문에 가야사를 소홀히 다루어 왔습니다. 우리의 고대를 삼국의 역사만으로 볼 때, 600년이나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일궈왔던 고대 영남인들의 역사는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우리 역사에서 가야사가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가락국기

## 2. 가야사의 무대

<삼국유사>는 가야사가 전개되었던 무대를 해인사의 가야산에서 남해까지, 낙동강 서쪽에서 지리산(섬진강)까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는 낙동강 동쪽의 동래·양산·창녕 등과 섬진



가야 여러 나라(加耶諸國)의 분포도

강 서쪽의 진안·장수·임실·남원 등에서도 가야문화의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남과 부산을 중심으로 경북과 전북의 약간을 포함하는 지역에서 가야사는 전개되었습니다. 많은 산과 강으로 나누어진 분지들은 독립적인 가야의 여러 나라들의 형성과 발전에 적합했지만, 통일된 왕국을 이루기도 어렵게 하였습니다.

### 3. 가야의 명칭들

가야는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야(伽耶)는 가라(加羅)에서 온 말입니다. 가라는 우리말에서 산자락과 들에 모여 사는 마을을 뜻하였는데, 이후는 정치체를 가리키는 말로 되었습니다. 김해의 가락국(駕洛國)은 ‘가라의 나라’였습니다. 가야의 한자표기는 加耶(신라)→伽耶(고려)→伽倻(조선)와 같

이, 시대가 내려오면서 사람 인신 변이 하나씩 더해졌습니다. <삼국지>는 3세기경에 경남에 산재했던 12개의 가야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야국狗邪國(김해) · 아야국安邪國(함안) · 반로국半路國(고령) · 불사국不斯國(창녕) · 독로국瀆盧國(거제) · 미리미동국彌離彌凍國(밀양) · 고순시국古淳是國(창원) ·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고성) 등이 가야인들이 사용했던 나라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광개토왕릉비

는 금관가야金官加耶(김해) · 아나가야阿那加耶(함안)와 같은 이름이 친숙합니다만, 고려시대의 일연스님이 고려시대의 행정구역명에 가야를 붙여지었던 이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작 가야인들은 이런 이름들은 몰랐을 겁니다. 가야각국은 구(가)야국(가락국) · 아라(야)국 · 반로국(가라국) 등과 같이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임나任那**는 <일본서기>에 주로 쓰여 고대 일본이 가야를 지배했다고 꾸미기 위해 쓰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나는 · 광개토왕릉비(400년 · 삼국사기 강수전(7세기) · 진경대사비(932년) · 와 같이 고구려인과 신라인들도 사용하였습니다. 임나는 ‘님의 나라(主國)’입니다. 가야의 여러 나라들이 중심국이었던 김해의 가락국이나 고령의 대가야를 높여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김해와 고령은 가야의 대표로 일본과 교섭했기 때문에 고대 일본에서 임나는 가야의 대명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대가야大加耶**는 고령의 가

야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쓰이지만, 원래의 대가야는 둘이 있었습니다. 1·4세기에는 김해의 가락국이 ‘큰 가야(大加耶)’였고, 5·6세기에는 고령의 반로국이 ‘큰 가야(大加耶)’였습니다. 가야사에서 마지막 ‘큰 가야’가 반로국이었기 때문에 고령을 대가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4. 가야사의 전개

가야의 역사는 전기가야와 후기가야로 나누어집니다. 400년에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5만의 군대를 파견하여 가야를 공격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전기가야와 후기가야로 나눕니다. 전기가야에는 김해의 가락국이, 후기가야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중심세력이었습니다. 김해의 구지봉과 합천의 가야산에 얽힌 2계통의 가야의 건국신화는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 1. 전기가야(前期加耶) – 해상왕국 & 철의 왕국

**해상왕국** 전기가야에는 남해안의 거제(漚盧國·김해(狗邪國)·창원(古淳國·卓淳國)·함안(安邪國)·고성(古自國) 등이 번성하였고, 후기가야는 고령(大加耶)·합천(多羅國)·창녕(不斯國·比斯國)·의령(爾赦國)·거창(居烈國)·남원(己汶國)·하동(多沙國)·사천(史勿國) 등이 가야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기원전후의 시기에 김해를 비롯한 창원·마산·함안·고성·사천·진주 등의 지역에서는 소규모의 정



중국청동솥  
(김해양동322호분)



중국청동거울  
(김해대성동23호분)

치체 등이 형성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야 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대개는 3천~3천5백 명 가량의 ‘소국小國’들이었 으나, 김해의 구야국狗邪

國과 함안의 아야국安邪國은 2만~2만5천 명 정도의 ‘대국大國’이었 습니다. 가야사가 남해안에서 시작된 것은 낙랑군樂浪郡·대방군帶 方郡과 같은 선진지역과 바닷길을 통해 교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 다. <삼국지>는 3세기경에 대방군에서 일본열도에 이르는 해상교통 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해도에서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남해 에 접어들어 동쪽으로 향하다가, 김해의 구야국에 정박한 다음, 대한 해협을 건너 쓰시마對馬島를 거쳐 큐슈九州에 도착하는 항로였습니 다. 이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던 한漢의 선진문물이 이동하 던 경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남해에 인접해 있던 가야의 소국들은 이러한 선진문물 이동로의 관문과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찍 이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 들였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 니다. 김해의 대성동고분군 · 양동고분군, 창원의 다호리유적, 고성 의 동외동패총, 울산의 하대고분군 등에서는 이러한 경로로 수입되 었던 중국제 문물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전기가야 소국들의 발전 에는 중국군현과의 외교와 교역이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전하는 ‘포상팔국浦上八國(201~212년)의 난’은 사천·고성·칠원·마산 등의 가야가 김해의 해상교역권을

빼앗기 위해 가락국을 공격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야의 건국신화를 바탕으로 형제와 같이 이해하고 있지만, 같은 가야문화권이라도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전쟁도 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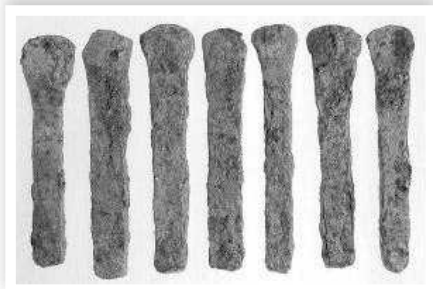
“나라(國)에서 철(鐵)이 생산되어 한(韓)과 예(濊), 그리고 왜(倭)까지 수출되었다. 여러 시장에서 사는 데 모두 철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화폐를 쓰는 것과 같았다. 또한 이군(二郡)에도 공급되었다.”

**철의 왕국** 이것은 『삼국지(三國志)』가 한(韓)의 종족 중에서 변진(弁辰)사회에 대한 기록이 전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철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보여주는 철의 생산과 유통이 언제를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편찬자인 진수(陳壽)가 서기 297년에 사망하였던 것과 관련 기술 중에 기원전후 변진사회의 고고학 자료들과 일치하는 것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기원전후에서 3세기말 사이의 변진사회에서 철이 생산되고 수출되던 소식들이 서북한에 있던 낙랑군과 대방군을 거쳐, 중국의 낙양(洛陽)까지 전해졌고, 진수(陳壽)에 의해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요. 해상왕국의 가락국이 중개무역만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철이 많이 생산되어 가깝게는 마한과 진한의 여러 나라에, 멀리는 서북한의 낙랑군과 대방군,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열도의 왜인들의 나라에 까지 수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락국은 철을 수출하던 철의 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김해의 많은 가야 고분들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3세기까지 김해와 경주에서 출토되는 철기를 비교해 보면, 김해의 가야고분에서 출토되는 철기가 질과 양에 있어서 경주 신라고분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양은 출토되었던 철기의 근수를 달아보면 될 것이지만, 질은 바로 강철사용의 빈도를 말합니다. 무기와 농공구의 날에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강철이 구사되었던가의 비교입니다. 물론 김해의 철기가 월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수출품의 일부가 김해·동래·함안·고령·합천 등의 가야고분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신라와 일본의 고분에서는 수입품의 일부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전기가야의 판상철부(板狀鐵斧)와 후기가야의 철정(鐵錠)과 같은 덩이쇠가 그러한 유물들입니다. 판상철부와 철정은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져 가치에 따라 물물교환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폐와 같은 역할도 하였고, 수입한 쪽에서는 필요한 철기를 만드는 소재로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덩이쇠(板狀鐵斧), 김해 양동 162호분 출토



덩이쇠(鐵錠) 출토 모습, 김해 대성동 2호분



송풍관, 김해 봉황대유적 출토

**김해 봉황대유적의 송풍관** 현재 김해에서 철이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까지 조업했던 김해시 대동면의 상동광산은 조선시대에 많은 양의 철을 왕실에 공납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김해시 생림면에는 생철리(生鐵里, 철이 나는 마을)라

는 지명도 남아 있고, 근년까지 쇠부리(製鐵)를 업으로 했다는 노인들의 증언도 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야시대의 제철유적이 어떻게 확인되느냐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불충분합니다.

그러나 최근 시내 봉황대유적의 발굴조사에서 제철의 용광로의 벽면에 꼽혀 있던 송풍관(送風管)의 파편과 쇠똥(鐵滓, slag)이 출토되었고, 진영 하계리농공단지유적에서는 본격적인 가야의 용광로와 제사와 폐



김해 진영 하계리농공단지유적 전경



기장, 그리고 생산을 담당했던 가야인들의 집자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송풍구는 용광로에 바람을 불어넣는데 사용하는 흙으로 만든 관으로 강한 불에 맞아 까맣게 그을린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쇠풕은 제철할 때 나오는 쇳물 찌꺼기가 굳은 것입니다. 하계리농공단지유적은 현장사진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2005년 가야세계문화축전에서 재현되었던 쇠부리, 곧 제철의 과정은 ‘철의 왕국, 가야’를 다시 보여주려는 후손들의 노력입니다.

**금관은 머리에 쓰는 관이 아니다** 가락국의 옛 서울 김해(金海)의 땅 이름이 ‘쇠 바다’입니다. 쇠(金)는 철의 왕국의 특징에서 비롯되었고, 바다海는 해양왕국의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로왕은 철을 다루는 능력으로 왕위에 올랐고, 대장장이를 천명하며 도전해 왔던 신라의 탈해왕의 도전을 물리쳤으며, 철의 생산과 수출을 통해 가락국을 고대왕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로왕의 후손 김해 김씨의 쇠술도 이러한 전통과 무관하지는 않을 거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관가야의 금관은 머리에 쓰는 금관(金冠)이 아니라, 김해를 통합한 신라가 가락국의 금(金) = 쇠를 관(官)리하겠다며 부쳤던 ‘금관군(金官郡)’에서 비롯된 이름이었습니다.

\* 고성의 고자국(固自國, 鐵城郡)도 ‘쇠가야’ 였다.

## 2. 가야사의 전환점 – 김해에서 고령으로

313 · 314년에 고구려에게 낙랑군과 대방군이 축출되면서 남해안의 가야

에 선진문물의 공급원이 차단되었습니다. 400년에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가야를 공략하였습니다. 이러한 1세기 간의 역사적 변동은 가야사의 중심이 남부의 해안지역에서 북부의 내륙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였습니다.

### 3. 후기가야後期加耶 – 영역국가로의 발전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전개된 후기가야는 가야금12곡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라국왕하지加羅國王荷知’의 남제南齊와의 외교에 대한 해석, 대가야식 토기와 문물의 확산에 대한 고고학적 해석 등을 통한 대가야사의 복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가야 금관 (호암미술관)

#### a. 가야금 12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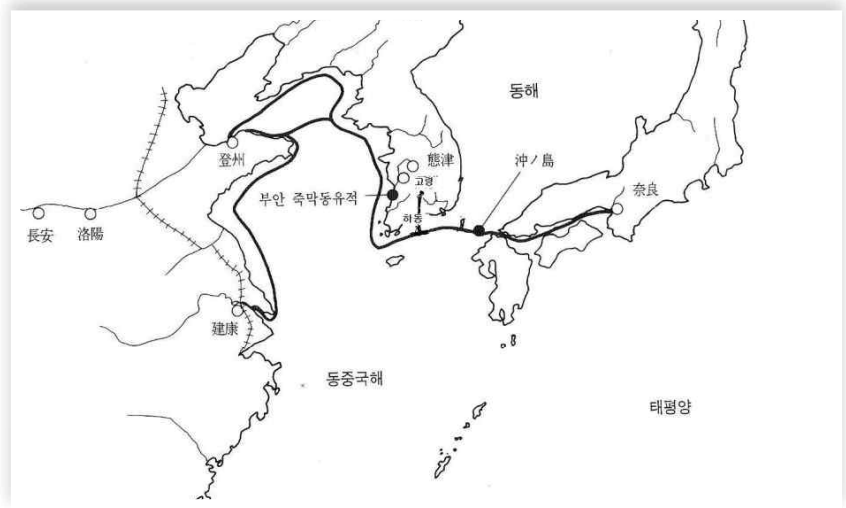
5세기 중 후엽에 대가야의 가실왕은 우륵에게 가야금 12곡을 작곡시켰습니다. <삼국사기>가 전하는 가야금 12곡명은 가곡歌曲·연주곡演奏曲·무곡舞曲 등으로 구성된 음악으로 해석되어왔습니다만, 최근에 가야금 12곡명은 서부경남의 가야 여러 나라들의 이름으로 해석되



고 있습니다. 대가야가 정치적 영향을 미쳤던 산물이 가야금 12곡이 있습니다. 고령의 대가야왕은 의령의 사이기국斯二岐國 사람 우륵于勒을 강제 이주시켜 작곡을 시킬 수 있었고, 가야금 12곡에 서부 경남의 가야들을 포함시키는 정치적 통합체를 추진하였습니다. 대가야왕은 축제의 마당에 가야왕들을 불러모았고, 가야금 12곡을 연주케 하여 가야의 일체감을 높였습니다.

b. 고령에서 양자강까지

479년에 대가야왕은 중국의 남제에 외교사절을 파견하여 ‘보국장군 輔國將軍본국왕本國王’에 제수되었습니다. 내륙에 위치한 대가야(고령)의 사절단이 중국의 양자강에 이르려면 먼저 남해로 나와야 합니다. 고령에서 남해로 나오는 길은 낙동강과 섬진강이 있지만, 당시의



\* 대가야 외교사절 파견루트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加耶浦」

낙동강 하류역은 신라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가야에서 섬진강 하구(하동)에 도달하려면 고령→합천→거창→함양→남원(운봉)의 육로와 남원→곡성→구례→하동의 섬진강을 경유하였을 것입니다. 5세기 후반의 대가야왕은 이러한 지역에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가야 사절단은 중국의 남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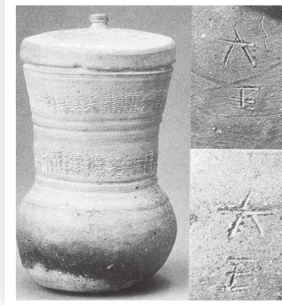


### c. 대가야 토기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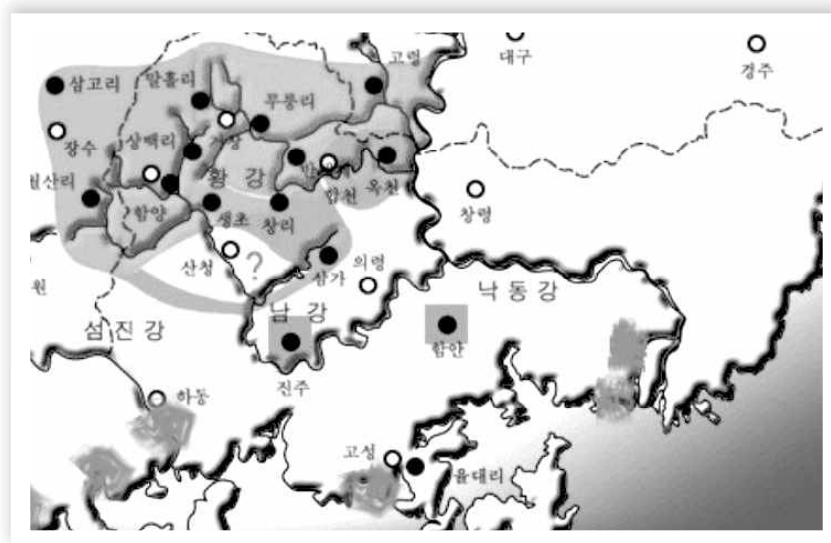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서부 경남지역에 대가야식 토기와 문물이 확산되는 현상과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내용입니다. 대가야식 토기와 금동제 위세품 등이 서부경남 일대로 확산되는 과정은 경제교역권(5C중엽)→간접지배권(5C후엽)→직접지배권(6C초)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대가야 굽다리접시(高杯)



대가야 대왕명장경호  
(충남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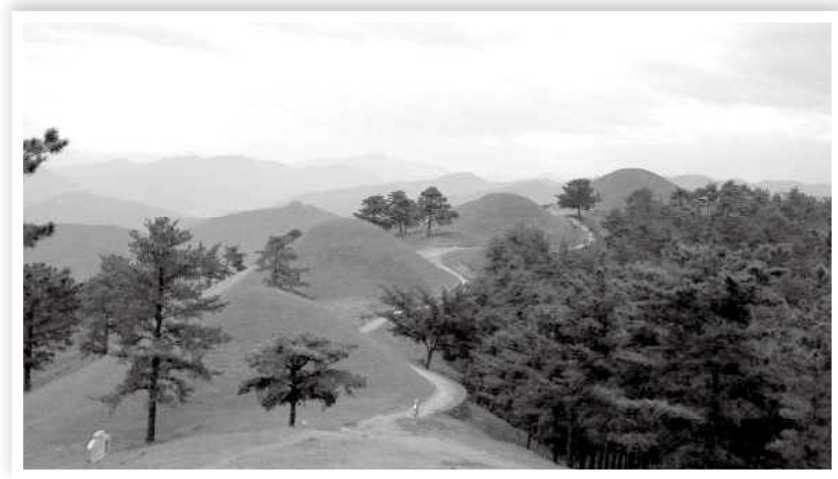


대가야 토기 확산의 3단계

d. 가야의 피라미드

**대가야왕릉답사** 대가야왕의 무덤이 있는 고령초등학교를 나와 남서쪽으로 고령소방서 옆의 비스듬한 언덕길을 오르면 오른 쪽으로 고령군민체육관이 보이고, 그 맞은편으로 예전의 가야공원과 대가야 유물전시관이 보입니다. 불상과 석등이 아무렇게나 서있는 가야공원

의 아래쪽으로 고령향교가 있는 곳에 대가야의 왕궁 터로 전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2000년 경북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는 심한 파괴로 이렇다 할 단서는 잡지 못했지만, 대가야의 왕궁 터라는 전승이 있어, 대가야국성지(大伽倻國城址)라고 새긴 자연석의 비가 있습니다. 다시 고령군민체육관 앞의 산길을 약간 오르면 주산성(主山城)의 성벽으로 이루어진 길과 발 아래로 수문이 있는 성벽을 지납니다. 여기부터 20여분 정도 꽤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 보면 갑자기 거대한 고분이 나타나고, 그 봉분을 넘으면 동쪽으로 발 아래로 고령 읍내가 펼쳐지며, 남쪽으로 물결치며 능선을 따라 내려가는 대규모의 고분들이 보입니다. 여기가 대가야의 왕릉묘역 고령 지산동고분군(池山洞古墳群)입니다.



지산동고분군

**지산동고분군** 높이가 6m에 지름이 25~27m나 되는 초대형의 44호분을 비롯한 약 70여기의 대형고분과 그 사이사이에 자리한 수백기의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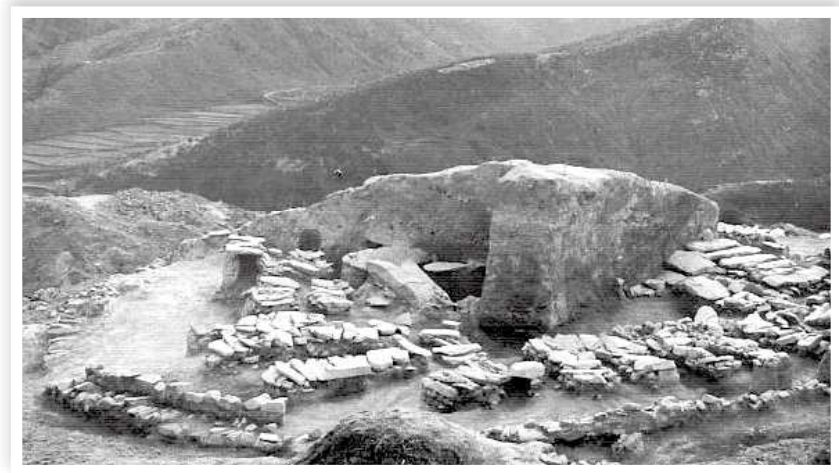
은 무덤들이 산 능선의 전체를 빼곡히 메우고 있습니다. 쌓아올린 봉토가 매우 높아 높을 고(高)에 무덤 총(塚), 그래서 고총(高塚)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전기가야의 ‘대가야’ 였던 김해의 가락국에는 이런 초대형의 고분은 없습니다. 가야지역에서 고총은 대개 4세기 말 경부터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가락국은 4세기 말~5세기 초를 경계로 쇠약해지기 때문에, 가야의 왕릉으로서 고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잃고 있는 셈입니다. 가야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대가야’ 로 발전했었지만, 고총이 만들어지는 때가 되면 이미 실력을 잃게 됩니다.

“늦되는 사람이 크게 된다” 고 했던가요? 김해에는 지산동고분군처럼 초대형의 봉분들이 즐비한 대규모의 고분군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세기 초에 남부의 가야국들에게 선진문물을 공급하고 있었던 낙랑군과 대방군이 고구려에게 축출되면서, 그를 대신하는 한반도의 선진국으로서 고구려와 백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5세기 초부터는 선진국의 고구려와 백제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위치한 북부의 가야세력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선두에 섰던 것이 고령의 대가야였습니다. 5세기 중반이 되면서 대가야는 후기가야의 중심국으로 성장하게 되고, 6세기 단계가 되면 합천·거창·함양·산청·의령·진주·하동 등의 서부경남일대를 석권하는 강력한 왕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고령의 대가야가 후기가야에서 중심국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산동고분군입니다.

**가야의 피라미드** 일제가 파헤치기도 했던 지산동고분군은 1977년에 경북대와 계명대 박물관이 44호분과 45호분을 발굴조사하면서 대

가야 왕릉의 면모로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44호분은 중앙에 3기의 대형 석실(石室) = 돌방을 만들고, 그 둘레에 방사선형으로 32기의 소형 석실들을 배치했습니다. 모두 35기나 되는 석실들은 1~3단의 호석(護石)이 둘러지고, 그 위는 하나의 봉토로 덮였습니다. 35기의 매장시설들이 하나의 무덤으로 한 번에 만들어졌던 것을 보여 줍니다. 44호분은 대가야의 왕릉으로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된 무덤이었습니다. 45호분도 같은 모양의 무덤입니다. 중앙에는 2기의 대형 석실이 나란히 만들어졌고, 그 주위에는 11기의 소형 석실들이 배치되었습니다. 44호분의 중앙에 위치한 석실의 길이는 무려 9.4m나 됩니다. 이 석실 = 돌방은 위치와 규모, 그리고 호화로운 각종의 유물로 보아 주인공이 안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4호분은 해발 300m 정도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5기의 석실에는 엄청난 석재가 사용되었고, 그 석재들이 자연석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채석하여 가공되고 이곳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지름이 25~27m에 높이가 6m에 달하는 봉토의 흙을 채취하고 운반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35기의 석실에서는 엄청난 양의 토기와 철기류, 금은제품, 식품과 직물류 등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생전에 쓰던 물건도 있겠지만, 44호분이 축조될 때 새로 제작하여 부장품으로 넣어졌던 것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장품들 역시 300m 아래의 왕궁과 부속 공방에서 제작되어 운반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의 무덤 안에 수많은 방들이 설치되었던 것도 그렇거니와, 고분의 축조에 투입되었던 엄청난 노동력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44호분은 가야의 피라미드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순장을 아십니까** 가야의 피라미드 고령 지산동44호분에는 중앙에 주인공의 대형석실이 자리하고, 그 둘레에는 순장자를 위한 많은 소형석실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순장(殉葬)이란 생전에 주인공을 모시던 사람들이 따라 죽어 함께 매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 석실에서 주인공의 발 아래쪽에 함께 묻혔던 순장인골이 확인되었고, 둘러싸고 있는 32기의 석실들은 순장자와 부장품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었습니다. 순장자들을 매장하기 위한 석실을 순장곽이라 부릅니다. 순장곽 하나에는 대개 3~5인이 순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2기에 3~5명을 곱하면, 모두 96~16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인공을 따라 매장되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인공의 석실에 순장된 숫자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되어야 하지만, 발굴조사자들은 60여명을 약간 넘는 숫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주인공을 따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돌아가셨다” “생전에 왕을 모시던 사람들은 은혜에 감사하며 따라 죽어야 한다” “왕은 저 세상에 가서도 이들의 시중을 받으며 생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대가야인들의 상식이었고, 그러한 상식은 대가야 왕의 초월적인 정치권력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44호분은 5세기 중 후반 경의 고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5세기 중 후반의 대가야 왕은 바로 우륵(于勒)에게 가야금12곡을 작곡시켰던 가실왕(嘉實王)이었습니다. 가야금12곡에 얽힌 사연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가야금12곡도 서부경남일대를 석권했던 대가야 왕의 정치적 위세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물론 44호분의 주인공을 결정적으로 밝혀줄 문자기록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자들끼리는 “가실왕이 틀림없을 께”이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석실을 방사선형으로 둘러싼 소형 석실들에는 가실왕을 모시던 여러 신하들이 순장되었던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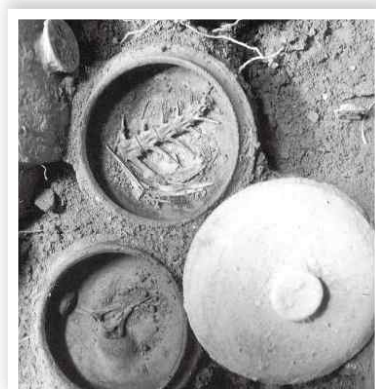
**순장과 권력** 그런데 32기의 순장곽들에 부장된 유물이나 인골들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들이 발견됩니다. 세 사람이 포개져 있었는데, 남녀어린이가 머리를 마주 대고 눕혀졌던 방도 있습니다. 말갯춤새들이 나오는 석실에는 전용차 운전수 쯤 되는 말잡이가 순장되었을 것이고, 철제 투구와 무기만 나오는 석실에는 왕의 호위무사 쯤이 순장되었을 것이고, 닭 뼈·생선 뼈·바다고둥과 같은 음식물이 주로 있는 방에는 왕의 식사를 책임지던 ‘가야의 대장금’ 같은 인물이 순장되었을 겁니다. 예쁜 금 귀걸이가 나오는 석실에는 왕을 모시는 아리따운 여인도 있었을 거고, 옷감 같은 많은 섬유질이

확인되는 방에는 왕에게 의복을 제공하던 사람들이 순장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특징들은 사후에도 왕의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내세관(來世觀)과 함께, 왕이 돌아갔다고 60여명이 넘는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 죽였던 대가야 왕권의 무자비한 통치력을 보여줍니다.

한편 『삼국사기』 직관지는 신라 조정에 각각의 업무를 관장하는 전문부서가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임무나 병기의 종류에 따라 편성된 각종 부대(幢), 신발을 만드는 화전(靴典), 기와를 만드는 와전(瓦典), 직물을 염색하는 염궁(染宮), 식사를 담당하던 육전(肉洗)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가야가 고대국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5세기 후반 경 대가야 왕의 휘하에는 여러 전문 집단이 국가기구처럼 조직되어가고 있었음은 주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의 순장은 사회발전의 후진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을 순장시키고 엄청난 무덤을 만들어 왕의 권력을 과시하고 왕권의 유지를 보장받으려는 사회는 저급한 단계입니다. 율령(律令)이란 법질서에 의해 통치되고 왕권이 계승될 수 있는 고대국가 사회에는 도달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신라 지증왕 3(502)년이 되면 순장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물론 이때 신라사회의 순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라 왕권은 더 이상 거대한 고분이나 생사람 잡는 순장을 통해 통치자의 위엄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지만, 대가야는 아직 아닙니다.

**대가야에도 연줄이?** 고령 지산동 44호분의 주인공을 둘러싼 32기의 순장곽 중에는 인골은 물론 한 점의 유물도 나오지 않은 것이 5기

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빌 허(虛) 자 허장(虛葬)이라 부릅니다. 계획도 하고 시설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사람도 부장품도 전혀 매장되지 않았던 무덤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허장은 가야시대에도 연줄(?)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의외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왕이 돌아가자 순장자 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순장곽도 설치했지만, 순장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44호분의 왕을 계승한 새로운 왕과 가까운 사람들이 연줄을 대어 순장자 리스트, 즉 살생부(殺生賦)에서 빠졌던 결과였을 겁니다. 1,500년 이전의 가야사회에도 국왕의 명령까지 바꿀 수 있었던 연줄이 통했던 모양입니다. 현대의 우리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가야 사회의 끈적거리는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가야 왕의 음식** 고령 지산동고분군에서는 여러 종류의 음식물들이 토기에 담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닭과 꿩의 뼈가 나왔고, 누치·청어·대구와 같은 생선뼈와 고둥·소라·굴과 같은 조개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이중에서도

청어와 대구 그리고 소라고둥과 같은 바다 생선과 조개의 존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생선뼈와 조개 모두는 주인공의 석실이 아닌 순장자의 석곽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대가야 왕실의 '대장금'과 같은 직역의 분화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만, 바다의

생선과 조개라는 특징은 대가야의 영역적 팽창을 생각할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대가야의 고령은 바다가 없는 내륙입니다. 그런데도 대가야 왕의 무덤에서는 바다 생선과 조개가 나옵니다. 대가야에 예속되어 있던 남해안의 가야에서 공납과 같은 형태로 바쳐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출토되는 44호분과 45호분은 479년에 대가야 왕 하지(荷知)가 남해를 통해 양자강 하류의 중국과 외교할 때의 무덤입니다. 따라서 내륙 고령에 바다 생선과 조개가 들어 올 수 있는 길은 낙동강과 섬진강이 생각되지만, 이 시기의 낙동강은 부산 동래지역을 확보하고 있던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가야가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섬진강 하구의 하동과 같은 곳에서 남해로 나아갔을 것이고, 고령 지산동고분의 바다 생선과 조개도 여기에서 공급되었을 겁니다. 지산동고분에서 발견되었던 생선과 소라고동은 5세기 중 후엽 경에 대가야가 하동을 포함하는 서부경남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생선과 조개로도 가야사는 복원될 수 있습니다.

**대가야 왕릉전시관** 이러한 지산동고분군의 내용과 대가야의 역사를 실감나게 살펴 볼 수 있는 곳이 대가야 왕릉전시관과 박물관입니다. 2000년 10월에 개관한 대가야왕릉전시관은 대규모의 순장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44호분을 발굴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한 곳입니다. 전시시설을 덮은 돔은 44호분의 봉토와 같은 모양과 규모로 만들어졌고, 최신의 전시방법과 내부시설은 최상급의 가야왕릉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전시관에서 박력을 느낄 수 있다면 좀 ‘오

버' 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러라도 고령까지 찾아가 살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가벼운 산책 삼아 지산동고분군을 돌아 내려오면 합천으로 통하는 국도 변의 전시관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리도 쉬면서 대가야의 영광에 한번쯤 젖어 보는 것도 그럴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석실에 누워있는 대가야 왕도 만나시고, 순장되었던 남녀 아이들은 누구였을까, 또 생사람의 순장자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참! 44호분에서는 야광조개로 만든 국자도 출토되었습니다. 야광조개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의 심해에서만 채취되는 조개랍니다. 경북 내륙 깊숙이 들어앉은 대가야가 어떻게 일본열도는 물론 남방까지 교류를 가졌을 까도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 5. 가야제국의 쇠퇴

6세기 전반부터 가야는 신라와 백제의 침입에 휘말리게 됩니다. <삼국사기·창녕진흥왕순수비·일본서기>에는 당시의 사정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라와 백제의 진출에 대해 독립유지를 위해 전쟁과 외교를 전개하는 가야의 노력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가야는 친백제노선과 친신라 노선을 반복하기도 하고, 이합집산을 거듭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 시기입니다. 임나일본부의 실체는 일본의 왜왕권이 가야에 파견했던 외교사절입니다만, 이들은 가야의 왕들과 보조를 맞춰가며 백제나 신라에 대한 외교활동을 벌였습니다. 아라국(安羅國) 왕은 함안에

이들을 머물게 하면서 백제와 신라에 대항하기 위해 왜를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532년에 가락국(김해), 560경에 아라국(함안), 562년에 대가야(고령)가 차례로 신라의 회유와 무력 앞에 통합되었고, 가야의 역사는 한국고대사의 울타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 6. 가야인들 일본과 신라로 진출

이후 가야인들의 일부는 일본열도로 이주하여 일본열도에서 고대국가가 탄생되는 인적·물적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일본의 九州北部, 岡山, 大阪, 奈良, 滋賀 등에는 이러한 흔적들이 부지기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로는 가야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신을 모시면서 생활하던 '카라, 아라, 아야, 가야' 등의 이름이 남아있는 여러 신사들과 고분유적과 거기에서 출토되는 수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가야의 부뚜막신앙도 일본으로 전해졌고 그 흔적은 부뚜막형 토기와 부뚜막신사로 일본열도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가야인들은 신라의 지방 사람으로 편제되기도 하였지만, 김유신(金庾信) 일족과 같이 정복국인 신라의 중심에서 최고 권력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유신 일족 3대에 걸친 신분상승의 노력은 참 눈물겹습니다. 할아버지 무력(武力)은 이름 그대로 한강유역을 비롯한 삼국 간의 격렬한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고, 아버지 서현(舒鉉)은 성골의 만명공주와 혼인하여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을 이루었고, 김유신은 전공과 혼인에 신라와 같은 조상을 가진 김씨로 주장하는 조상전승을 더하였습니다.



김유신 묘 (경주)



카라쿠니(辛[韓國])신사 (일본 오사카 남부)



Note.

---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note.

---



Part. 2

---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

**윤 태 영**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 1.

국립김해박물관은 1998년 7월 28일 가야전문박물관으로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부분적인 전시보완공사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전시개편 공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야는 역사적 기록보다 고고학 조사로 밝혀진 내용이 많은 고대국가이다. 따라서 고고학 조사성과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런 까닭에 중간 중간 특별전이나 테마 전 등을 자주 개최하였고, 일부 전시보완공사로 국민들에게 가야를 알리고자 하였다.

이번 상설전시개편은 그동안 축적된 가야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새로운 전시기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작업이다.

## 2.

국립김해박물관은 상설전시실과 강당 등이 있는 본관건물과 어린이 체험공간과 특별전이 열리는 가야누리 두 건물로 구성된다. 이번에 개편한 것은 본관 상설전시실이다. 본관 전시실은 1·2층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전시실 구조가 복도나 미로처럼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室(Zone) 개념을 도입하여 각 실별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모두 7개의 실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명을 밝게 하고, 전시대의 높이도 낮게 하여 누구나 쉽게 유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내용은 이전과 큰 차이는 없지만 새로운 자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1층은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사적인 내용

을 3개의 실로 구성하였다. 2층은 가야를 중심으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4개실로 구성하였다.

이런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1층은 다크 블루, 2층은 레드 브라운 색을 중심 색상으로 선정했고, 색상의 의미는 철과 바다라는 스토리를 담고자 했다.

1층은 구석기시대부터~신라문화의 확산까지 통사적 개념으로 전체를 구성하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각 주제별로 구분하여 특징을 알기 쉽도록 하였다. 다음은 각 실별로 전시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실은 ‘낙동강하류역의 선사문화’가 주제다. 경상남도지역에서 조사된 유적 가운데 사람이 살았던 가장 오래된 시기가 후기구석기시대이며, 이 시기에 해당하는 밀양 고례리유적, 진주 집현유적 등에서 출토된 석기부터 신석기시대 창녕 비봉리유적(가장 오래된 배와 토층 등 생활 중심)과 부산 가덕도유적(인골 출토 등 신석기시대 무덤 및 다양한 빗살무늬토기편 중심)을 중심으로 최근 발굴성과를 부각시켰다.

2실은 ‘가야의 여명’이다. 가야가 낙동강유역에 성립되기 전의 모습(변한)을 최근 발굴조사와 많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창원 다호리유적과 김해 양동리유적을 들 수 있다. 이 유적들에서 출토된 와질토기, 무문토기, 철기, 청동기 등과 함께 통나무관, 철기, 유리 등 장신구 등을 시간의 흐름과 주제에 맞게 배치하였다.

3실은 ‘가야의 성립과 발전’이다. 와질토기에서 도질토기로 토기의 재질이 변화하고, 대량으로 철기가 제작되는 등 이 시기 많은 변화가 관찰된다. 묘제에서도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규모가 확대되고, 부장

품 역시 양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토기형식이 구분되기 시작한다. 즉 김해의 금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고령의 대가야, 고성진주의 소가야 등이다. 물론 여기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금관가야이다. 다른 지역은 여전히 고식도질토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금관가야에서는 이 시기부터 단단한 도질이 사용된다. 이후 아라가야와 소가야, 대가야 등지에서 각각의 특징을 지닌 토기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3실 첫장에 김해지역에서 출토된 당시 토기자료를 전시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이전 전시에서 각 지역별로 토기를 나누어 전시하였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구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여기서는 초기 도질토기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중앙홀로 나오는 부분에는 가야가 세력이 약해져 서서히 붕괴되는 모습을 토기자료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야 멸망이후 가야인의 활약상을 그래픽과 판넬로 설명하였다.

2층은 생활/토기/철기/교류 등 4가지 테마로 전시실을 구성하였다.

4실은 ‘가야사람들의 삶’ 이 주제이다.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자료 가운데 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모았다. 특히 최근 창원 석동유적에서 발굴된 집모양토기를 중심으로 가야의 창고, 의례, 생활(음식그릇, 부뚜막, 직물), 농기구, 예안리 인골, 김해 회현리유적의 토층 전사 및 토층 별 출토 유물을 전시하였다. 인골은 거의 전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이 시도해 보았다. 예안리유적은 패총이 있어서 인골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인골에 대한 정리가 끝난 현재 편두라든지, 발치 등 당시 사람들의 형질적 특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편두는 인골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릴 때 이마를 눌러 편평

하게 한 것으로 남방문화의 영향으로 보기도 한다. 발치는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부 민족지자료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행하기도 한다고 한다.

부뚜막은 요즘 것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실제 가야유적의 주거지에서는 고정된 것도 있지만, 이동식 부뚜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발견된다. 오늘날처럼 밥을 짓는 것이 아니고 떡처럼 찌서 먹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 밖에 습지에서 출토된 목기자료들도 가능한 한 확보하여 전시하였다.

5실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야토기’다. 토기를 굽는 가마모형을 중심으로 그릇의 종류별 전시와 더불어 수장고에 격납된 모습을 전시실로 옮겨놓은 듯한 수납대 스타일의 전시 기법 등 양적인 측면을 부각하였다. 여러 가지 모양의 토기를 보는 재미와 찾는 재미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6실은 ‘철의 왕국, 가야’다. 철제품 중 가장 가시적인 비주얼을 가진 갑옷과 투구를 중심에 두고 무기와 말갈춤 등 주제별로 구성, 마지막에 철제품을 만드는 생산유구모형을 전시함으로써 철제품 생산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였다. 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산업기반이 되지만, 철이 처음 생산되던 시점에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하기 위한 통제와 유통을 위한 조직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철이 고대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야는 이런 철제작기술과 전문가집단, 조직을 갖춘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무기를 갖추게 되고, 그것이 갑옷이나 말갑옷 등으로 드러난다. 갑옷을 만들기 위해

신꼴과 같은 갑옷틀이 있고, 여러 철판을 엮고, 잇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한 복잡한 공정을 지닌 것이다.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던 가야는 당시 뛰어난 기술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7실은 '해상왕국, 가야'다. 철제품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들어온 물건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 물건들의 운송 수단으로써 이용한 최초의 가야배이니 김해 봉황동유적 출토 배 편을 전시하고, 토기로는 배모양 토기를 전시하였다.

이상으로 국립김해박물관 개편에 즈음하여 전시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번 개편작업은 그동안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자료를 새로운 기법으로 전시하고자 했으며, 특히 초등학생이 주 관람객인 관계로 전시장의 높이를 낮추었고, 조명도 훨씬 밝게 해서 유물을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영상물과 받침대 전시 스타일을 입체적으로 디자인하여 어린이들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Part. 3

---

**관으로 본  
한반도 삼국시대  
복식의 계통과 흐름**

함순섭  
국립대구박물관장

---



## 1.

최근에 한반도 삼국시대 금공장신구는 사회체제와 연관된 복식의 구성요소로서의 해석과 정치체 상호간의 관계망을 해석하려는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금공장신구를 착장형 위세품으로 파악하는 그간의 연구 성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연구들은 금공장신구의 대부분이 착장형 위세품으로 제작되어 국가에 의해 사여된 복식의 구성요소라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의 분석을 통해 사회체제를 究明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비판과 신중론은 위세품 및 사여에 대한 논점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 분묘에 부장된 금동제 식리뿐만 아니라 일부 장신구까지도 장의용품으로 보는 견해, 위세품에 해당하는 금공장신구를 지방에서도 제작한 것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금공장신구 연구의 바탕인 고고자료는 영역별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으며, 분묘 부장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신라는 상대적으로 풍부하나, 고구려·백제·가야는 미약하다. 백제와 가야는 최근 급증하는 분묘발굴로 인해 자료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략적인 흐름만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이다. 고구려는 매우 사실적인 고분벽화가 있으나 실물 자료가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러한 자료의 편중은 당시의 매장 의례 및 사후사계에 대한 사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데, 繼世思想의 存續與否와 強度가 분묘의 부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논고는 삼국시대 금공장신구의 영역별 비교를 통해 도출된 양

상이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맥락과 어떠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면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관에 한정하며, 형식학적 분석보다 그 흐름만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분석시기는 금공장신구가 집중 출토되는 4세기말에서 6세기이다.

## 2.

冠이란 특정 형태와 치등화된 재질 및 장식으로써 착용자의 사회적 위계를 상징하고 제도적 장치인 冠制에 의해 규제를 받는 公的 儀禮用 쓰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고학 용어로는 금속제 대륜이 있는 것만을 ‘冠’이라 불러왔는데, 발굴을 통해 피장자의 頭部에서 이런 장신구가 확인된 사실에 따라 적용되었고, 신라의 분묘를 조사한 일제강점기의 관학연구자들에 의해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는 고고자료 및 역사 기록과 결코 일치할 수 없는 학술용어이므로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기존의 개념을 보완한 고고학적 용어로서 冠은 크게 보아 ‘帶冠’과 ‘帽冠’으로 나누어진다(咸舜燮 1999 : 73~74). 아울러 관은 복식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머리에 착용하는 것으로서, 착용자가 소속된 정치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주된 상징 물품으로 쓰였다고 판단한다.

모관은 한반도 삼국시대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관이다. 상투를 감쌀 정도의 작은 고깔모양[弁形]이며, 양측면의 하단에 두 줄씩의 끈을 달아 귀의 앞뒤로 내리고 턱밑에서 묶어 着用하였다. 대관의 부속구로 잘못 인식되어 冠帽 혹은 內冠으로도 불러왔으나, 문헌기록과 고분벽화를 통해 볼 때 모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착용자의 위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冠으로서 완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발굴결과로 볼 때 모관은 일반적으로 얇은 자작나무 껍질을 엇갈리게 붙여 두매의 측판용 심지를 만든 다음, 양측판 심지를 조합하고 비단을 덮어 씌워 만들었다. 몇몇은 표면의 일부 혹은 거의 전부에 귀금속을 덧대어 장식하기도 있다. 착용자의 위계에 맞게 관식을 끼우거나 붙여 장식하는데, 유기질제인 고깔이 부식되고 금속제 관식만 남아도 모관의 존재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금속제 모관은 백화수피와 비단으로 만든 모의 외면에 금속장식판을 덧댄 것이지 그 자체로 완전한 구조가 아니다(咸舜變 2007 : 16)<sup>1)</sup>. 문헌 기록<sup>2)</sup>은 관의 형태와 심지를 덮어씌운 직물의 종류 및 색뿐만 아니라 관식의 착장방법과 형태 및 재질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내용만으로 볼 때 문헌

1) 투조장식판으로 조합된 금속제 모관은 상투를 감싸는 데 매우 부적절한 형태이며, 하단의 마감도 날카롭기에 내부에 유기질 모가 없다면 착용할 수 없다. 투조문이 없는 경우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은 정수리와 접하는 하단의 外緣을 절판복원법으로 마감하여 나름 완결성을 지녔다. 그러나 이 모관도 표면에 영락이 달려 있기에 내부에 별도의 유기질 모가 없다면 착용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 ㉠ 其公會衣服 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皆著幘 如冠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 形如弁(《後漢書》卷85 東夷列傳 第75 高句麗條)  
 ㉡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插鳥羽 貴賤有差(《魏書》卷100 列傳 第88 高句麗條)  
 ㉢ 人皆頭著折風 形如弁 土人加插二鳥羽 貴者 其冠曰蘇骨 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北史》卷94 列傳 第82 高麗條)  
 ㉣ 人皆皮冠 使人加插鳥羽 貴者冠用紫羅 飾以金銀(《隋書》卷81 列傳 第46 東夷 高麗條)  
 ㉤ 衣裳服飾 唯王五綵 以白羅爲冠 白皮小帶 其冠及帶 咸以金飾 官之貴者 則青羅爲冠 次以緋羅 插二鳥羽及金銀爲飾(《舊唐書》卷199上 列傳 第149 東夷 高麗條)  
 ㉥ 五服五采 以白羅製冠 革帶 皆金釧 大臣青羅冠 以絳羅 珥兩鳥羽 金銀雜釧(《唐書》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條)  
 ㉦ 官有十六品 左平五人一品……奈率六品 已上冠飾銀華(《北史》卷94 列傳 第82 百濟條)

기록은 모관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관은 帽의 꼭대기 형태에 따라 圓頂型과 方頂型으로 나누어지며(咸舜燮 1995), 관식의 착장방식 및 형태에 따라 세분될 수 있다(咸舜燮 1999 : 75).

대관은 기본 구조인 帶輪[臺輪]에 입식을 조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지금까지의 발굴결과로 볼 때 신라와 가야 그리고 백제의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쓰였다. 문헌기록과 고분벽화로써 그 용례를 명확히 찾아내기 어려우나, 분묘에서 두부에 부장된 경우가 많다. 대관은 표면에 매단 장식과 얇은 금속판으로 인해 대륜의 이면과 가장자리를 마감하지 않으면 그대로 착용하기 어렵다. 조선시대 ‘金梁冠’의 예를 통해 보면, 금속으로 만든 대관은 이면에 유기질을 덧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정수리를 감싸는 장치도 있었을 수 있다<sup>3)</sup>.

④ 其冠制並同 唯奈率以上 飾以銀華(《隋書》卷81 列傳 第46 東夷 百濟條)

① 王服大袖紫袍 青錦袴 素皮帶 烏草履 烏羅冠 飾以金礪 羣臣絳衣 冠冠以銀礪(《唐書》卷220 列傳 第145 東夷 百濟條)

① 二十七年……二月 下令六品已上服紫 以銀花飾冠 十一品已上服緋 十六品已上服青……二十八年 春正月 王服紫大袖袍 青錦袴 金花飾爲烏羅冠(《三國史記》卷第24 百濟本紀 第2 古余王條)

④ 伊飡·迺飡 錦冠 波珍飡·大阿飡, 衿荷 緋冠 上堂·大奈麻·赤位·大舍 組纓 (《三國史記》卷第33 雜誌 第2 色服)

3) 신라의 대관 중 일부는 내부에 십자형으로 교차시켜 반구상을 이루도록 만든 금속제 부속이 달려있다. 이 부속만으로는 內帽으로써 직접 기능을 하었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나(咸舜燮 2001 : 59), 대관의 着用方式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즉 십자형의 금속제 부속은 유기질 내모를 지탱하는 골격이었을 수 있으며, 이 유기질 내모는 골격의 구조로 보면 대륜과 직접 연결되었을 수 있다. 또한 모관의 예를 통해 볼 때, 두발은 상투를 튼 상태일 수 있으므로 골격이 상투보다 높게 형성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아울러 호암미술관 소장 전 고려금관은 처음 알려졌을 때 대륜과 입식이 분리된 상태였다(金元龍 1971 : 1). 이로 보아 대륜과 입식이 직접 결합되지 않고 별도의 구조를 통해 서로를 연결된 형태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입식은 입식 상호간 혹은 정수리를 감싸는 장치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대관은 대륜의 형태와 고정된 입식의 유무 및 형태에 따라 세분된다(咸舜燮 1999 : 75).

이상의 모관과 대관 이외에 두 형식이 조합된 관의 존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梁山 夫婦塚과 羅州 新村里 9號墳 乙棺에서 두 형식이 조합된 채 부장된 관이 발굴되었다. 양산 부부총의 예는 전형적인 신라의 수지형대관과 조익형모관이 조합된 것이다. 신라에서는 이외에 사례가 없으며, 신라의 지방에 해당하는 대구 달성고분군이나 경산 임당고분군에 한 명의 피장가가 복수로 동종 혹은 이종의 관을 지닌 채 매장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양산 부부총의 관은 누차에 걸쳐 사여 받은 별도의 관을 매장할 때 조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며, 관의 착용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지방에서 특이조합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sup>4)</sup>. 따라서 신라에서는 현재까지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모관과 대관의 조합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본다(咸舜燮 2001 : 59~60)<sup>5)</sup>. 백제의 사례는 통시대적 상황을 아직까지 확실히 구명할 수 없기에 단정하기 어렵다. 단지 나주 신촌리 9호분 이외에 익산 입점리 1호분에서도 모관과 대관의 조합을 생각하게 하는 부속구가 발굴되었다. 이 조합은 일본열도의 福井縣 十善ノ森古墳 출토품(西山要一 1981)에서도 확인되는데 상호간의 형식적 공유를 생각하게 한다. 아울러 백제와 가야에서는 좁은 대륜만 있는 협대관이 확인되는데, 이 협

4) 발굴과정의 오류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견해(이한상 2004 : 71~72)도 있다.

5) 신라 수지형대관은 주3)과 같은 복원구조를 염두에 둔다면 모관과의 조합을 상정하기 어렵다.



대관은 모관과의 조합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본다.

### 3.

고구려의 冠은 문헌 및 실물 그리고 고분벽화에 나타나 있는 양상으로 보아 모관이 주류를 이룬다. 모관의 보편적 형태는 加插型式의 鳥羽形冠飾으로 꾸민 弁形의 折風이다(咸舜燮 1995 : 93~99). 관식은 二鳥羽 이외에 三鳥羽도 있는데, 집안 출토품으로 보면 여기에 부착형식의 山形冠飾이 조합된 複合型式이 확인된다. 鎧馬塚 벽화에서 塚主는 三鳥羽이고 그 주변인물은 二鳥羽인 점으로 보아 위계에 따라 조우의 구조가 달랐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벽화에서 확인되는 최상위 위계의 사람들은 가삽형식의 조우관식보다 부착형식의 관식으로 꾸민 帽冠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착형식의 관식은 “金釰·金銀雜釰”라는 기록으로 볼 때 馮素弗墓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일 수도 있다(咸舜燮 1999 : 77).

대관은 현재까지 平壤 淸岩里土城 출토품이 알려져 있다<sup>6)</sup>. 매듭을 모방한 드림장식과 대륜에 입체적으로 표현된 연꽃 등으로 보아 日本 奈良 法隆寺 夢殿 救世觀音菩薩立像과 大寶藏殿 百濟觀音菩薩立像의 寶冠과 흡사하다. 이는 출토지에 인접한 청암리사지와 친연성이 있는 日本 飛鳥寺 및 法隆寺의 建築樣式에서도 유추되듯

6) 이외 日本 奈良 天理參考館所藏 傳 平壤 出土品을 冠으로 報告한 例(李浩官 1981 : 114)가 있으나, 이는 原所藏家에 의해 再組立된 것으로 冠이라 볼 수 없다.

이 양국간에 공통되는 불상의 보관으로 보아야 한다(李浩官 1981 : 108~109, 咸舜燮 1997 : 89). 이로 보아 고구려에서는 대관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백제의 冠은 한성시기의 중앙에서 출토된 것이 없어 전체를 단언하기 어렵다. 최근에 한성시기의 모관이 당시의 지방에서 발굴됨에 따라 그나마 윤곽은 살펴 볼 수 있게 되었다. 天安 龍院里 9號 石槨墓, 公州 水村里 II-1號 木槨墓 및 II-4號 石室墳, 瑞山 副長里 5號 墳丘墓 출토품이 대표적이다(李勳 2006). 弁形인 帽은 모두 圓頂型이며, 비단으로 감싼 자작나무 껍질의 심지도 확인된다. 수촌리와 부장리 출토품은 측판으로 투조장식판을 덧대었으며, 측판과 같은 기법으로 만든 관식을 모의 전후면에 부착하였다. 복륜에는 반구장식을 단대롱을 결합시켰는데, 부장리 출토품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문양은 용과 봉황인데 매우 사실적인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한성시기 모관은 관식의 형태 및 부착방식에서 독특한데 부분적으로 웅진시기의 모관에서도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웅진시기의 관은 무녕왕릉 출토품과 익산 입점리 1호분, 나주 신촌리 9호분 을관, 함평 신덕고분, 高興 雁洞古墳 출토품이 있다<sup>7)</sup>. 무녕왕과 왕비의 관은 전체 조합상을 정확하게 복원하기 어렵다. 무녕왕릉 출토 관식은 연꽃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 특히 왕비 관식의 중

7) 익산 입점리 1호분과 고흥 안동고분을 한성시기에 비정한 견해(李漢祥 2006)가 있으나, 고분의 구조 및 출토품(갑옷, 운구용목관의 부속), 역사적 배경 등으로 볼 때 웅진시기에 가깝다고 본다.

심문양은 연꽃을 꽃은 화병을 연화좌에 올려놓은 형상이다. 이로보아 연화문이 웅진시기 이후에 百濟의 冠을 규정하는 의장으로 정착된 점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흡사 부채를 닮은 이 관식들은 하단에 장착을 위한 뿌리가 있으며, 대칭되는 두 개가 한 조를 이룬다. 장착 방식은 근거가 부족하나, 삼국시대 보살상의 삼면두식 보관과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압(아프라시야브) 유적 벽화<sup>8)</sup>에 그려진 7세기대 船遊女人圖의 頭部裝飾(L.I.アリバウム 1980 : 105~107)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외에 왕의 관에는 방형과 오각형의 부착형식 관식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연결하여 부착하였다면 흡사 넓은 대륜과 같은 형태가 된다. 따라서 무녕왕릉 출토 관은 대관과 모관이 조합된 형태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입점리 1호분의 관은 다양한 형태로 조합될 수 있는데(咸舜燮 1997 : 95), 최근에 발굴된 한성시기의 모관이 복원에 지침을 제공한다. 반구장식이 결합된 圓頂型의 모는 봉황문이 새겨진 광대관과 조합되거나, 초화형 입식 및 다양한 협대관과 조합될 수 있다. 연화문 및 봉황문이 새겨진 삼각형관은 한성시기 모관의 전후면에 부착된 부착형식의 관식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입점리 1호분의 관은 한성시기 모관의 전통을 따르면서 웅진시기에 형성된 모관과 대관의 조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인다. 봉황문과 연화문의 조합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高興 雁洞古墳의 관은 정식보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분명하지 않

8)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サマルカント) 아프라시압(아프라시야브) 都城 内城遺跡 23號  
發掘地點 1號室 北壁의 壁畫

다. 투조장식관으로 마감하고 반구장식을 결합시킨 원정형의 모는 한성시기 모관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공반된 倭系의 橫長板板甲[橫短板短甲]은 고분의 축조연대를 한성시기라 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나주 신촌리 9호분 乙棺의 관은 연화문으로 장식된 초화형 대관과 원정형 모관을 조합한 것이다. 웅진시기의 관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한데, 모에 반구장식이 없는 점이 다른 모관들과 차이를 보인다. 함평 신덕고분의 관은 도굴 때문에 극히 소량의 파편만 남아 있어 분명하지 않다. 단지 초화형 입식과 결합된 귀갑문이 새겨진 廣帶(二山式)冠으로 판단한 바(咸舜燮 1997 : 95)가 있다. 이를 광대관으로 판단한 근거는 귀갑문의 중심에 유리옥을 부착시켰는데 일본의 광대관 제작기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sup>9)</sup>. 부착된 유리옥 주변에는 연화문이 새겨져 있다. 이상의 웅진시기 관의 특징은 모관과 대관의 조합, 연화문의 정착, 투조문이 사라진 원정형 모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사비시기의 관은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모관만 확인된다. 전시기와 달리 모관은 가삽형식의 화형관식을 장착한 형태로 정형화되었고, 백제 전역에 널리 확산되었다. 이는 주 2의 문헌기록과 상당히 일치되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례는 적지만 羅州 伏岩里 3號墳 7號石室 출토품과 같이 유기질 모에 부착한 관식도 있다. 모는 모두 유기질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전시기와 달리 원정형 이외에 방정형의 모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능산리 36호분에서 발

9) 식리의 파편으로 본 견해(朴普鉉 2006 : 175)도 있으나, 스파이크와 측판 및 저판의 연결부위로 볼 수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견된 역삼각형 골조는 흡사 대구 달성 55호분과 소장 Collection 전창녕 출토품으로 확인되는 신라의 방정형 모에 부착된 측면장식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화형관식의 배면을 지탱하는 장식의 골조로 본 견해(崔孟植 1998)가 있으나, 신라의 사례를 따르는 것이 모관의 구조에 훨씬 더 적합하다.

가야에서는 대관과 모관이 모두 확인된다. 대관은 草花形帶冠·前額形帶冠·狹帶冠이 있으며, 變形 樹枝形帶冠도 있다. 초화형대관은 전 고령금관, 小倉 Collection 금관 및 금동관C(早乙女雅博 1982 : 8~10), 星州 伽岩洞古墳 금동관이다. 이들 대관의 입식은 초화형이라는 상징의 유사성만 인정될 뿐 세부 형태에서 각각 조금씩 다른, 즉 齊一性을 인정할 수 없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비해 전액형대관은 지산동 32호분 금동관과 小倉 Collection 금동관D(早乙女雅博 1982 : 10~11)이다. 이는 2점뿐이지만 齊一性을 띠고 있다고 보인다. 협대관은 함안 말이산 34호분과 함천 옥전 M6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이외에는 옥전 M6호분에서 출토된 수지형대관이 있다. 이 수지형대관은 신라의 사례로 볼 때 퇴화형식에서 보이는 속성을 따르고 있으나, 타원형 압날문의 시문·소형 초화형입식의 조합·樹枝 및 보주 부분의 均齊性 파괴 등 신라의 수지형대관에서 관찰되지 않는 기법 및 속성도 있어 가야에서 제작된 모방품일 가능성이 높다. 가야의 대관은 전역을 포괄하는 뚜렷한 齊一性을 찾을 수 없는 점이 오히려 특징이다. 모관은 함천 옥전 23호분과 반계제가-A호분의 출토품이 있다. 두 점은 모두 원정형인데, 전자는 측

판에 투조문이 있고 후자는 없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백제와 달리 대룡만 있고 반구장식이 없으며, 조익형에 가까운 초화형 관식이 측면에 부착되어 있다. 반계제 가-A호분의 모관은 突起附胄의 꼭대기에 부착된 것으로, 합천 옥전 M3호분과 남원 월산리 M1-A호분에서도 모관을 장착할 수 있는 투구가 발굴되었다. 가야의 관은 대관이 보편적인 점에서 신라의 양상과 유사하나, 초화형대관 및 협대관의 존재와 모관에 대룡을 부착한 점에서 형식학적으로 백제에 더 가까운 속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신라에는 대관과 모관이 모두 있는데, 영성한 문헌기록에 비해 실물자료가 매우 풍부하다. 대관은 대부분 樹枝形帶冠이며, 황남대총 남분 및 의성 탑리 I 묘곽 출토의 羽毛形帶冠도 짧은 기간 공존한다. 모관의 형태는 백화수피 심지에 비단만을 씌운 것과 이것에 금속장식을 덧댄 것이 있으며, 주로 鳥翼形 관식을 가삽하지만 우모형 관식과 판형 관식도 있다.

신라 수지형대관은 對生枝 입식의 형태가 자연수지형에서 직각수지형으로 바뀌고, 互生枝가 추가되며, 대생지의 단수가 증가하고, 부가장식이 확충되어 밀집화되다가 점차 조약해지는 것과 같은 속성으로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시원형식, 표준형식, 퇴화형식이 설정된다. 시원형식은 자연수지형의 대생지만으로 입식이 구성되어 있는데, 경주 교동 출토 금제대관이 대표적이다. 표준형식은 직각수지형 입식이 등장하고 대생지 세 개와 호생지 두 개의 입식이 조합된다. 금제대관으로 보면 皇南大塚 北墳 단계에 완성된

다. 황남대총 북분·금관총·瑞鳳塚의 출토품은 표준형식이 성립하는 단계에 속하며, 대생지의 마디가 세 단인 특징을 지닌다. 이후 만들어진 金鈴塚과 天馬塚의 출토품은 표준형식이 발전한 단계에 속하며, 대생지의 마디가 네 단이다. 표준형식은 수지형대관의 제일성이 가장 분명한 단계이다. 퇴화형식은 금제대관이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단계이며, 제일성이 해체되는 과정이다. 대생지와 호생지에 겹가지가 추가되거나, 대생지 다섯 개로만 조합되는 경우를 거쳐, 투조로 대생지를 조각하게 제작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경주 호우총, 안동 지동 2호분, 단양 하리 출토품이 대표적이며, 일본 군마현 전교 금관총 출토품은 신라 수지형대관의 퇴화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수지형대관의 분포는 5세기에서 6세기 중엽까지 대체로 낙동강 이동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나, 6세기 중엽이후 신라의 영역확대에 따라 한강 유역까지 분포범위가 점차 넓어진다. 이는 신라의 영역추이와 거의 연동한다고 볼 수 있다(咸舜燮 2000 : 70~80).

모관은 원정형과 방정형이 모두 확인되는데, 뚜렷하게 구분되는 전후면이 백제·가야의 것과 다른 점이다. 금속제 모관은 황남대총 남분 단계를 시작으로 천마총 단계까지 이어진다. 관식이 끼워지는 전면의 오각형판과 측판 중간을 가로지르는 지그재그 선 그리고 후면 중앙의 돌출부는 변함없이 계속되지만, 투조장식 측판은 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관식은 대부분 조익형과 이의 변형인 접형을 가삼형식으로 장착하였으며, 소수이지만 우모형도 확인된다. 조익형관식은 전립부에 양익부가 결합된 형태이며, 전립부 또는 양익부만으로 된 경우도 많다. 금관총 출토 조익형관식을 보면 모와 접촉되는 이면

의 일부분에만 영락을 달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조익형관식이 얇은 모의 형태에 맞게 절반 접힌 채로 가압되었음을 알 수 있다(咸舜變 2007 : 18). 신라의 모관은 수지형대관 못지않게 제일성이 매우 뚜렷한 관으로 알려져 있다.

#### 4.

이상의 자료로 보아 모관은 삼국시대의 모든 정치체에서 모두 사용된 보편적인 관이다. 이에 비해 대관은 신라와 가야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백제에는 웅진시기 이후에 등장하지만 모관과 조합된 형태로 사용된 듯하다. 대관의 분포권은 입식의 형태에 따라 수지형·우모형 대관의 신라권역과 초화형·전액형 대관 및 협대관·광대관의 백제 및 가야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포권은 모관에서도 간취된다. 우모형관식은 고구려와 신라에서 확인되는데 반해, 대롱을 부착한 것은 백제와 가야에서 확인된다. 신라의 조익형관식은 집안출토품과 개마총 벽화로 볼 때, 고구려의 우모형관식을 신라식으로 전용한 의장으로 볼 수 있어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모의 외형에서 신라의 것은 서로 다른 각도 때문에 전후면이 분명하지만, 백제와 가야의 것은 그리 뚜렷하지 않다<sup>10)</sup>. 금속제 모관의 투조문 측판도 백제는 먼저 나타나지만 신라는 나중에 나타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이식과 같은 변화상이

10) 투구에 장착된 반계제 가- A호분 출토품은 예외이다.



뚜렷한 장신구에서도 확인된다. 신라는 고구려 이식의 기본 모티브를 바탕으로 고유의 태환이식과 세환이식을 발전시켜 나갔는데, 대표적으로 황남대총 남분 출토 태환이식은 고구려에서 직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에 비해 백제와 가야의 이식은 긴 사슬구조, 금봉을 꼬아서 만든 주환, 금사로 엮어 단 수식 등에서 공통점이 많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일본열도와의 관계이다. 일본열도의 관은 신라 수지형대관과 연결된 群馬 前橋 金冠塚古墳 출토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백제·가야의 관과 친연성을 띤다. 반구장식이 달린 모관, 초화형대관과 광대관의 공유가 이를 증명한다. 이상의 근거로 보아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고대복식은 고구려·신라 권역과 백제·가야·왜 권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복식에 사용된 장신구로 구분되는 권역의 발생배경은 역사적 맥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고구려를 제외한 백제·가야·신라에서 언제부터 귀금속제 장신구를 사용하였는지는 『삼국지』위서동이전 韓傳의 기록을 통해 유추된다. 이 문헌에 삼한 사람들은 “구슬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꾸미고 혹은 목과 귀에 달기도 하지만, 금은과 비단은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以瓊珠爲財寶, 或以綴衣爲飾, 或以縣頸垂耳, 不以金銀錦繡爲珍)”라고 전한다. 이 사실은 삼한의 무덤에서 발굴된 유리와 준보석으로 만든 다양한 구슬류를 통해 입증된다. 이에 비해 동시기의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금은과 비단을 사용하였고<sup>11)</sup>,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삼한과 교류하였던 중국의 중원세력과 그 변방의 군현에서는 금은제품을 널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한 사람들이 금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

는 분명하지 않다. 이를 문화 차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을 듯하나, 그것만으로 설명이 부족한 점도 있다<sup>12)</sup>.

이러한 삼한사회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고구려에 의한 중국군현의 축출(313년)이다. 즉 漢의 붕괴와 이후의 분열상에도 불구하고 중국군현은 3세기대까지 대중국 관계망에서 매개역할을 이어갔다. 하지만 중국군현의 축출로 인해 4세기대 한반도 중남부의 정치체는 내부적으로 소국단계를 넘어선 고대국가로의 통합력을 키워갔고, 대외적으로 패권을 장악한 고구려와 연계하거나 따로 관계망을 모색해야만 했다. 이에 백제는 고구려와 대척점에 서서 이전 시기부터 바다를 통해 대외교역망을 이루었던 가야와 왜를 잇는 관계망을 재편하였던 것이다. 신라는 낙동강 이동지역의 小國을 아우르는 마립간체제로서 통합의 토대를 완성하였고, 고구려와 연계하여 대외관계망을 형성하였다. 381년에 고구려를 매개로 前秦에 파견된 신라의 사신은 변화된 정치사정을 단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sup>13)</sup>. 이러한 맥락 속에서 4세기대에 고구려와 백제가 주도한 二大樞軸은 성립되는데, 중국대륙과는 고구려가 북부의 정치체와 백제가 남부의 정치체와 관계망을 구축하였다. 즉 중국대륙 북부(북조)-고구려-신라의

11) ㉓ 在國衣尙白, 白布大袂, 袍·袴, 履革鞞·出國則尙繪繡錦罽, 大人加狐狸·狢白·黑貂之裘, 以金銀飾帽. (《삼국지》위서동이전 부여전)

㉔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其公會, 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삼국지》위서동이전 고구려전)

12) 삼한 사람들은 황금색을 띠는 有色合金인 靑銅을 이미 수백 년 동안 사용한 경험을 지녔기에, 漢군현과의 인적 물적 접촉을 거치면서 황금의 가치에 대해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황금만을 대상으로 할 때, 또 다른 검토 대상은 중원세력에 의한 冊封體制이다. 책봉체제 아래에서 군현에 인접한 삼한은 상대적으로 격하된 정치상황에 몰려 있었기에, 책봉체제와 연동하는 황금의 사용에도 제약을 받았을 수 있다고 본다.

관계망과 중국대륙 남부(남조)-백제-가야-왜의 관계망인 二大樞軸圈이 형성된 것이다. 이 관계망은 5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한성백제를 함락시키고 신라가 脫高句麗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변모하게 되고, 특히 신라가 백제 및 가야와 독자적인 동맹을 결성함에 따라 전환을 맞이한다. 하지만 남조-백제-가야-왜를 잇는 추축은 이후까지도 기본 골격이 강고하게 유지되었다.

복식으로서 장신구의 계보는 위에서 살펴 본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二大樞軸圈의 초기에 형성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관계망 내부에서 친연성을 드러내고자 중심세력이 확산시킨 의장이 부지불식간에 수혜를 받은 정치체의 고유의장이 되어버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해석은 금공장신구가 복식제도를 뒷받침하는 위계의 상징물로 활용되었다라고 보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고구려와 신라의 사례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中原高句麗碑에는 “고구려의 태자가 신라의 마립간과 그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sup>14)</sup>. 이 기록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부상한 고구려가 주변국을 속국으로 인식하고 복

13) 내물마립간이 衛頭를 前秦王 苻堅에게 보내어 외교를 맺었는데, 이때 전진왕 부견과 신라사신 위두가 과거와 달라진 한반도의 상황을 문답하였다. 그 내용이 고대국가 신라의 성립을 의미한다. (왕이) 위두를 보내어 (고구려 사절을 따라) 부진[전진]에 들어가 방물을 전하므로, 부견이 위두에게 물기를 “그대의 말에 해동의 형편이 옛날과 같지 않다고 하니 무엇을 말함이나” 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는 마치 중국의 시대변혁·명호개역과 같은 것이니, 지금이 어찌 예와 같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였다(遣衛頭入苻秦, 貢方物, 苻堅問衛頭曰, 卿言海東之事, 與古不同, 何耶, 答曰, 亦猶中國時代變革名號改易, 今焉得同[『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 제3 내물왕조]).’

14) 매금[마립간]의 의복을 하사하였다. …(중략)… 제위에게 교하고 상하의 의복을 하사하였다. (賜寐錦之衣服…(중략)…教諸位賜上下衣服)

식을 하사함으로써 맹주로서의 세계관을 실현하고자 하였음을 알려 준다. 이를 통해 신라 마립간시기의 복식이 고구려의 것을 따랐음을 엿볼 수 있으며, 적석목곽분에서 발굴된 복식류가 고구려의 고분벽화의 것과 닮은 이유도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금공장신구가 삼국시대에 들어와 확산되고 정착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고대사회는 중국 한대 이래로 중원세력과의 접촉을 통해 책봉체제에 따른 인수의책을 경험하였는데, 인수의책은 중원세력이 사여한 착장형 위세품으로 해석된다. 4세기대 고구려에 의해 주도된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는 군현을 매개로 한 중국적 책봉체제의 해체 혹은 변형을 당연히 유도하였다. 고구려의 세계관은 금공장신구가 포함된 복식을 주변국들에게 사여하는 것으로 실현되었고, 백제도 이에 대응하는 복식의 사여체계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내적 통합력을 확보한 신라와 가야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전 시기와 다른 복식으로서 착장형 위세품을 받아들였고,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도 이를 차용한 복식의 사여체계를 만들어 갔다. 착장형 위세품은 각 정치체가 지방을 간접지배한 부체제 단계에 확산되었으며, 직접지배를 실현한 집권국가 단계 이후에는 점차 縮約되었다. 따라서 삼국시대 금공장신구는 중국군현의 축출 이후에 변화된 정세와 정치체의 성장에 대응하고자 구축한 위계체계의 상징물로 확산되었으며, 삼한 단계에 경험하였던 인수의책의 변형을 통해 정착된 것으로 판단한다.

〈參考文獻〉

- 金元龍, 1971 「湖巖所藏 傳 高靈出土 金冠에 대하여」『美術資料』 15
- 朴普鉉, 2006 「百濟의 冠帽와 飾履」『한성에서 웅진으로』
- 李漢祥, 2004 『황금의 나라 신라』김영사
- , 2006 「新羅와 百濟 帽冠의 比較」『』
- 李浩官, 1981 「高句麗 工藝—金銅透刻冠을 中心하여—」『考古美術』 150
- 李 勳, 2006 「공주 수춘리 백제금동관의 고고학적 성격」『』
- 崔孟植, 1998 「陵山里 百濟古墳 出土 裝身具에 관한 一考」『百濟文化』 27
- 咸舜燮, 1995 「大邱 飛山洞37號墳 2石室 出土 冠」『古代研究』 4
- , 1997 「小倉Collection 金製帶冠의 製作技法과 그 系統」『古代研究』 5
- , 1999 「考古資料를 통해 본 우리나라 古代의 冠」『三國時代 裝身具와 社會相』  
제3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학술발표대회  
[이 論文을 部分修正하여 論文集에 發表：2001  
「古代 冠의 分類體系에 대한 考察」『古代研究』 8]
- , 2000 「新羅 樹枝形帶冠의 退化型式 設定—東垣先生 寄贈品을 중심으로—」  
『東垣學術論文集』 3,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 2002 「신라와 가야의 冠에 대한 序說」  
『大加耶와 周邊諸國』高靈郡 · 韓國上古史學會
- , 2007 『國立慶州博物館 名品百選』
- L.I. 아리바움, 1980 『古代サマルカンド의 壁畫』
- 早乙女雅博, 1982 「新羅·加耶의 冠—小倉コレクション의 研究(一)—」  
『MUSEUM』 372, 東京國立博物館美術誌
- 西山要一, 1981 「福井縣上中町十善의 森古墳出土의 金銅製冠帽—  
その保存處理と復原—」『古代 研究』 22



Part. 4

---

〈문화기행〉  
삼국유사 속 가야와 신라,  
길 위에서 만나다

이재호  
기행작가

---

\* 본 원고는 필자의 『삼국유사를 걷는 즐거움』에서 발췌하였음

## 1. 사라진 신비의 가야

가야하면 아련한 슬픔이 밀려오는 것은 왜일까? 비록 망했지만, 고구려는 용맹성과 영광으로 인해 연민의 정이 들지 않는다. 반면 가야는 여러 소국(6가야)으로 이어오다 소리 없이 사라진 저녁노을 같이 슬픈 여운이 맴돌기 때문일 것이다.

### 가야는 왜 잊힌 슬픈 나라가 되었는가

가야라는 국가 명칭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다. 부다가야의 가야부터, 고대 드라비다어로 물고기를 가라(가락)라 하는데 이것이 발전되어 가야라 했다는 설까지. 김해의 옛 국명이 가락에서 ‘ㄱ’이 탈락해 ‘가라’가 되었고, 다시 ‘ㄹ’이 탈락해 ‘가야’로 변했다고도 한다. 그래서 가락을 가야, 가라라고도 한다. 가야의 한자를 조선시대에는 사람 인변(亻)을 더하여 가야라 했다. 가(加)자가 석가모니의 가(加)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수도가 되려면 물의 흐르는 강이 필수적이다. 가야의 여러 연맹체는 낙동강을 끼고 발전했다. 이 낙동강은 가락의 동쪽을 흐르는 강이다. 강은 고대 최상의 교통로였다. 김해는 낙동강을 기준으로 바다로 나갈 수 있어 왜와 백제 등과 국제무역을 하고 내륙의 여러 가야와 수월하게 교류할 수 있었다.

금관국(김해)은 글자 그대로 ‘쇠를 관장하는 나라’인데 고대국가에서 철은 지금의 핵무기보다 더 큰 위용을 발휘했다. 청동기로는 제사장이나 지배자들이 권위와 위엄은 부릴 수 있었지만 먹고사는 문



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즉 농경사회에서 돌보다도 단단하지 않은 청동으로는 농기구를 쓸 수도 없었다. 하지만 철은 달랐다. 전쟁에서는 칼, 창, 갑옷 등의 무기가 되어 엄청난 위용을 발휘했고, 농사에서는 도끼, 괭이, 낫 등의 농기구로 사용되어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미약했던 신라가 강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경주 인근 울산의 달천철광 때문이듯 가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경남 곳곳의 철 생산지에서 제련해낸 철로 중계무역까지 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야가 왜 이슬처럼 사라졌을까? 내부적으로는 여러 소국으로 분산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형성되지 못하는 바람에 전쟁 시 강력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 대외적으로는 외교의 실패를 들 수 있다. 흔히 전쟁과 외교에서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듯이 힘의 역학관계를 알아야 한다. 가야는 백제와 가깝고 왜와는 아주 가까웠는데 김해 본가야 세력은 규슈의 왜 지역에 힘을 너무 많이 쏟았다. 이 규슈의 왜 왕국이 야마토[大和]정권에 패배했고, 그 뒤 야마토정권은 본가야보다 백제와 밀접하게 지냈다. 그래서 가야는 유사시 야마토정권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결정적으로 400년께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가야는 크게 휘청거린다. 554년 관산성 싸움에서 백제, 가야, 왜의 연합군은 신라에 대패했는데 특히 많은 군대를 잃은 가야는 멸망 직전에 몰렸다. 차차 신라에 복속되던 가야는 562년 마지막 남았던 고령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면서 멸망했다. 기원전 42년 김해를 중심으로 한때 강성했던 가야는 이로써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같은 시기에 영욕을 같이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삼국시대의 삼국으로 조명받았으나 가야는 서서히 잊혀졌다. 그것은 가야의 자기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사서와 『삼국사기』에 조금 언급되다 『삼국유사』에 「가락국기」(그나마 이것도 고려 문종 후반 김해 지방 장관이었던 김양감이 쓴 것이다)로 요약된 것이 전부였다. 근래 들어서 이 시기를 가야를 포함한 4국 시대로 조명하고 있다. 그래서 잊힌 가야를 신비의 나라, 비운의 나라라 하는 것이다.

### 미관이 남방의 으뜸이라

평소에 가야의 흔적을 찾을 때 가야의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함안의 말산리고분군(아라가야)이나 고령의 지산동고분군(대가야)을 좋아해 자주 찾는다. 대가야 마지막 월광태자의 흔적이 어려 있는 해인사 가는 길의 월광사도 곧잘 찾는다. 이런 곳은 옛 모습이 많이 남아 있지만 가장 강력했던 금관가야의 김해는 현재 기형적으로 변해버려 안타깝다.

하키야 김해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산의 위성도시가 되어 장점보다 단점만 뒤집어쓴 채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일 터. 부산 변두리의 공장지대는 주거지로 변하면서 온갖 공장들이 인근의 김해와 양산으로 몰렸다. 여기다 일부는 부산으로 편입되어버렸는데 그 모습은 그 옛날 강력했다가 이웃나라에 흡수된 가야의 운명을 닮았다.

김해박물관에 특강이 있어 김해터미널에 내리니 김해박물관 오상현 사회교육사가 마중 나와 있다. 그와 함께 수로왕릉으로 향했다. 예전보다는 단장이야 잘한다고 했지만 편안한 분위기는 달아나고 너무 경직되어 김해 김씨 제례참배용처럼 꾸며놓았다. 마치 경주오

릉(박혁거세왕릉)에서 박씨 문중이 제례를 모시는 분위기 같다. 그래도 오름이야 워낙 넓고 왕릉 주위를 막지 않아 분위기에 젖을 만 하지만 여기는 공간도 좁은데다 수로왕릉 주위를 울타리로 퐁퐁 둘러놔 답답했다.

다시 발길을 수로왕비릉으로 향했다. 정겨웠던 옛 김해가 생각났다. 별판이 많은 곳이라 좀 별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순수했던 김해였다. 급격한 도시화에 뒷길 정도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이 길은 진영을 넘어 마산으로 가는 국도였다.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간 수로왕릉의 분위기와 달리 왕비릉은 봄 햇살을 받으면서 수더분하게 산기슭에 누워서 길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역(인도) 아유타국 공주였던 허황옥이 바다 건너올 때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배에 싣고 왔던 파사석탑에 갔다. 붉은 빛을 머금은 돌이 말없이 허 왕후를 지키고 있었다. 옛 호계사(지금의 김해 불교 포교당)에 있던 것을 1873년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이번에는 찾길 위 구릉을 이어놓은 길을 따라 구지봉으로 갔다. 기원전 42년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로 싣 황금상자가 내려왔다는 구지봉이다. 금합 안에는 해처럼 둥근 황금알 여섯 개가 들어 있어 12일이 지나자 어린아이로 변했다. 다시 열흘 정도 지나자 성인이 되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이름을 수로 혹은 수릉, 나라를 대가락 또는 가락국이라 부르고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각 다섯 가야의 임금이었다.

예전에 용들이 여섯 알을 담고 있었던 조형물을 없어졌고 대신 하늘과 땅을 잇는다는 신단수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조금 아래 구지봉

고인들이 거북이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 위에 선조 때 명필 한호 석봉이 있다는 ‘구지봉석 龜旨峰石’의 미려한 글씨를 음미하면서 김해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예전의 꿈결같이 아름다웠던 김해는 어디 갔을까? 봄이면 초록 물결이 바람에 흔들렸고, 가을이면 황금 들녘이 일렁이던 김해는 온갖 국적불명의 건물이 대신하고 있었다. 푸른 물결이 끝없이 출렁이던 김해평야도 사라졌다.

조선 태종 때 영의정 하륜이 남긴 기록에서 김해의 옛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김해는 옛날 가락가야였다. 신라와 함께 일어나서 수로왕의 탄생이 참으로 기이하고, 그때 풍속이 아직 순박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진산에 올라 바라보는 미관이 남방이 으뜸이라...”

똥 세조 때 대제학을 지낸 서거정은 김해를 이렇게 노래했다. ‘금관 옛터 하늘땅도 지쳤는데/ 임금 수레 자취 끊겨 세월도 혼미/ 시조 룡 깊은 산은 지극한 고요...’

서거정의 노래에서 옛 김해를 떠올리며, 입학중 김해박물관장을 만나 잠시 대화하고 강의를 하러 박물관으로 내려갔다.

## 2. 만어사와 부처 그림자

경남 밀양은 주변에 큰 산과 깊은 골짜기, 넓은 벌판, 강까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곳이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곳인 셈이다. 삼랑진은 이곳을 지나는 낙동강과 밀양강이 합쳐진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신라와 가야의 국경이 맞닿은 곳에 있던 삼랑진을 차지하기 위해 두 나라가 얼마나 각축을 벌였을까?

삼랑진에 오려면 어느 방향에서 오더라도 산 넘고 물을 건너야 한다. 옛 사람들은 산이 가로 막으면 고개나 영을 넘었고, 물이 흐르면 배를 타고 갔는데 지금은 차를 위해 산을 자르고 비틀고 안 되면 구멍을 뚫고, 강에는 교각을 쪽쪽 세우고 상판을 얹어 씩씩 다리 길을 만든다.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거스르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삼랑진 만어사에 가려면 양산, 부산에서 원동으로 가는 것이 빠르고 쉽지만 행정구역대로 밀양으로 갔다. 언양, 석남사를 지나 가지산을 굽이굽이 돌아 터널을 지나자 밀양 얼음골이 나타났다. 허튼식 흙돌담이 매력적인 산외면 다원 마을을 샅샅이 답사하고 밀양시 외버스터미널에 내렸다.

나는 그윽한 산세에 수많은 사원과 문화유적까지 풍부한 밀양을 참 좋아했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밀양 사람들은 한결같이 <밀양아리랑> 구절의 노랫말처럼 강했다. 임진왜란 때 승병장 사명대사, 영남학파의 종장 김종직 등을 떠올리면 알 수 있다.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되 본성을 잃지 않고 승화시켜 잔잔한 감동을 전한 신영복 교수도 밀양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밀양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30년 전 홀로 나그네 되어 아랑의 슬픈 전설이 내려오는 영남루에 기대어 남청강 푸른 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상에 젖었던가. 그 뒤로는 수많은 답사객들과 함께 이곳을 찾으며 얼마나 가슴 뜨겁게 열정을 바쳤는 지 모른다. 그래서 밀양은 내게 아련한 추억이 서린 곳이다. 그런데 간만에 찾은 밀양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

다. 급격히 변해버린 어지럽고 정리 안 된 밀양은 숨막혔다.

다행히 삼랑진에는 좁은 옛길도 남아 있었고, 간간히 옛 건물이 서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만어사 가는 길에 접어들자 곳곳한 초록의 산야에 우리의 농촌 분위기가 되살아나 밀양 시내에서 느낀 답답함이 일시에 풀렸다. 차창 속으로 상큼한 밤꽃 냄새가 짙게 풍겨왔다.

### 용과 물고기 그리고 부처의 그림자

만어사 가는 길은 아름다웠다. 산에 오를수록 검은 바위들이 예사롭지 않았고 산모퉁이를 돌자 예쁘고 좁은 산길이 한없이 유혹하여 나도 모르게 빨려들었다. 차에서 내려 걸었다. 길옆엔 싸리 꽃이 반겼고 까마귀, 뺨꾸기들이 산골의 적막을 깨고 맑은 영혼을 노래하고 있었다. 붉은 산딸기, 까만 오디도 빨리 따먹으라고 눈길을 보내기에 먹어보니 맛이 일품이었다.

만어사 밑은 아담한 옛 마을이었지만 사람떠난 빈 집터엔 흙돌담장만 온갖 사연을 품고 있었다. 삶이 고단했더라도 구수한 된장과 잘 익은 김치 한 입이 잠깐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었으리라.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 장승에다 닭백숙 집들만 있다.

산길로 올라서자 기다리고 있던 만어사가 눈앞에 펼쳐졌다. 수없이 물려 있는 바위 떼의 너털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어디서 왔는지 귀여운 다람쥐가 나를 반긴다. 크기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한 온갖 돌들은 묵묵히 서 있는데, 우리들은 기껏 밟고 올라타 낙서만 남기고 떠난다. 무슨 까닭으로 주지 김지한의 공덕비는 쓰러져 발길에 차이고 있을까.

나는 검은 바위 떼 위를 이리저리 수없이 걸어다녔다. 바위를 가로 지르는 돌길은 반질반질했고 노란 꽃들이 바람에 떨리고 있었다.

돌계단을 올랐다. 대웅전, 칠성각 앞에는 신라 석탑 형식을 취한 작고 아담한 고려시대 3층 석탑이 있는데 그 석탑은 대웅전보다 더 큰 요사체에 짓눌려 맥도 못 추는 듯해 더욱 애잔했다. 대웅전과 칠성각 사이의 바위에서 떨어지는 석간수 한 바가지를 시원하게 다 마셨다. 거대한 미륵바위를 모셔놓은 용화전으로 갔다. 대단한 미적 감각으로 형상화 해놓은 현대적 미감의 달마 조각 같았다.

전설에 의하면 용왕의 아들이 인연이 다해 낙동강 건너 무척산의 신승을 찾아가서 새로 살 곳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가다가 멈추는 것이 인연터 '라는 법문을 들었다. 용왕의 아들이 길을 떠나니 수많은 물고기들은 돌로 굳어버렸다. 아들 못 낳는 사람들이 이 미륵바위를 찾아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다. 밀양 무안의 사명대사 비석이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땀을 흘렸듯이 이 미륵불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갑오농민전쟁, 한일합방 때 오른쪽 부분에서 땀이 비오듯 흘렸다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이 어산(만어산)의 부처 그림자 이야기가 길게 나온다. 가야 땅 어느 옥지에 사는 독룡과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녀 다섯 명이 서로 사귀면서 번개 치고 비가 내려 4년이 지나도록 오곡이 영글지 않았다. 왕은 주술로 막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부처님께 청하여 설법을 한 후에야 나찰녀가 오계를 받아 이후로는 폐해가 없게 되자 동해의 용과 물고기가 바위로 변해 골짜기에 가득 찼는데 각기 쇠북과 경쇠소리가 났다고 한다.

또 『삼국유사』에 만어사는 1180년에 세워졌는데, 기이한 부처 이야기 나온다. 첫째 독룡이 살고, 둘째 강가에서 구름 기운이 나와 산봉우리에 와 닿는데 구름 속에서 음악소리가 난다. 셋째 부처 그림자 서북쪽에 반석이 있어 언제나 물이 고여 있는데 이곳은 부처가 가사를 빨던 곳이라 했다.

그리고는 일연 스님이 직접 여기 와서 살펴보니 “분명히 공경하여 믿을 만한 두 가지가 있다면서 골짜기 바위 3분의 2가 모두 금과 옥의 소리를 내는 것과 멀리서 바라보면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보이지 않아 어떤 때는 보이고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다.

후에 독기 품은 용이 뉘우치고 부처를 공양하려 했으나 부처는 “나는 입적(죽음)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위해 내 그림자를 남겨두겠다. 독한 마음이 생기면 내 그림자를 보면 사라질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나도 일연 스님의 느낌대로 손으로 돌을 두들기기도 하고 단소로도 살짝 두들겨보았다. 울림은 서로 달랐으나 내 마음 느끼는 대로 소리는 울릴 뿐이었다. 세종 때 이 돌로 악기를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음정이 맞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한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 우리 모두 지치고 고통스러우면 만어사에 와서 돌 소리에 마음을 씻고 부처의 그림자에 영혼을 맑게 해보는 건 어떨까.







Part. 5

---

**유물·유적을 통해서 본  
가야의 도교문화**

김길식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



## 1. 머리말

도교는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 등과 같은 전통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노장사상을 계승·발전시켜 無爲自然의 삶을 추구하는 도가사상, 여기에 유교와 불교사상 등이 결합되어 탄생한 중국 고유의 종교로서, 聖人の 길이자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道를 연마함으로써 不老長生, 羽化登仙을 추구하는 現世祈福 종교이다. 즉 福·祿·壽를 이상향으로 한 삶의 가치를 영원히 누리하고자 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 삶의 가치는 영원한 삶, 즉 불로장생할 때에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죽음에서 벗어나고,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였다. 죽음을 초월한 인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신선이 되고자 하는 연원, 즉 신선사상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생겨났으며, 급기야는 인간도 심신의 수련을 통해서 누구나 신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도를 갈고 닦아 인간의 理想像을 추구하는 노자철학, 끊임없는 불로장생 방법을 모색하는 도교의학을 바탕으로 하여 윤리적인 생활자세 등을 배우고 익혀서 신선이 되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였으며, 나중에는 현세기복에 안주한 나머지 來世에 맹점이 있는 도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엄격한 유교의식, 불교의 내세관과 인과응보·윤회사상 등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중국에서 도교는 2세기초에 출현한 太平道와 그보다 약간 늦게 태동한 五斗米道가 성립되면서 본격적인 종교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여 4세기 동진대에 葛洪이 쓴『抱朴子』와 같은 도교교리가 확립되고, 5세기초에 佛敎儀禮와 齋醮 등을 받아들인 寇謙之의 新天師道의 성립과 함께

도교 사원인 道觀이 생기고 수도승과 비구니에 비견되는 道士와 女冠과 같은 도교 직제도 생겨나는 등 이때부터 도교라는 명칭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던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과 같은 현세기복적인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易이나 八卦, 陰陽五行, 讖緯, 占星·占卜術 등을 흡수·통합해 가면서 하나의 종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도교에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當代에 유행하던 신앙과 사상들이 끊임 없이 수용되어 매우 복잡다기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중국 고대의 도교는 같은 문화권인 한국이나 일본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통일신라시대 이전의 한국 고대 도교 관련 기록이나 고고학 자료에도 이와 같은 복잡다기한 신앙과 사상, 철학들이 깊이 내재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서도 방증된다.

이와 같이 복잡다기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한국 고대 도교문화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각종 도교신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道教科儀의 흔적, 즉 고고학적 흔적을 통하여 그 편린을 찾을 수 있다. 도교에는 元始天尊이나 玉皇上帝와 같은 원초적인 신에서부터 關羽나 정화와 같은 전설적인 영웅, 좌자, 동방삭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선, 황제나 신농과 같은 신화상의 신, 용왕이나 뇌신과 같은 자연숭배 대상, 손오공과 같은 이야기나 소설의 주인공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다채로운 신들이 존재한다. 또 이와 같이 다양한 신앙 대상이나 신앙 목적에 따라 믿는 방법이나 의례 방법과 절차 등이 차이가 있어 이를 일별하여 유형화하기도 어렵다.

한국 고대 유적·유물을 통하여 도교문화적 요소를 변별해 내기란 쉬

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도교문화에는 전통신앙은 물론 당대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사상이나 유교와 불교 사상 등 무형의 정신문화가 복잡다기하게 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야의 경우 고구려나 백제, 신라에 비해 도교 관련 기록이나 자료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지금까지 가야도교 또는 가야도교문화라는 말을 사용하기조차 무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굴 조사된 가야 유적·유물에 나타나는 도교문화적 요소를 최대한 추출하여 그 의미와 거기에 내재된 사상을 음미해 보는 것도 가야 도교문화의 존재형태가 어떠한지, 가야 도교문화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 태동하기 시작하여 어떻게 점철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종래 가야를 포함한 삼국의 도교문화가 문헌을 중심으로 이해하였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시기에 따라 매우 다양한 사상들이 습합되면서 우리 고유의 도교문화로 정착되어 온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야 성립 이전의 진변한 단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도교관련 유적·유물을 변별하여 그것들이 지닌 도교적 의미를 하나하나 검토해 보고, 가야 도교문화의 전개과정에 어떠한 특징들이 발현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가야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가야 이전의 전통신앙·사상과 관련유물

### 1) 낙랑 도교문화의 진변한 사회 영향과 수용

도교는 도교 성립 이전부터 있어 왔던 전통적인 샤머니즘과 같은

민간 신앙을 비롯하여 도가사상, 역학, 음양오행사상, 堪輿, 讖緯, 점성·점복술 등의 여러 가지 사상을 받아들여 성립된 종교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도교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이러한 신앙·사상과 관련된 자료들도 도교문화의 범주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일찍부터 유행한 이러한 제 신앙과 사상들은 한반도 서북한 지역에 존치되었던 낙랑군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낙랑토성이나 낙랑고분에서 출토되는 많은 유물 가운데 도교 또는 도교와 관련되는 사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유물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낙랑의 유적·유물 가운데 삼한사회에 영향을 미친 도교 관련 유물을 변별하여 낙랑으로부터 가야 이전의 진변한 사회에 전해진 도교문화적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가야 도교문화 성립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낙랑토성지 등에서 출토된 수막새 기와와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각종 칠기, 청동기, 동경, 직물 등의 유물에는 구름을 본떠 만든 중국 전국시대 이래 유행한 운기문이 문양 기초를 이룬다. 운기문의 구름은 대기 중에 생겨나는 자연현상으로 형태가 일정치 않고 변화무쌍하여 고대인들은 그 모양과 색, 생겨나는 시각 등으로 길흉을 판단해왔다. 瑞鳥나 靈獸가 나는 형상을 ‘瑞雲’이라고 하고,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구름이 나타날 때는 異變의 징조로 하여 ‘怪雲’이라 했다. 처음에는 공중에 충만해 있는 氣를 C자형, S자형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했으며, 漢代에는 이들이 연속되어 표현되어, 흐르는 구름무늬가 되었다. 특히 한대에는 구름의 이와 같은 변화

무쌍한 多變性이 하늘의 뜻과 음양오행에 부합하는 징조를 잘 보여 준다고 생각했다. 또한 구름의 기운, 즉 氣가 충만하여 만물이 소생한다는 우주관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龍이나 새 혹은 전설상의 瑞獸와 운기문이 결합된 형상으로 많이 표현되었는데, 이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이상세계, 즉 신선세계가 지향하는 신비로운 천상세계로 인식되었다. 진변한 지역 출토 유물 중 이와 같은 운기문이 표현된 유물로는 원삼국시대 후기의 철제2연식재갈이나 꺾수문장식 장신철모, 유자이기, 조문청동기 등이 있다.

한편 낙랑고분에서는 피장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재질과 형태를 가진 인장도 다수 출토되었다. 인장 중에는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永壽康寧’ 銘 龜紐玉印을 비롯하여 장수의 상징인 龜紐玉印·銅印·石印 등이 다수 출토되어 장수를 갈망하는 도가 또는 신선사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장은 원래 무사와 방사들이 사용했던 秘印으로서 도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도교에서는 인장을 神印 또는 印篆이라 하여 천상세계에 있는 신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永壽康寧銘 인장은 황색의 龜紐玉印으로<sup>1)</sup> 건강한 永壽를 바라며 피장자가 생시에 사용했던 인장을 무덤 속에 넣어 줌으로써 사후에도 登仙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바랐던 것이다. 원삼국시대 진변한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인장이 유구에서 발굴된 것은 아니지만, 영일

1) 『포박자』내편, 「등섭」에 의하면 고대 무사와 방사들이 사용한 ‘黃神越章之印’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황색의 옥인도 도가적 길상구와 함께 무사와 방사들이 사용한 인장 전통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광면과 상주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위솔선한백장’ ‘위솔선예백장’ 명 龜紐石印 등으로 보아 삼한의 진변한에도 낙랑으로부터 전해진 이와 같은 인장과 인장에 투영된 사상적 의미를 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낙랑토성과 낙랑고분과 낙랑토성에서는 반량전·오수전·화천·대전오십 등의 한대 화폐도 많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화폐들은 한의 군현인 낙랑군에도 중원의 화폐가 통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지만, 그것이 무덤에 부장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내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전이 圓形에 方郭의 형태를 표현한 것 자체가 天圓地方의 음양사상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통용되던 화폐를 무덤 속에 넣어 주는 행위 그 자체는 무덤터를 토지신으로부터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덤터를 지하세계의 주인인 后土神에게서 사는 의식은 삼국시대 백제의 자료이지만 무령왕릉 매지권과 철제오수전을 통해서 도교적 상징의례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낙랑 고분에서 이와 같은 화폐들이 도교에서 중요한 법기로 사용되는 동경과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은 점도 당시 화폐가 도교적 상징의식에 사용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진변한 지역에서도 패총이나 주거지 등 생활유적 뿐만 아니라 창원 다호리 1호묘, 경산 임당유적 등에서 오수전 등 한 대 화폐가 한경과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을 보면 낙랑으로부터 이러한 도교적 상징의례가 전해져 지배층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법기로 사용되는 銅鏡은 낙랑고분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도교 관련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거울은 道教科儀에서 法術을 행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法器 중의 하나로서,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국 한대 이후 거울에 현세기복과 불로장생, 천상세계로의 승선 등을 기원하는 문구와 문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거울이 중요한 법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낙랑고분에 부장된 거울은 화장도구들과 함께 보관상자인 漆鏡奩에 담겨서 출토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화장도구로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울 뒷면의 문양과 문구들로 보아 도교적 術力이 강한 靈器였음을 알 수 있다. 낙랑고분에서 성운문경·소명경·일광경·방격규구사신경, 연호문경·수대경·반룡경 등의 전한·후한대의 다양한 동경이 다량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도교적 관념이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원전 1세기부터 제작된 성운문경은 돌출된 꼭지를 곡선으로 연결시켜 星座圖形을 표현하였으며, 소명경과 일광경은 圓形紐座를 중심으로 연호문이 돌아가고, 그 주위에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의미의 명문대가 배치되어 있다. 낙랑 고분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방격규구사신경은 방격 안에 12干支를, 周緣 안쪽에는 길상구를 새겼으며 方格 외곽에는 방위에 따라 4마리의 四神과 4마리의 神獸를 표현한 것들이 많다. 정백리 127호분, 정백리 2호분<sup>2)</sup>, 석암리 194호분<sup>3)</sup> 출토 방격규구사신경

3) 尙方佳鏡四神鏡(尙方佳鏡真大好 上有仙人不知老 渴飲玉泉飢食棗 浮游天下敖四海 徘徊名山采神草 壽如金石國之保)

2) 靑蓋作方格規矩四神鏡(靑蓋作竟大毋傷 巧工刻之成文章 左龍右虎辟不羊 朱鳥玄武脚窰場 子孫備具居中央 長保二親樂富昌 壽蔽金石如侯王)

에 이러한 문양과 길상구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 거울들에 나타나는 左龍·右虎·朱鳥·玄武의 사신과 명문은 사신사상과 오행사상을 담고 있으며, 仙人, 玉泉, 食棗, 神草, 不化老, 壽長 등은 모두 도가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후한대에 가장 유행한 連弧文鏡과 獸帶鏡 역시 석암리 218호분과 석암리 20호분 출토 동경처럼 圓扉紐座 바깥으로 사신을 배치하고, 사신 문양 주연을 따라 ‘長宜子孫’ ‘壽如金石’ 등의 도교적 길상명문이 새겨져 있는 것들이 많다. 후한 중기 이후부터 삼국·서진대에 유행한 신수경은 東王父·西王母 등의 神仙像과 龍·虎 등의 서수(사신)를 부조식으로 표현하고, 주연의 명문대에는 ‘福祿神明’ ‘富貴安寧’ ‘子孫繁昌’ ‘賢者高德’ ‘士至公卿’ ‘見師命長’ ‘仙人’ ‘玉泉’ ‘食棗’ ‘不化老’ ‘東王父’ ‘西王母’ 등의 신선사상과 도가사상이 반영된 명문이 새겨져 있다. 후한대에 출현하여 위진대에 유행한 기봉경이나 동한대에 유행한 반룡경 역시 도교적 길상구가 새겨진 것들이 많은데, 석암리 218호분 출토 기봉경에는 ‘位至三公’ ‘君宜高官’ ‘長宜子孫’ 등의 지극히 현세기복적인 길상구들이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이 도교사상의 바탕이 된 도가와 사신사상을 중심으로 오행사상까지 반영된 동경이 낙랑사회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낙랑사회는 中原에 못지않게 도가와 신선사상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변한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한경들이 낙랑으로부터 상당량 유입되어 중요한 도교 법기로 사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원삼국시대 전·후기 목관묘와 목곽묘에서 출토되는 다양하고 제법 많은 수의 한경 자료는 진변한 사회에서도 낙랑으로부터 한경을 매개로 한 도교 과의가 행해지고 있었으며, 동경

에 표현된 여러 가지 사상적 의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적·유물을 통하여 낙랑사회에는 음양오행사상과 사신사상, 신선사상, 도가사상 등 도교의 바탕이 되었던 제사상들이 널리 유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낙랑토성 건물에 사용된 각종 길상명문이 새겨진 와당을 통해서 도교 또는 도가사상이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體現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樂浪禮官’ 명 와당과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도사 형상의 木俑을 통하여 도교과의 시설까지 갖추어지고, 도사와 같은 도교의식을 수행하는 專門職人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무덤 축조와 상장의례에도 도교적 의식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낙랑사회에서 유행한 도교 또는 도가사상은 원삼국시대의 삼한사회를 거쳐 고구려·백제·신라·가야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도교 또는 도교사상의 기반이 되었던 제사상이 반영된 유물이 낙랑으로부터 전해졌거나, 그 영향을 받아 재지화되어 나타나는 진변한 사회의 고고학 자료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그것은 다음의 삼국의 가야 고고학 자료에 나타나는 도교문화를 이해하는데 바탕이 될 것이다.

## 2) 진변한 사회의 도교 관련 유적·유물과 도교문화

원삼국시대 진한·변한 사회에 낙랑의 제 문화요소가 미친 영향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음은 진변한 지역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낙랑관련 문물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낙랑사회의 도교문화 요소들이 진변한 사회에 언제, 어떤 형태로 나

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가야 사회에 도교문화가 수용되어 전개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삼한사회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도교문화 요소는 기원전 2세기말 ~1세기의 광주 신창동 저습지유적과 창원 다호리유적을 비롯한 원삼국시대 전기의 木棺墓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통하여 그 흔적들을 더듬어볼 수 있다.

광주 신창동 유적은 진변한 지역은 아니지만, 원삼국시대 전기에 영호남지역 고고학 자료에 공통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차이점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변한 지역도 이와 유사한 도교적 과의와 관련된 고고학 자료가 출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참고가 된다. 신창동 저습지에서는 木劍과 태극문 漆圓板, 弦琴 등 도교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목검은 도교의식에서 도사가 예를 올리고 신명에게 아뢴 때 사용하는 법기로서, 목검을 심장부위에 받쳐 들고 경건한 마음과 天地感應을 표한다. 태극문 흑칠 원판은 거울을 형상화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으나 바람개비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 태극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태극은 음양사상과 결합하여 만물을 생성시키는 근원으로서 도교의 기초가 되었던 역학의 중심사상이다. 주역에 의하면 태극에서 음양이 생성되고, 음양에서 四象이 생성되며, 사상에서 팔괘가 생성된다는 우주 생성론으로 음양을 상징하는 태극을 중심으로 건·곤·감·리·진·손·간·태 팔괘가 둘러싼 형태로 표현된다. 팔괘 역시 음과 양의 線이 조합된 형태이다. 팔괘의 매 卦는 三爻로 구성되어 있는 3효괘와 六爻로 구성되어 있는 6효괘가 있는데, 6효괘는 8개의

경괘가 둘씩 만나 64괘가 되었다. 64괘는 종전의 8괘가 주로 하늘에 점치던 것에서 각종吉凶을 점치는 데까지 기능이 확대되었다. 신창동 유적의 태극무늬 칠원판도 마한사회의 占卜術에 역학의 태극원리가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창동유적에서는 상기의 목검과 태극무늬 칠원판과 함께 12현금이 출토된 점이 주목된다. 12현금은 목검과 태극 흑칠판과 관련된 의식을 행할 때 연주하던 악기였을 것이다. 음악은 의식을 성스러운 분위기로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천상세계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도교 의식에서도 음악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필수적으로 연주되었다. 仙歌를 부르거나 경전을 암송할 때, 齋醮를 행할 때 여러 가지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게 된다. 신창동의 12현금 역시 의식 도구인 목검과 태극문 흑칠원판과 함께 출토된 점에서 이러한 의식을 행할 때 연주하던 악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백제 금동대향로의 뚜껑에 5악사가 연주하는 악기 중에 이러한 현금이 표현되어 있고, 신라 토우에도 많이 표현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현금이 도교 의식에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신창동유적과 같은 시기의 진변한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도교문화 요소들이 확인된다. 기원전 1세기의 창원 다호리·밀양 교동·김해 가야의 숲·성주 예산동·경주 조양동분묘군, 영천 어은동·대구 평리동·비산동유적 등에서 낙랑에서 도교 의식에 사용된 법기인 중국 한경·동탁(중) 등과 함께 오수전·화천 등의 동전, 현금, 부채 등이 다수 출토되어 낙랑의 도교문화가 진·변한사회로

영향을 미쳤으며 진변한 사회에서는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여 재지화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호리 1호묘에서는 성운문경·소동탁·오수전·부채 등의 도교 관련 유물들이 함께 출토되었다. 성운문경은 星座圖 문양이 있는 거울로 낙랑사회에서 도교적 법기로 사용되었음을 볼 때 그 영향이 삼한사회에 그대로 전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도교에서 거울과 함께 중요한 法器로 사용된 종(탁)이 출토된 점이 주목된다. 종(탁)은 고대 악기의 일종으로 도교 초기의 신선전설에서 傳奇的 색체를 띠는 법기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사람과 신령이 감응하는 도구, 즉 종소리를 통하여 신을 불러들이는 법기로 사용되었다. 다호리 1호묘에서 거울과 종(탁)이 함께 출토된 것은 다호리 1호묘 피장자가 이와 같은 의식의 주재자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다호리 1호묘와 거의 같은 시기로 편년되는 경주 조양동 5호묘에서도 거울과 종(탁)이 함께 출토되어 당시 삼한사회에서 도교의식에서 거울과 종(탁)이 중요한 법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양동 5호묘의 거울은 한경을 모방하여 현지에서 제작한 방제경으로, 이제 도교적 법기인 동경의 의미를 투영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한 단계, 즉 도교의식과 법기의 자체적 변용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낙랑으로부터 한대 거울이 유입되어 분묘에 부장된 예는 이외에도 밀양 교동 3호묘·김해 양동리분묘군 등 많은 예가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 동경 중에는 조양동 38호묘·영천 어은동·대구 지산동유적 등에서 출토된 ‘見日之下天下大明’과 같은 길상명문이 새겨진 일광경과 김해 양동리·내덕리 19호분·대성동

23호분 등에서 출토된 방격구구사신경 등 도교적 길상명문이 있는 한경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낙랑사회에 유행하던 도교 또는 도가 사상이 삼한사회에도 유입되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2세기 중후엽으로 편년되는 양동리 162호 목곽묘에서는 후한대의 連弧文鏡과 함께 방격구구경을 모방한 방제경도 2점 출토되어 원삼국시대 전기 이래 거울의 방제를 통한 재지적 도교의식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대 화폐인 오수전, 화천 등의 동전들도 원삼국시대 유적에서 종종 출토된다. 대개 서남해안과 도서지역의 패총이나 주거지 등의 생활유적에서 많이 출토되지만, 창원 다호리 1호묘(3점), 경산 임당유적(2점) 등의 분묘(목관묘)에서 출토되는 경우도 다수 알려져 있다. 다호리 1호묘의 경우 묘광 바닥의 요갱에서 많은 철기·청동기·성운경·동탁·등과 함께 대바구니에 담겨서 출토되었다. 요갱은 원삼국시대 통나무 목관묘에서 주로 나타나는 시설로서 묘광을 판 후, 화폐와 劍·鏡·鈴·錢이 포함된 중요기물을 땅에 묻어주는 의례시설이다. 이 요갱 제의는 그 절차상 묘지나 피장자를 지켜주는 后土神에 대한 제의로서, 供物을 바쳐서 후토신을 진정시킨다거나, 돈(동전)이나 중요기물으로써 대금을 지불하고 묘지를 산다는, 일종의 買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무덤을 조성할 때 땅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묻는 地鎮具의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갱과 그 매납유물은 묘광 바닥 중앙에 둥근 수혈을 파고, 화폐를 비롯한 중요 기물을 담은 바구니나 용기를 집어 넣는 행위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곧 陰을 상징하는 땅



속에 氣가 응집되는 수혈을 파서 穴자리를 생성한 다음, 여기에 陽을 상징하는 지진구(용기)를 매납함으로써 음양을 조화시켜 氣의 흐름이 활발해지도록 하는 의식인 것이다. 요갱 제의가 위 3가지 중 어느 것을 목적으로 한 제의 시설이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3가지 중 어느 것이라도 도교 또는 도교와 관련된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교 관련 제의시설로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원삼국시대 분묘에서 출토되는 화폐와, 화폐를 비롯한 중요기물이 매납된 요갱시설은 음양설을 바탕으로 땅에 대한 이치를 설명하고, 이를 사람의 운명과 결부시키는 풍수사상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양오행과 풍수사상은 도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사상들이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한편 김해 가야의 숲 유적 목관묘와 경산 임당유적, 대구 팔달동 유적 등 원삼국시대 전기의 지배자급 목관묘에서는 광주 신창동 저습지 출토품과 같은 현금과 부채가 종종 출토된다. 그리고 이들 분묘들에서는 요갱시설이 있고, 한경을 비롯한 도교적 범기와 도교적 상징의례와 관련이 있는 한 대 동전 등이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요갱시설과 한경, 동전, 현악기 등이 갖는 도교적 의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부채는 피장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채 출토되는데, 안악 3호분, 덕흥리 벽화고분 등의 묘주 인물상의 부채와 대비해 보면 가슴에 받쳐 든 모습으로 부장되었을 것이다. 원삼국시대 전기 목관묘 출토 부채는 고구려 고분벽화 자료를 통하여 유추되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서 지배자의 신분 상징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와 더불어 새의 깃털로 만들어진 부채를 부장하는

의식이 곧 死者의 영혼을 천상세계로 실어 나름으로써, 우화등선시 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가야 사회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오리형토기가 지배층의 분묘에 많이 부장된 예 역시 원삼국시대의 새가 지닌 이러한 의미와 이를 통한 우화등선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한편 다호리 1호묘 옆의 4호와 34호 목관묘에서는 피장자의 머리맡에서 다량의 운모가 출토되었다. 도교 경전인 갈홍의『포박자』와 도홍경의『본초경집주』에 의하면 운모는 심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上藥으로,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수명을 늘려 仙人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仙藥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호리 출토 운모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운모가 신선사상에 바탕을 둔 도교의학의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다호리 1호묘에서 도교 관련 법기들이 출토되고 도교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買地 또는 음양사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결부시켜 보면 운모가 도교의학의 선약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당시 진변한 사회에서 도교의학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몇몇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진변한 사회의 도교문화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진변한 사회에서는 적어도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도교의 바탕이 되었던 신선사상과 음양오행사상, 태극사상, 買地和 후토신 제의 등이 수용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며, 도교 의식에 사용되는 중요법기인 刀劍·鏡·鈴 등을 사용한 의식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진변한 지역은 아니지만 마한의 신

창동 유적을 통해서 보면 기원전 1세기경 낙랑으로부터 이러한 도교문화가 유입됨과 거의 동시에 이를 변용한 재지적인 의식도 행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유적의 경우에는 전부 낙랑으로부터 유입된 중국 유물 일색인 점으로 보아 아직 삼한사회 전체에 재지적 도교문화가 확립된 단계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원삼국시대 후기로 넘어 가면서는 가장 중요한 범기인 거울이 방제경으로 많이 제작되고, 도검과 鈔는 거의 대부분 재지에서 제작된 것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재지화가 진행된 도교문화가 진변한 사회에도 퍼져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 3. 가야의 도교관련 유적·유물과 도교문화

가야의 도교 관련 기록은 전무하다. 그렇다고 가야에서 도교에 접하지 못했거나 도교사상을 이해하지 못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적·유물에 도교적 요소의 편린들이 다수 확인되기 때문이다.

가야에서 도교적 요소는 4세기 가야 고분에서 나타난다. 이전의 변한 단계에 중국과의 교류에 의하여 들어온 동경이 4세기에 들어서도 계속 사용되고, 이를 모방한 방제경도 원삼국시대 후기 이후 계속해서 제작·사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으로부터 倭鏡도 수입되어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거울을 파쇄하는 破鏡 행위도 자주 확인된다. 거울이 도교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파경의 도교적 의미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다. 가야에서 거울이 중요한 呪具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의령 예둔리·함안 황사리고분군 등 많은 가야고분에서

거울 문양이 시문된 토기 뚜껑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토기 뚜껑에 동경의 거울 문양을 표현하여 거울과 같은 呪具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당시 거울이 지닌 주술성과 상징성을 완전히 체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경의 부장 및 破鏡儀式과 더불어 김해 대성동고분군 등 지배층의 대형 무덤을 중심으로 도검 등 무기를 절곡부장한 경우도 자주 확인되는데, 도교의 중요법기인 도검을 절곡·파쇄하는 행위는 파경과 같은 신선방술의 하나이다.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된 4~5세기대의 파형장식 철제방패 역시 태극문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앞서 살펴본 신창동 출토 태극문 칠원판과 같은 음양사상이 반영된 유물이라 할 수 있다.

3~4세기대의 대형 목곽묘와 5~6세기의 목곽묘 또는 석곽묘에서는 운기문 장식이 가해진 유자이기와 운기문철기(곡도자) 등이 출토된다. 이 철기들은 신부에 비해 실용성이 떨어지는 작은 투겁이 있고, 투겁 위에 1~2쌍의 운기문(꺾수문) 장식이 있다는 이유로 의례용 철기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초기의 유자이기와 운기문철기의 공반례가 많고, 운기문철기는 대개 2점이 함께 부장되며, 기부에 남은 목질방향으로 보아 유자이기와 한 세트로서 장송제의 용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도교에서 중시하는 ‘氣’를 나타내는 운기문이 장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투겁에 긴 나무 손잡이를 끼워 도교적 장송의례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고성패총 제의유구에서 출토된 조문청동기 역시 도교의례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전체적인 형태가 이른 시기 유자이기와 같은 형태이고, 가장자리에 많은 운기문 장식이 있으며, 중앙부에 있는 마주보는 2마리의

큰 새 위에 많은 작은 새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 역시 앞서 살펴 본 새가 상징하는 바와 같은 도교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4세기대의 이른 시기 유자이기의 상징적 관념을 계승한 아라가야의 함안지역과 대가야의 합천지역 지배자 무덤에서 출토되는 제의용기인 5~6세기의 유자이기 역시 도교적 상징제의에 사용된 기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사각형 구멍이 많이 뚫린 장방형 철판에 나무 자루를 끼울 수 있는 작은 투겅이 있고, 장방형 철판의 주연에는 새와 말이 교대로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다. 새는 어떤 종류의 새인지 알 수 없으나 봉황과 같은 서조였을 것이다. 봉황은 도교에서 다른 神獸들과 함께 천상과 지상을 오르내릴 수 있는 神鳥로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 봉황이 상징제의에 이용될 경우 羽化登仙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러 문헌 기록을 통해서 주지하는 바이다.

5~6세기 가야고분에서 자주 출토되는 장식대도들도 도교 법기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한 무덤에서 몇 점씩 출토되는 그 많은 장식대도들이 모두 도교 법기였을 리는 없을 것이다. 용과 봉황이 금은으로 장식된 용봉문환두대도는 고령 지산동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산청 중촌리고분군 등 대가야권역의 지배자 무덤에서 상당량 출토되었다. 용과 봉황이 상징하는 바, 이들 역시 도교 법기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합천 옥전 M3호분과 같이 이러한 용봉문환두대도가 출토되는 지배자 무덤에서는 백제 한성기~웅진기 지배자 무덤에서 종종 출토되는 것과 같은 도교적 벽사 의미가 있는 금동제 귀면문과판도 함께 출토되고 있어 도교적 관념이 상장의례에 깊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고 지배자의 위세품인 용봉문환두대도

는 도교 법기 여부를 떠나 용·봉이 상징하듯 도교적 신선사상이 반영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하겠다. 또 남원 월산리 1호분에서 출토된 2점의 은상감환두대도도 귀갑문 속에 연화문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불로장생과 연화화생의 도교적 요소가 짙게 베여 있는 유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형태의 상감 문양은 이외에도 고령 지산동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등에서 다수의 출토례가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식대도들은 도교의 중요 법기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5~6세기대의 부산 복천동고분군과 고령 지산동고분군에서는 도교에서 성스러운 과일로서 신성시하는 복숭아모양 토기와 복숭아씨가 출토되었다. 복숭아는 서왕모가 天界에서 재배한, 수천 년에 한 번씩 열리는 불로장생의 열매인 蟠桃로 인식되는 성스러운 열매이다. 이 불로장생의 관념이 투영된 복숭아(씨)가 토기 항아리에 넣어진 채 출토되거나 복숭아를 형상화한 토기로 만들어 부장한 것은 이렇게 좋은 복숭아 선약을 死者에게 공헌함으로써 사자의 영혼이 불로장생, 우화등선하기를 염원하였을 것이다.

6세기초에 축조된 소가야 최고 지배층의 무덤인 고성 송학동 1B-1호 황혈식석실분의 석실벽과 연도 내부는 전면에 붉게 주칠이 되어 있어 신라 적석목곽분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영생불사와 登仙, 그리고 벽사의 의미를 담은 도교적 장송의례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칠 석실은 소가야 지역과 영상강유역 고분에서 주로 확인되는 왜계 요소들로서 왜에서 행해지고 있던 도교적 상장의례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6세기 전중엽에 축조된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의 벽화에 사용된 적색

안료 역시 분석 결과, 주사의 중요 구성성분인 황화수은이 검출되어 주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고아동 벽화고분의 벽화는 흑·녹(청)·백·적색이 확인되고 있어 5방색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선사상과 함께 음양오행사상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합천 반계재고분 출토 대가야 단경호의 구연부에 새겨진 ‘하부사리리’ 명문 역시 대가야 계통의 단경호가 분명하므로 백제의 영향이라 하더라도 대가야에서 5방사상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대가야 권역의 5세기 후엽의 지배자 무덤인 남원 두락리 32호 석실분에서는 금동신발과 청동거울이 함께 출토되었으며, 그 무덤의 봉분에서는 제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말 머리뼈도 출토되었다. 금동신발은 익산 입점리 1호분, 나주 신촌리 9호분 출토 백제 금동신발과 유사한 룡형점열문이 타출된 것이며, 피장자의 머리맡에서 출토된 동경은 무령왕릉 출토 수대경과 같은 형식으로, 鏡面에는 주철과 포목, 목질 흔적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이것이 유일하다. 따라서 가야에서 금동신발을 사자에게 신겨서 장송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두락리 32호분의 경우는 금동신발의 형태가 백제 금동신발과 같은 형식이고, 무령왕릉이나 고흥 길두리고분 등에서도 같이 동경과 동반 출토되면서 머리맡과 발치에 각각 놓여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한성기말~웅진기 백제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백제 금동신발의 예로 보아 장식문양으로 귀갑문이나 연화문이 장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한대 劉向의 저작인『열선전』과 동진대 갈홍의『포박자』에는 ‘황제나 신선이 된 자는 죽어서 매장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 시

체는 사라지고 신발이나 의관, 칼만 남았다' 는 기록이 있다. 시신은 없어지고 의관과 신발만 남았다는 것은 의관과 신발이 승선 도구였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영혼이 자유롭게 된 신선을 도교에서는 尸解仙이라고 하는데, 금동식리가 장송에 사용된 것은 이러한 시해선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동경이 지닌 도교적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두락리 32호 석실분 출토 동경은 全面에 도교 선약재로 사용되는 주사를 이용한 주철이 되어 있어 금동신발과 함께 도교적 呪具로 사용된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술한 고아동 벽화고분이 백제 웅진기 전축분의 영향으로 축조된 것이고, 금동신발과 동경의 형식과 부장 패턴이 백제의 그것과 같은 점에서 이 시기 가야의 도교 관념은 주로 백제로부터 수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5세기후엽 남원 지역 대가야 지배층 무덤인 남원 운봉 M-5호분에서는 중국청자, 철제초두와 함께 다량의 주사편들이 출토되었다. 이 주사편들은 앞서 살펴본 운모와 함께 영원불사와 登仙의 의미로 부장하였던 상약 중의 상약이었다. 두락리 32호분에서는 중국 후한대 수대경과 함께 靑磁鷄首注子도 출토된 것으로 보아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대가야에 도교문화가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물들과 함께 출토된 철제초두 역시 주사와 같은 선약 제조나 약을 데우는데 사용된 도교의약 관련 기물이었을 것이다.

한편 가야 장신구 가운데 귀면문이 타출 또는 주조된 금동과대가 있다. 합천 옥전 M3호묘 등에서 출토된 금동과대의 과판에는 鬼面像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는데 대개 6점 정도를 하나의 혁대에 박아



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형태와 제작기법을 보이는 금동제 귀면문과대는 백제 한성기의 공주 수촌리 1·4호분, 청주 신봉동 B-1호묘와 웅진기의 송산리 5호분 등에서 출토되었다. 한성기 백제고분에서 출토되는 과관의 이러한 귀면문은 낙랑고분 출토 청동용기나 칠기 등에 보이는 捕手에서 변화·발전한 것으로, 벽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백제 사비기 도교 관련 건물지로 추정되는 부여 외리유적에서 출토된 壁博 중에 귀면상이 허리에 과대를 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허리띠에 귀면을 장식함으로써 착용자 또는 피장자를 악귀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옥전 M3호분에서는 은제 귀갑문 장식 안교와 행엽, 금제 귀면문·두꺼비문 장식도자도 출토되어 전체적인 유물 조합상에 도교적 색채가 짙게 베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두꺼비문양과 귀면문의 조합이 도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무령왕릉 금은제과대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이 밖에도 합천 반계재 기-A호분에서 출토된 銅鈴에도 귀면문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앞의 옥전 M3호분의 안교나 행엽과 더불어 馬裝에도 전반적으로 도교적 관념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야토기에도 도교적 요소가 감지되는 것들이 있다. 백제와 영산강유역에서 도교 제의 시에 영혼을 불러들여 안거케 하는 憑几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는 유공광구소호가 올려진 통형기대, 유공광구소호가 대가야권역과 가야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백제와 영산강유역으로부터 도교사상과 그 제의 관념이 대거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야토기 중에는 압형토기와 마형토기도 많은 예가 알려져 있다. 압형토기는 물과 깊은 관련을 지닌 새인 오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고구려, 신라 등의 건국신화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물을 다스리는 신의 대리자로서 흔히 알에서 왕자를 잉태하는 象徴鳥로 인식된다. 이와 더불어 하늘을 날면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거나 사자의 영혼을 승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새로 각인된다.

마형토기의 말 또한 봉황, 기린, 飛魚 등과 함께 사자를 말이나 기린이 사자를 태워 우화등선시키는 동물로 인식되므로, 가야고분 출토 마형토기는 곧 사자를 우화등선시킨다는 의미에서 부장되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사자의 영혼을 登仙시키고 천상에서 등선된 영혼이나 신선을 태우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압형토기와 마형토기는 가야인들이 상장제의에 신선사상을 반영한 도교적 喪葬祭具를 독자적으로 창출하여 사용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도교의식의 가야적 변용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 4. 가야도교문화의 흐름과 특징

이상의 유적·유물을 통하여 검토한 가야 이전 시기와 가야의 도교문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진변한 지역을 포함한 남부지역에서 도교문화 요소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기원전 2세기말~1세기경이다. 광주 신창동유적과 창원 다호리·경주 조양동유적을 비롯한 여러 원삼국시대 분묘군에서 출토된 목검·태극문

칠원반·현악기·동경·종방울·운모 등의 도교법기들과 선약재를 통해서 이 시기에 낙랑으로부터 신선사상과 음양오행·사신사상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도교문화가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낙랑토성이 나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 중에 도가사상·신선사상·음양오행·사신사상·점성술 등 도교문화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유물들에 도교문화 요소들이 배여 있는 것을 보더라도 당시 낙랑사회에 도교문화가 만연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낙랑의 도교문화가 낙랑과의 교류와 삼한사회로 들어온 유이민들을 통하여 진변한에 단속적으로 전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낙랑의 도교문화에 접하게 된 진변한 사회에서는 그 후에도 끊임없는 교류와 접촉과정에서 도교사상을 수용함과 동시에 재지의 토착신앙들과 융합된 재지적인 도교문화로 변용하였다. 원삼국시대 후기에 들어 김해 양동리·대성동고분군 등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유적에서 도교사상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방격규구사신경을 비롯한 후한경과, 이를 번안하여 만든 방제경들이 출토되는 것을 보면, 낙랑으로부터 도교법기들을 수입하여 사용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 도교법기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도교법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낙랑사회의 도교문화는 그 이후 초기의 가야사회에도 지속적으로 수용되었다. 가야의 3세기 후반~5세기 유적에서 후한경을 비롯한 도교관련 유물들이 지속적으로 출토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가야에서는 가야고분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다수의 도교 관련 유물

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나 중국으로부터 도교가 전해져서 나름대로의 도교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삼국시대 이래의 중국 동경들과 이를 모방한 방제경들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새로 倭鏡이 수입되는 등 삼국 중 동경을 도교법기로서 가장 중요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도검의 절곡부장, 破鏡 등과 같은 신선방술도 4세기부터 나타나고 있어 도교사상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석실 내부가 붉게 주칠이 된 고분들이 다수 확인되고, 주사와 운모, 복숭아 등의 선약재와 승선 도구인 금동신발, 도교 법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문·귀갑문 또는 용봉문환두대도, 귀면문방울, 귀면문과대, 도교적 장승제의에 사용된 유공관구소호와 통형기대, 압형토기, 마형토기 유자이기 등 다양한 도교관련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어 가야 사회에도 지배층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도교문화가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Part. 6

---

**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가야문화**

곽 장 근  
군산대 사학과 교수

---



## 1. 백두대간 속 운봉고원과 진안고원

한반도의 척추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는 행정경계이다.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에 속한 곳이 운봉고원이다. 달리 신선의 땅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는 곳으로 섬진강과 낙동강유역을 함께 거느리고 있으면서 해발 500m 내외되는 전형적인 고원지대이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서쪽을 마치 천연의 장성(長城)처럼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어 천혜의 요새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무주군 무풍면과 함께 신라의 행정치소가 설치된 곳으로 조선시대 십승지에도 그 이름을 함께 올렸다.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의 내륙교통로가 거미줄처럼 잘 발달되어 선사시대부터 줄곧 문물교류의 허브였다.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호남정맥 사이에 형성된 진안고원은 해발 300m 내외로 달리 호남의 지붕으로 불린다. 행정 구역상으로 전북 진안군·장수군·무주군과 충남 금산군에 걸쳐 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로 삼국시대까지 문화상 접이지대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진안군과 무주군, 충남 금산군 일대에 백제·가야·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토착세력집단은 가야문화를 토대로 가야계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다가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에 진안고원의 가야가 백제에 복속됐고, 백제와 후백제의 멸망 이후에는 진안고원이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했다.



## 2. 철의 왕국인 운봉고원 운봉가야

최근에 고고학계의 이목이 온통 철의 왕국인 운봉고원으로 쏠렸다. 운봉고원의 아영권에 속한 남원 월산리 가야계 고총인 M5호분에서 중국제 청자인 계수호(鷄首壺)가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백제 왕 주요 하사품으로 알려진 최상급 위세품(威勢品)의 하나로 종전에 익산 입점리와 공주 수촌리, 천안 용정리, 서산 부장리 등 백제의 영역에서만 출토됐다. 신라의 천마총과 황남대총 출토품과 흡사한 철제초두(鐵製鏃斗)를 비롯하여 금제 귀걸이, 갑옷과 투구, 경갑, 기꽃이 등 가야계 위신재(威身財)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원 두락리 32호분에서는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수대경(獸帶鏡)과 금동신발이 출토됐다.

고령 지산동과 합천 옥전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제외한 모든 가야계 위세품이 운봉고원에서 출토됐다. 우리나라 가야계 고총에서 최초로 계수호와 철제초두가 남원 월산리에서 금동신발과 청동거울이 남원 두락리에서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운봉고원의 역동성과 함께 그 위상을 더욱 높였다. 아마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철산지이자 문물교류의 관문으로써 백제가 운봉고원을 얼마나 중요시했던가를 엿볼 수 있다. 이에 근거를 두고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계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운봉고원의 가야세력을 운봉가야라고 부르고자 한다.

1500년 전 운봉가야의 지배자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시신과 유물을 부장하기 위해 천석과 할석으로 수혈식 매장공간을 마련했는데, 월

산리 M5호분은 매장주체부의 길이 960cm로 고령 지산동 등 다른 지역의 가야계 고총들보다 그 규모가 크다. 이처럼 가야계 고총에서 매장주체부의 길이가 큰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죽어서도 살아생전의 권위와 신분을 그대로 누릴 거라고 믿었던 계세사상(繼世思想)이 널리 유행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운봉고원에서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운봉가야의 발전상을 뒷받침해 주는 유일무이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아직도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지만 가야계 고총의 규모와 그 기수는 고령 지산동 서쪽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남원 두락리 가야계 고총은 아영분지 한 복판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 정상부에 그 입지를 두었다. 남원 월산리가 구릉지에 입지를 둔 것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운봉가야 수장층의 분묘유적을 월산리에서 두락리로 옮긴 이후 대가야 등 가야와의 결속력이 더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사방에서 한 눈에 보이는 산줄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봉토를 산봉우리처럼 더욱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무덤 주인공의 신분이나 권위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고구려와 신라의 왕릉이 구릉지와 평지, 백제가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 왕릉을 조성한 것과 다르다. 아마도 삼국과 구별되는 가야만의 독자적인 장례문화와 장례풍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고고학적 증거이다.

가야계 소국으로 발전했던 운봉가야는 두 가지 점에서 강한 지역성을 보였다. 하나는 봉토에 하나의 매장주체부만 배치된 단곽식이고, 다른 하나는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시설을 두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원 월산리·두락리를 중심으로 한 함양 상백리·백천리, 산청 중촌리·생초, 장수 삼봉리·동촌리는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시설

을 갖추지 않았다. 진안고원에 속한 장수 삼봉리·동촌리를 제외하면, 다른 고총군은 모두 남강 중류지역에 집중되어 하나의 분포권을 형성한다. 아마도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경남 함양군과 산청군 일대에는 서로 긴밀한 교류관계를 바탕으로 동일한 문화권 및 생활권을 형성했던 가야계 소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 지산동 서쪽에서 가야계 고총은 대가야양식 토기가 주종을 이루는 단계에 접어들면 가야계 고총이 자취를 감추든지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운봉고원 내 남원 두락리 경우만 유일하게 봉토의 규모와 매장주체부가 축소되지 않고 그 이전 단계의 발전 속도를 멈추지 않고 더욱 커졌다. 아울러 가야계 고총에서 최초로 그 존재를 드러낸 철제초두를 비롯하여 모든 철기류가 출토됐는데, 철기류는 대부분 운봉고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운봉가야 수장층 목관에 사용된 꺾쇠는 가야 영역 출토품 그 크기가 가장 크다.

그런데 운봉고원 가야계 고총은 매장주체부의 내부구조가 수혈식에서 횡구식 또는 횡혈식으로 바뀐다. 남원 두락리 2호분은 매장주체부가 횡혈식 석실분으로 남쪽 기슭 제일 하단부에 자리한다. 봉토의 중앙부에 축조된 석실은 아래쪽이 수직에 가깝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벽석을 같은 비율로 좁혀 1매의 천정석으로 덮었다. 연도의 위치를 제외하면, 유구의 속성은 대체로 공주 송산리 3호분과 상통한다. 급기야 가야계 중대형 고총의 내부 구조가 백제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6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에 수혈식에서 횡구식 및 횡혈식으로 바뀐다.

운봉고원 일대가 6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 백제에 편입됨으로써 운봉가야로 추정되는 기문국(己汶國)이 521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 백제는 운봉가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곧 행사하다가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 패배함에 따라 그 주도권을 상실한다. 남원 두락리 2호분과 봉대리 2호분에서 출토된 신라의 단각고배를 근거로 6세기 중엽 경에는 운봉고원이 신라의 영향권으로 편입됐음을 증명해 주었다. 562년 대가야를 비롯한 백두대간 동쪽 가야계 소국들이 모두 신라에 정치적으로 복속되면서 마침내 백두대간에서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 형성됐다.

### 3. 봉수왕국인 진안고원 장수가야

흔히 가야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6세기 중반까지 영남 서부지역에서 호남 동부지역에 걸쳐 존재했던 소국들의 총칭이다. 그런데 가야를 소개할 때 마다 꼭 따라 붙는 수식어가 ‘수수께끼의 왕국’ 혹은 ‘비운의 왕국’이다. 그 이유는 『삼국사기』에서 가야의 역사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래부터 가야의 역사 기록이 없었는지, 김부식이 가야사를 외면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행히 1980년대부터 그 실체를 조금씩 드러낸 가야의 역사와 문화는 삼국과 어깨를 견줄 만큼 우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가야 영역의 서쪽 경계로 인식되어 온 백두대간을 넘어 진안고원에서 가야계 소국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제까지 진안고원에 속한 전북 장수군에서 20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확인됐다. 이들 가야계 고총 발굴조사에서 장수가야만의 지역

성이 입증됐다. 장수 삼봉리·동촌리의 가야계 고총은, 봉분의 평면 형태가 장타원형으로 서로 인접된 다른 고총과는 얼마간 거리를 두었으며, 봉분의 가장자리에서 호석을 두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봉분의 중앙부에 주석곽이 자리하고 그 주변에 1~3기 내외의 순장곽이 배치된 다곽식이다. 가야계 고총의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을 띠고 있으면서 호석을 두르지 않은 것은 가야의 영역에서 장수가야가 유일하다. 장수가야의 하위계층 분묘유적인 장수 삼고리는 산자락의 하단부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석곽의 규모가 커지는 발전과정을 나타냈다.

장수 삼봉리 1호분 주석곽에서 위신재인 환두대도가 부장된 흔적과 함께 목관에 사용됐던 꺾쇠가 출토되어, 가야계 고총의 피장자가 장수가야의 수장층으로 밝혀졌다. 2012년 장수 삼봉리 가야계 고총에 대한 학술발굴에서도 그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으로 다시 입증됨으로써 장수가야만의 독자성과 지역성이 재확인됐다. 무엇보다 금으로 만든 가는 고리를 비롯하여 재갈과 등자, 꺾쇠 등 값진 유물이 출토되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물의 출토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금관이 가야계 고총에서 출토됐었다는 도굴범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주민의 제보도 암시하는 바가 크다.

장수 삼봉리에서 40여 기와 장수 동촌리에서 8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한곳에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장수가야의 존속기간을 웅변해 준다. 봉분의 직경이 30m 내외 되는 장수 회양리를 비롯하여 20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무리를 이루고 있어, 당시 강력했던 장수가야의 위상도 추론해 볼 수 있다. 가야계 고총만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면, 백두대간 육십령로 관문이자 사통팔달한 내륙교통망의 심장 부인 장계분지는 장수가야의 최고 중심집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장계면의 행정적인 위상이 장수읍보다 한 단계 높았다.

여태껏 백제문화권에 속했던 곳으로만 인식된 호남지방에서 가야계 고총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장수군이 처음이다. 동시에 장수가야가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지 않고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다는 가장 진솔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영남지방에서도 단일 지역 내에 20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밀집된 곳이 많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기 이전까지 강력한 가야계 왕국이 존재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더욱이 가야영역의 서쪽 자연경계로 인식됐던 백두대간 서쪽에 위치함으로써 가야의 영역을 금강유역으로까지 넓혔다.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가야는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처음 등장해 가야계 왕국으로 발전하다가 6세기 초엽 경 백제에 복속됐다.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이 천연의 장벽 역할을 해 주었고, 내륙교통망의 인후지지(咽喉之地)와 같은 육십령의 장악과 한성기 백제의 간선교통로가 통과하지 않는 지정학적인 이점도 크게 작용했다. 장수가야의 영역에 속한 동향분지에서 생산된 구리[銅]도 장수가야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진안고원의 장수군에서만 마한의 말무덤이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20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으로 발전했다. 가야계 소국 중 유일하게 금강유역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가야왕국이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전북 장수군 일대에서 가야계 왕국으로까지 발전했던 장수가야가 그 존재를 드러냈다. 진안고원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계상으로 금강유역에 속한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두대간이 가야 영역의 서쪽 경계를 이룬 것으로 널리 인식됐다. 그런데 진안고원에서 유일하게 전북 장수군에만 가야계 지배자 혹은 지배층 무덤으로 추정되는 20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있다.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사이에 가야계 소국이 있었다는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이다. 장수군 일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왕국으로까지 융성했던 장수가야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봉수왕국’이다.

삼국시대 때 진안고원을 차지하려고 백제와 가야, 신라가 서로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쳤다. 그리하여 장수군을 제외한 진안고원에서 삼국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그러다가 장수가야가 백제에 복속됐고, 백제의 멸망 이후에는 진안고원이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백제의 수도와 진안고원을 왕래하던 내륙교통로가 끊긴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낙후된 지역을 암시하는 용어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무진장(茂鎭長)으로 그 위상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가야계 왕국으로 장수가야의 발전과 삼국의 각축장으로 진안고원이 큰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백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6가야의 존재만 기억하고 있는데, 일본 혹은 중국의 문헌에 등장하는 가야는 그 수가 20여 개를 넘는다. 금관가야와 대가야, 소가야 등은 1970년대부터 학술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그 실체가 상당부분 밝혀졌다. 삼국시대 때 백제문화권에

속했던 곳으로만 인식된 전북 동부지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가야사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앞으로 장수가야의 실체를 밝히고 알리는 데 장수군과 전라북도 등 행정당국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이 요망된다. 동시에 21세기 ‘문화의 전쟁시대’에 가야문화유산을 미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존대책 및 정비방안도 조속히 마련됐으면 한다. 진안고원 속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장수가야는 달리 ‘봉수왕국’이다.

#### 4. 전북 동부지역 가야에 큰 관심을

20여 개소의 제철유적으로 상징되는 철의 왕국인 운봉고원에서 가야계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운봉가야는 문헌 속 기문국으로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처음 등장해 6세기 중엽 경까지 발전했다. 백두대간이 서쪽 자연울타리 역할을 해주었고, 백제와 가야의 문물교류의 관문, 대규모 철산개발과 교역네트워크를 통한 철의 유통이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운봉고원에 100여 기의 말무덤과 가야계 고총, 최상급 위세품이 출토됨으로써 기문국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그러다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 백제묘제가 본격 수용됐고, 6세기 중엽 경에는 신라에 정치적으로 복속됐다. 문헌 속 기문국은 우륵 12곡을 비롯하여 중국 및 일본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가장 역동적인 가야계 소국이다.

진안고원의 장수군에 기반을 둔 장수가야는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처음 등장해 가야계 왕국으로 발전하다가 6세기 초엽 경 백제에 복속



됐다.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이 천연의 장벽 역할을 해 주었고, 내륙교통망의 인후지지(咽喉之地)와 같은 육십령의 장악과 한성기 백제의 간선교통로가 통과하지 않는 지정학적인 이점도 크게 작용했다. 이를 발판으로 장수 동촌리 말무덤이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200여 개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장수군에만 조영됐다. 장수군 일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장수가야는 봉수왕국이다. 장수군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80여 개소의 봉수는 줄곧 백제와 등을 맞댄 장수가야가 그 생존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운영했던 가야문화유산의 백미이다.



Part. 7

---

**가야토기 연구의 현황**

김정완  
국립김해박물관장

---



## 1. 토기란 무엇인가?

토기는 글자 그대로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인데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에는 이외에도 도기, 자기 도자기 사기가 있다. 이중에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이르는 것이고 도기 자기 사기는 어떻게 서로 어떻게 다를까?

도기는 도토(陶土)를 사용하여 만들고(1100도이하)에서 구운 것으로 연질도기(軟質陶器)와 경질(硬質)도기, 무유(無釉)도기와 시유(施釉)도기가 있다. 자기는 자토(瓷土, 고풍토, 백토)로 만들며 유약을 바르며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굽는다. 사기는 자기의 별칭으로 쓰이기도 하며 질이 나쁜 자기를 사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토기라는 말은 도기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이전에는 없던 말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널리 쓰이는 신생용어이다.

토기의 발생은 정주생활이 시작된 신석기시대라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다. 물론 구석기시대에도 굽지 않은 생토기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불에 구운 토기는 신석기시대부터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는 빗살무늬토기, 민무늬토기, 와질토기, 삼국시대 토기 등이 있다.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에 가장 일반적인 토기로서 토기의 표면에 빗살과 같은 문양이 새겨진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빗살무늬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양이 있다. 민무늬토기는 청동기

시대 토기로서 토기 표면에 아무런 무늬가 없는데서 연유한 이름이지만, 실제 토기 입술이나 그 주위에는 구멍이나 각목문등 문양이 있는 것도 많다. 와질토기는 삼한시대 후기에 성행한 토기로서 그 재질이 기와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국시대토기는 점토로 만든 후 굴가마에서 굽는 다는 점은 와질토기와 같지만 와질토기에 비해 훨씬 단단하고 흡수율도 낮다.

그런데 이들중 빗살무늬토기와 민무늬토기 등 선사시대 토기는 점토로 만든 후 말려서 노천에서 별다른 시설없이 바로 굽기 때문에, 자급자족형으로 만들어졌으며 민족지자료를 보면 주로 여성들의 토기제작을 담당한다. 반면 삼한시대의 와질토기, 삼국시대의 토기 등은 고속도의 회전판을 이용하고 별도로 제작된 굴가마에서 구워진다. 이중 특히 굴가마를 만드는 일은 고난도의 기술과 인력을 필요로 하고, 토기를 구울 때에도 많은 땀감을 이용하여 다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토기제작만을 전담하는 전문집단이 등장하게 된다.

## 2. 토기연구의 목적과 경향

토기연구는 고고학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연구인 수를 보아도 토기 연구에 종사하는 고고학자들이 가장 많다. 왜 그럴까?

고고학은 고대로 부터 남겨진 물질유산을 연구수단으로 하여 그 당시의 문화를 복원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남겨져 있는 물질자료를 동일시대별로 분류하고,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하는 일이다(편년작업). 이것이

잘못된다면 이순신장군을 삼국시대 장군으로, 김유신 장군을 조선시대 사람으로 설정하고 연구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만큼 편년작업은 고고학 연구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토기연구에 몰입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물론 토기가 인간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시 인간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토기연구는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고고학 연구현장에서는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실제로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종사하는 토기연구에서, 아직까지 가장 기본적이라 할수 있는 토기의 용도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토기이름도 용도에 따른 이름이 아닌 형태묘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토기를 편년작업에 이용할까?

토기가 편년작업에 이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작이 간편하고, 각종 유적에서 제일 많이 남아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서로 관련되기도 하지만 철기나 금동제품등 다른 재질에 비해 점토가 원료가 원료인 만큼, 원료를 구하기 쉽고 다루기 쉽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남아있다. 또 만들기가 쉬운 만큼 각 지역에서 제작된 것은 그 당시의 변화 즉 유행에 민감하다. 즉 시대에 따른 토기의 변화상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다 고고학적인 방법론인 패층과 포함층 유적에서의 층서학(통시성)과 고분 매납품(동시성)의 원리를 적용하면 시간적인 변화상을 추출해 내기 가장 유력하다. 또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범위를 추출해 내기에도 토기가 가장 유리하다. 이것이 고고학에서 토기가 연구되는 주 이유이다.

특히 삼국시대의 토기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대량생산되어 공급 되기 때문에 유통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유통권역 내에서 그 유통을 주도했음직한 큰 세력군(수장급고분군)이 존재한다면 그 범위는 정치적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하나의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소국이 병립하고 있었던 가야에서는 이 분야 연구가 특히 중요하다.

### 3. 고식도질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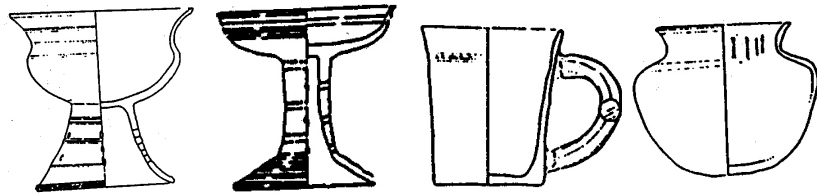
3세기 후반경이 되면 당시에 주류토기를 이루던 와질토기와는 전혀 다른, 도질토기라는 새로운 토기가 출현한다. 당시의 와질토기가 회백색을 띠면서 흡수성이 있는데 비해 도질토기는 색깔은 짙은 회청색을 띠고 토기의 단면은 적색을 띠며 아주 단단하여 두드리면 거의 쇳소리가 나며 흡수성이 거의 없다. 이 토기는 굴가마에서 1000℃이상의 고온에서 구워진 것으로 김해지역에서 먼저 나타나나 곧바로 영남전역으로 퍼진다.

도질토기의 발생에 관하여는 중국의 고월주요의 자기에서 유래했다는 설, 전국시대의 토기 또는 회유도기등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는 학설 등과 우연한 계기로 와질토기에서 변화 발생하였다는 자체발생설이 있다.

이 도질토기가 변화 발전하여 신라 및 가야토기로 분화되는데, 도질토기의 발생에서 신라 및 가야토기로 분화하기 전까지의 약 100여년간 성행하였던 토기를 신라 및 가야토기와 구별하여 고식도질토기라고 부르고 있다.

고식도질토기의 주요기종으로는 양이부단경호, 통형고배, 컵형토기, 파수부잔, 노형토기, 파수부대부잔, 광구소호 등이 있다.

고식도질토기에 대한 공간적인 분포 등을 둘러싸고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분야는 분포상에 관한 문제인데, 고식도질토기가 영남전역에 걸쳐 특별한 지역적 차이 없이 널리 분포한다는 영남지역공통양식론과 고식도질토기도 각 지역양식으로 나뉘어진다는 지역양식론이 있는데, 지역양식론은 김해식과 비김해식, 경주식과 함안식, 등이 있는 가 하면 근래에서는 5개의 권역으로 나뉜다는 지적도 있다.



고식도질토기

#### 4. 가야토기

가야토기는 가야사람들이 쓰던 토기이고 가야는 문헌에 따르면 서기 42년에 건립되었고, 고고학적으로도 목곽묘단계에서 부터는 우월자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도질토기 뿐만 아니라 후기와질토기도 가야토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고학계에서는 가야토기는 회청색 경질토기 즉 도질토기 및 동시기의 연질토기를 가르킨다. 이것은 후기와질토기가 출토되는 목곽묘가 유행하던 시기는 삼한시대로 시기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런데 고식도질토기는 신라토



기와 가야토기로 분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양쪽에 공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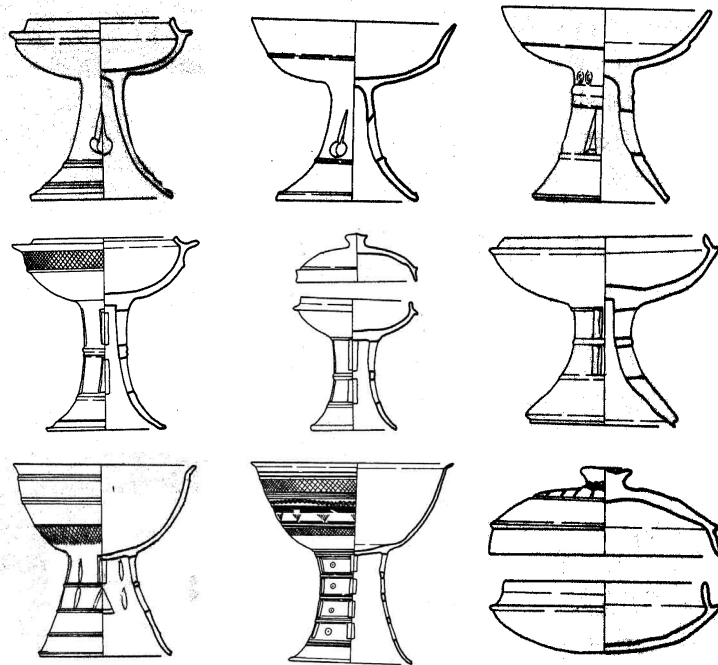
즉 신라토기와 가야토기 모두 전 후기의 토기로 나눌 수 있는데 양쪽 다 전기 토기는 고식도질토기로서 공통된다. 다시말하면 토기로 보는 한 4세기대에 신라와 가야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전기 가야토기는 고식도질토기의 단계로서 전 영남지역에서 거의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 시기에도 부산과 김해등 낙동강 하류유역에서는 일본 토기의 영향을 받은 일련의 토기가 있어 타 지역과는 다소 구분된다. 이들은 일본 토사기의 영향을 받은 듯 한 연질호, 무개고배 등인데 지리적인 연관성에 의한 교류의 결과로 보여지고 있다. 금관가야의 왕묘로 추정되고있는 김해 대성동고분군은 3-4세기대에 조영된 대규모 고분군인데 여기에서는 통형기대, 고배, 고배형기대, 노형토기 등과 단경호, 장경호, 대부호, 광구소호 등 많은 토기가 출토되었다. 또 다른 일군의 고식도질토기는 함안지역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통형고배, 노형토기, 단경호, 파수부잔, 대부파수부잔 등이 있다.

후기의 가야토기는 신라토기와 분화된 뒤인 5세기대 전반대의 이후의 토기를 가르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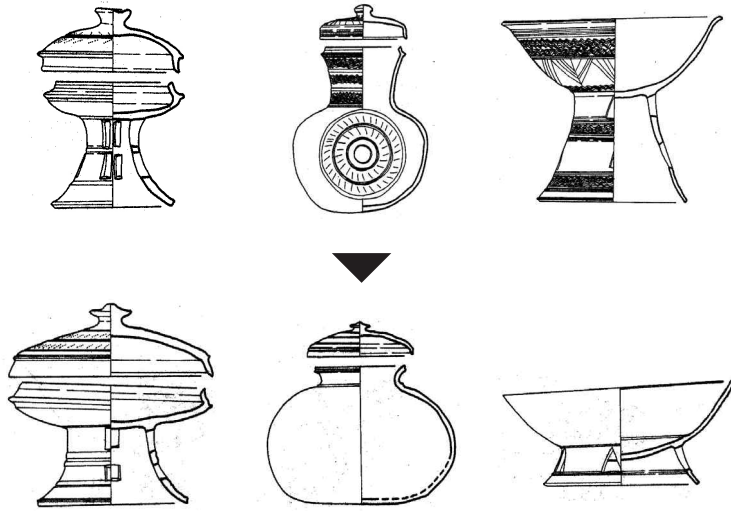
이 시기의 가야는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국이었던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각지에 가야 소국이 등장하게 되며 후기에는 이들 후기가야의 맹주로 대가야가 등장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토기의 분토 및 특색도 이러한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시기가 되면 고식도질토기의 전통이 사라지는 대신 혼란기의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다 곧 바로 가야

토기에 각지의 소지역색을 나타내며서 정리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보면 대가야의 고령식토기, 아라가야의 함안식토기, 창녕식토기, 고성 사천 등을 중심으로 한 진주식토기 등을 있다.



함안식토기의 변천

함안식토기는 유개고배의 경우 뚜껑받이가 비교적 길게 수평으로 뻗고 대각은 나팔형이며 투창은 세장방형 투창이 상하일열로 배치된다. 무개고배는 나팔상대각에 화염형투창이 장식되며 장경호는 구경부가 길게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무개식이 많다. 시각이 지남에 따라 기고가 낮아지고 소형화 되어간다.



고령식토기의 변천

고령식토기는 무개고배가 거의 없고 유개고배가 성행하며 장경호도 유개식으로 직립한 긴 목이 붙으며 넓은 뚜껑받이턱이 부착된다. 주로 고배형기대와 세트를 이루는데 고배형기대에는 밀집파상문, 수엽문 등과 각종 형태의 투창이 장식된다. 그리고 통형기대는 아랫쪽이 불룩하게 부풀어오른 형태이고 몸통옆에 세로로 긴 뱀과 같은 장식이 붙는다. 그리고 개배, 합 소형기대와 장경호 등도 고령식토기의 주요기종이다.

6세기가 되면 가야토기는 소형화되고 간략화되어간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령식토기가 확산된다. 유개고배는 5세기대의 고배가 더욱 간략화되어 단각고배에 가까워지고 장경호도 소형화되며 장경호와 세트를 이루던 고배형기대도 변화하여 짧은 대각이 달린 얇

은 발과 같은 형태로 변한다. 이외에도 소형기대가 더욱 더욱 작아져 팔찌형기대로 변하는 등 전반적인 토기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나며 이 변화는 곧 가야의 멸망과 함께 신라토기로 대체되면서 가야토기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 5. 맺음말

이상 가야토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토기는 그 속성상 시대의 흐름과 지역에 따른 유행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고 각 지에서 비교적 많이 출토되는 유물이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분야중 하나이다. 그래서 가야토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어 미세편년은 물론, 소규모 지역적 차이까지 추적연구하여 상당한 연구성과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지금 간단하게나마 살펴본 것과 같이 가야토기에 대한 연구는 토기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고학 본래의 목적인 당시의 문화를 복원한다기 보다는 고고학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편년체계를 위한 연구나 지역색 분석을 위한 연구 등의 도구로 쓰여지는 경우가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토기요지 조사나 대규모 생활유적 조사가 활발해 지면서 토기의 제작방법이나 사용흔적에 대한 연구도 진전되고 있고, 특히 대규모 생활유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으로써 분묘출토 토기가 아닌 생활토기에 대한 자료가 많이 축적되고 이에 따라 토기의 용도, 용량 등을 비롯한 토기를 둘러싼 당시의 생활을 연구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





Part. 8

---

**우리나라  
고대 제철문화의 특성**

이 남 규  
한신대 한국사학과 교수

---



## 1. 머리말

현재 인류는 물과 공기의 존재와 그 가치를 몰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의 소중함도 거의 자각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문화의 변동에 가장 역동적인 물질로 작용한 철의 역사에 대해 일반인들이 무지하거나 역사학자들조차 이제까지 관심을 크게 보이지 못한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특히 우리민족은 고대와 현대에 세계적 수준의 철문화를 창출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대 제철문화는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최첨단의 수준에 있었던 중국 한나라 제철기술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어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삼국시대 중반기에는 동아시아에서도 독보적인 단계에 도달해 있었고, 이는 당시에 곧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고대 제철문화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전통과학기술이지만 아직도 그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하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2. 고대 제철의 기본 원리

### 1. 철의 기본 개념

- 1) 철 사용 개시설 : (1)산불설, (2)운철설, (3)야동착오설 \*히타이트족
- 2) 종류 : 연철(괴련철), 선철, 鋼
- 3) 생산기술 : 산화철( $Fe_2O_3$ ,  $Fe_3O_4$ ) → FeC로 제련(환원) → 철기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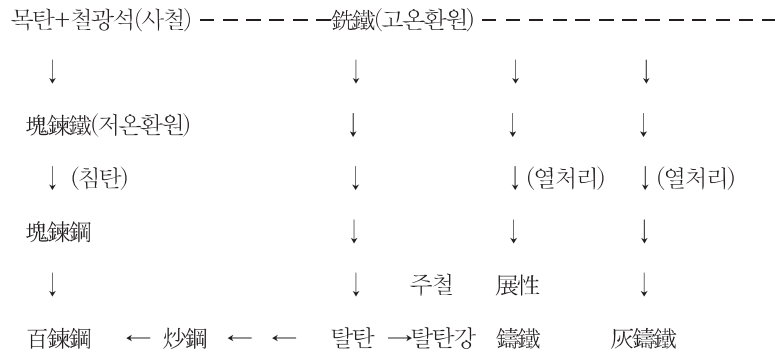
### 2. 제철의 개념

- 1) 제련 - 목탄으로 철광석이나 사철을 환원시켜 철을 생산하는 것  
(괴련철 후 선철)
- 2) 용해와 주조 - 쇳물을 얻어 주조철기를 제조하는 것
- 3) 제강 - 선철에 과다하게(4.3% 전후) 포함된 탄소를 탈탄하여  
1.7% 이하 수준의 鋼을 생산하는 것  
\*초강법 : 선철에 탈탄제(철광석 분말 등)를 투입하여 鋼을  
생산하는 방식
- 4) 정련 - 괴련철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내부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 5) 단야 - 단조하여 철기를 제조하는 것

### 3. 제철의 원료와 연료

- 1) 원료 - 철광석 후 사철
- 2) 연료 - 목탄(상수리나무, 소나무 등)

## 4. 제철의 계통도



## 3. 동아시아 고대의 제철문화의 전개 양상

### 1. 중국 고대 철문화의 특성

- 1) 殷代의 隕鐵 사용
- 2) 西周時代 人工 철기의 생산개시
- 3) 春秋時代 철기 문화의 개시 --- 구조제품의 농공구가 중심
  - \* 열처리 기술의 등장
- 4) 戰國時代 철기 문화의 발전양상
  - (1) 생산과 보급의 확대(도성에서 제후들이 관영수공업으로 보호)
  - (2) 열처리기술의 진전
    - \* 주철탈탄강의 출현
  - (3) 주변지역으로의 확산(동북의 燕지역과 남방의 楚지역)
    - \* 동북 지역 중 우리나라 철기 유입
- 5) 漢代 철문화의 획기적 발전

- (1) 炒鋼 기술의 개발과 강철제 무기의 발달
- (2) 쟁기 등 주조 제품의 농기구 생산과 보급의 확대
- (3) 낙랑을 통한 한반도로의 제철, 제강기술 유입

## 2. 한반도 고대 철문화 전개과정의 특성

한반도의 최초의 철기는 기원전 3세기경 중국 동북지방에 있던 연(燕)나라로부터 유입된 것이다. 이후 기원전 2세기에 초보적인 철 및 철기의 생산 단계를 거쳐 기원전 1세기에 낙랑의 설치를 계기로 본격적인 철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당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달해 있던 전한(前漢)의 여러 기술들을 무난히 수용하여 초기부터 이미 여러 기능의 독자적인 철기들을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의 탁월성을 보여주었다는데 있다. 다만 낙랑의 철기문화가 이른 시기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지역은 한반도 동남부의 弁辰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馬韓지역에 해당하는 한강·금강·영산강 유역권에서는 기원전 1세기~기원 후 2세기의 철기는 물론 이 시기의 유적들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심한 지역간의 편차에 대한 해석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당시 가장 선진적인 지역이었던 김해의 良洞里 162호묘(대형 목곽묘)에서 알 수 있듯이, 늦어도 기원후 2세기 후반 정도에는 집중적으로 철기를 소유할 수 있는 지배계층이 대두하고, 그들이 관장하던 철 생산력은 일취월장하여 한반도 동남부의 弁辰지역 철은 국내의 각 지역은 물론 일본에까지 수출될 정도였다. 이 때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김해지역은 대대적인 철 집산지의 기능을 갖게 되었고, 그

로 인해 문자 그대로의 「쇠바다(金海)」란 지명이 붙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 우위의 철문화를 보유한 세력은 주변지역을 서서히 통합하여 고대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기원후 2세기 이후의 급속한 철기문화 발전양상은 상당 기간 동안 정체상태에 놓여 있던 馬韓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당시 마한지역의 발전을 저지하고 있던 낙랑과 대방의 세력이 약화되고, 그 주변의 원주민 세력이 강성해진 결과로서,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 華城市 旗安里유적에서 남하해온 樂浪계통의 집단이 제철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후에도 고대사회의 발전이 철의 생산력 장악을 축으로하여 진행되었던 사실은 최근 조사된 백제지역의 진천 石帳里 제철유적(제련, 주조, 단조철기 제조)이나 신라지역인 경주 隍城洞 철기 생산유적(주조쟁이의 주조와 단조철기제조)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 두 유적의 성격을 볼 때 당시 제철이나 철기 생산이 관영체제에 의해 중요 거점지역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한편 가야의 경우는 제철유적이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4세기의 지배계층 무덤들에서 출토되는 각종 병기나 농공구의 종류나 수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당시 가야의 철문화가 주변의 백제나 신라 보다 우위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발전적 추세가 5세기에 더욱 가속화 되었음은 신라유적인 경주 황남대총이나 가야유적인 합천 옥전고분, 부산 복천동고분에서

과다할 정도의 철제품들이 출토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6세기 이후의 철기자료는 무덤 부장품들이 감소하는 관계로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삼국 통일전쟁 과정의 역사적 상황이나 문헌자료 등의 간접적 자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철문화가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주변지역을 보면, 수나라로 통일되기 전의 중국은 장기간의 혼란기여서 제철이 상당히 퇴조하고 있었고, 일본은 가야지역의 철을 계속 수입하다가 5세기 후반부터나 겨우 국내에서 제철이 가능해진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고대 철문화의 발전양상은 동북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실로 세계적 수준이었다고 평가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이후의 통일신라 자료는 극히 적지만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병기를 모아 농기구를 만들도록 하였다는 사실에서 철과 철기의 생산이 여전히 관영수공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궁중의 철기 제작은 궁중수공업 부서들 중 하나인 철유전(鐵鑪典)이 담당하였다. 그 외에도 불사(佛事)를 지원하는 사원수공업이 발달하는 가운데 철불(鐵佛)과 같은 종교적 상징물이 많이 제작되었다. 당시의 철불은 주변나라의 것들보다도 규모와 조각기법이 뛰어난 것이어서 철의 주조기술이 이전보다 월등히 진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철광석의 채굴이나 제철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여졌는지는 불확실한 실정이며, 후대로 가면서 지방의 호족세력들이 강성해지면서 각 지역단위로 철 생산체계를 장악해 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신대학교박물관이 발굴한 용인시 彦南里유적

에서 벗을 동반한 대·중·소의 철제보습 다수 등 총 360여점의 각종 철기들이 출토되어 당시 철기문화가 어느 정도로 발전해 있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점은 최근 우리나라 철문화 연구에서 거둔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북방에 위치하던 발해는 고구려계의 지배계급이 철 생산을 독점하면서 철문화를 발전시켰으며, 현재도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철광산지인 무산지역의 철이 특히 유명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4. 고대 철 및 철기의 생산기술

먼저 제철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이 원료와 연료의 문제이다. 원료는 고대부터 노두에서 채취한 적철광과 자철광 같은 철광석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 예로 기원후 1세기 정도의 무덤내에서 대형의 철광석이 출토되고, 진천 석장리의 백제 야철유적에서는 철광석을 분말상태로 만들어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물론 사철(砂)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고려시대 이전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료는 거의 전적으로 목탄을 이용하였으며, 제철 입지는 경비 문제로 철광산지보다 목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보다 선호되었던 것 같다. 중국에서는 기원후에 연료로 석탄을 쓰기도 하지만 그러한 방식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흔적은 아직 없다.

고대부터의 제철법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주조철기용의 선철 제조법과 단조철기용의 해면철(혹 塊鍊鐵)제조법이 거의 동시에 시

작되었다. 선철은 당시의 철기들이 공정주철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1,200°C 보다 약간 높은 정도, 해면철은 1,000°C 정도에서 각각 생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철로의 형태로는 석장리유적에서 장방형의 상형로(箱形爐)와 약간 원추형인 수혈로가 모두 확인되었으며, 송풍관은 직경이 10여cm

圖 1. 고대 철기 제조 공정의 종합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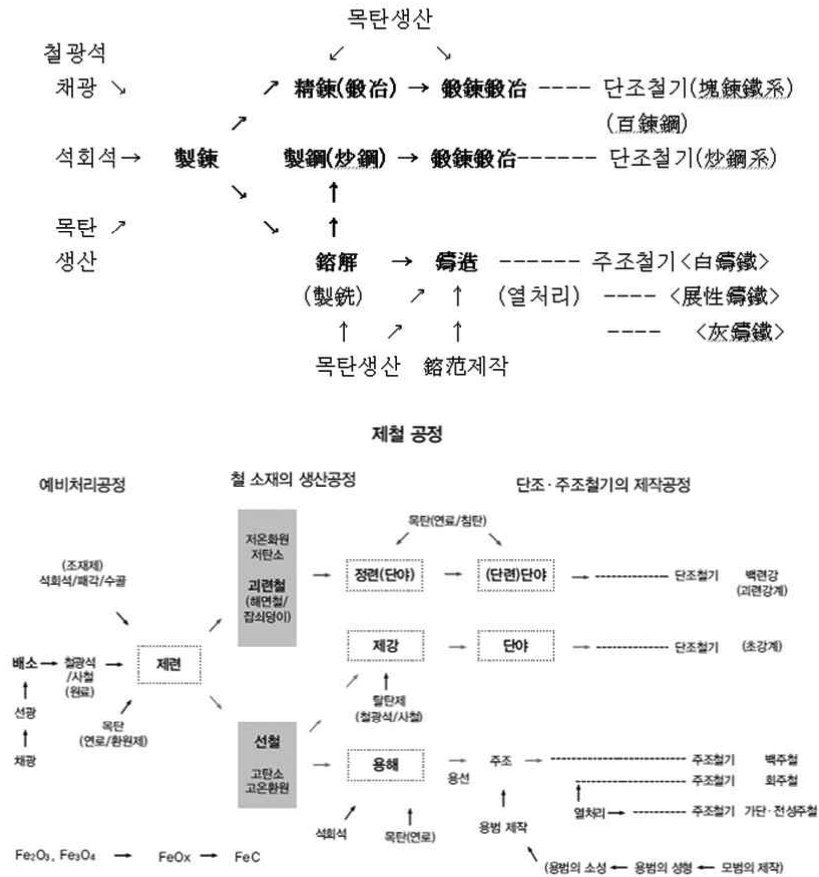


그림 13. 우리나라 전근대 제철의 공정체계도(한국문화재조사연구원협회 2012)

나 되는 큰것들 일색이었다. 그리고 주조철기 제조를 위한 용해로도 발견되었다.

강소재의 생산방식으로는 해면철을 숯불에 반복 가열하고 단조하면서 침탄시켜 탄소량을 강의 수준으로 높이는 방법이 초기에 쓰였으나, 이후 용선에 석회석 등의 탈탄제를 첨가하여 탄소량을 줄이는 기술이 도입되었다.

열처리 기술도 발전하였는데, 주조철기의 경우는 가열을 통해 흑연이 형성되므로써 단조가 가능해지는 전성(혹 可鍛)주철이나 내마찰성이 좋은 회주철의 생산이 초기부터 가능하였다. 단조철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겹침단조기술이 구사되고, 무수한 단타로 입자가 미세화되는 백련강(百鍊鋼)의 수준으로 재질이 개선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철기들은 담금질을 통해 강도가 높아진 것들로 밝혀졌다.

이러한 제철, 제강, 철기제조 및 열처리 등 철과 관련된 각종 기술들은 고대에 그 기본이 이미 완성되어 근세에까지 지속된 셈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우리나라 고대 철문화의 우수성이다.

## 5. 중세 이후의 제철문화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는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고대와는 다른 양상의 철문화가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제철은 특정 공물의 확보를 위해 특수행정구역으로 설치된 철소(鐵所)에서 많이 행하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대표적인 예인 충주의 다인(多仁)철소는 몽고 침입시인 충렬왕 3년(1238년)에



원나라에 공납되는 칼 천 자루가 생산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 철소는 최근 41개소의 야철유적이 조사 보고된 이류면(利柳面)으로 비정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려 전기 제철의 상당 부분이 향(鄕), 부곡(部曲) 및 군현에서도 이루어져 철소의 생산물들과 함께 국가에 바쳐지는 공납(貢納)수공업의 형태가 기본이었고, 후기로 가면서 민간수공업에 의한 비중이 점차 커졌던 사실 등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철기 등을 제작하는 장야서(掌冶署)나 무기를 생산하는 군기감(軍器監) 같은 관영수공업 관청도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수요가 보다 증가된 철제의 농기구나 각종 생활용품들은 민간수공업 생산품으로 충당되었으며, 수도에 주둔한 군인들의 무기조차 시중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철기 생산과 공급의 체계는 고대의 경우와 사뭇 다른 것으로서, 공민왕대에 철에 대한 국가통제력의 강화를 꾀하기도 하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수공업이 관장제(官匠制)를 기본으로 하였던 만큼, 철 생산이 국가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어 조세를 목적으로 철산지와 그 산출량을 상세히 파악하였으며, 철로 세금을 부과하는 수취제도도 갖추게 되었다. 예를 들어, 철장관(鐵場官)이라는 관료를 파견하여 광산을 직영하는 철장제(鐵場制)나 경작 면적에 따라 공납할 철을 부과하는 엄철법(嚴鐵法)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의 저항이 거세어져 태종 7년에는 농민들을 철장에 투입하여 공동으로 납부하게 하는 철장도회제(鐵場都會制)로 전환되고, 이어 성종 18년에는 철산지에서만 공철을 받는 각읍채납제(各邑採納制)로 후퇴한 후, 결국은 임진왜란 이후 쌀이나 포 등으로 대납하는 대동법(大同法)이 실

시되어 철을 공급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점차 철의 생산이 관영에서 사영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전반적인 경제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이 시기에 농업생산력이 증대되고, 상업자본이 발달하는 등의 경제 변화 속에 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였지만, 이를 만족시키기에 봉건적 체제하에 형성된 관영수공업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사영 제철업자들 가운데는 상업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자본으로 장인을 고용하여 광산의 개발, 철의 생산 및 판매를 직접 실시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울산의 달천(達川)광산을 개발한 이의립(李義立)은 2,000관이 넘는 철을 국가에 자진 헌납하여 벼슬을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는 재래적 방식에서 근대적 공장공업으로의 전환이 늦어짐에 따라 결국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자주적인 철문화의 발전이 반세기 이상 정체되는 수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포항제철을 세운 후 단기간내에 급성장하여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제 5~6위의 철강 생산 대국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우리민족이 철과 관련하여 고대 이래로 갖고 있었던 우수한 기술적 역량을 현대에 발현시킨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철문화는 고대에 급진적인 성장을 보였고, 중세 이후 우여곡절 속에서도 자주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며,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5~6위의 강철 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제철사의 복원에 국가나 철강업체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이다.

이에 대해 무엇 보다 먼저 국민들의 관심 증대와 이 분야의 지속적 연구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Part. 9

---

**가야 마구의 이해**

**류 창 환**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장

---



## 1. 말과 마구

- 말은 생물학상 기재목(奇蹄目)→마과(馬科)→마속(馬屬)에 속하며, 학명은 에쿠우스(Equus)
- 말의 가축화
  - 말과 인류가 접촉한 것은 구석기시대부터로, 이때는 식량을 위한 수렵의 대상
  - 말이 최초로 가축화된 지역은 흑해 북부의 연안지대
  - 말이 최초로 가축화된 시기는 대체로 청동기시대 (B.C 4,000~3,000년 전)로 추정
- 말의 용도
  - 말은 여러 단계의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힘과 기동성을 갖추게 되어 기계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사람의 이동이나 정보전달, 물자수송, 전쟁 등 인류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
    - 승용(乘用) : 사람의 이동, 신속한 정보전달, 시위
  - 통치능력의 증대, 전쟁의 유리성, 정치적 지위의 확인, 제사·의례
    - 태용(馱用) : 물자수송
  - 통치능력의 증대, 전쟁에서의 유리성, 토목공사 등의 효율화
    - 만용(輓用) : 사람의 이동, 물자수송, 시위
  - 통치능력의 증대, 정치적 지위의 확인, 전쟁의 유리성, 토목공사 등의 효율화
    - 농용(農用) : 경작
  - 농경의 효율화

- 기타: 마력의 이용, 희생, 식용, 약용, 공작재료
- 토목공사 등의 효율화, 생활, 정치적 지위의 확인, 제사·의례
- 마구의 등장
  - 인류가 자연 상태의 야생마를 가축화하여 부리기 위해서는 각종 장구가 필수적으로, 이를 통틀어서 마구라 함
  -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 중에는 흑해 북안의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르강 서안에 있는 테레이프카 유적에서 발견된 녹각제 함유를 가장 오래된 마구로 추정
  - 우크라이나 테레이프카 출토 녹각제 함유
- 재갈의 부속구
- 이와 함께 출토된 말의 이빨 중에 재갈의 사용에 의한 상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인류가 기원전 4,000년 무렵에는 말을 사육하여 이용했음을 알게 됨.
- 이후 말의 용도에 따라 금속제의 재갈과 안장, 등자 등의 각종 마구와 수레 부속구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개발되어 사용됨

## 2. 가야 이전의 말과 마구

### 1. 선사시대

- 말뼈
  - 구석기시대: 상원 검은모루동굴, 충북 제원군 점말동굴 유적 등에서 포유동물의 화석과 함께 말종의 뼈 발견
  - 청동기시대: 회령 오동유적, 무산 호곡동유적, 제주도 한들굴

등에서 발견

→마종이나 계통은 불분명

## 2. 고조선

### 1) 문헌

□ 「史記」 朝鮮列傳

－ 천자는 ...위산으로 하여금 우거를 달래게 하였다. 우거는 ...

태자를 보내 사죄하게 하고, 말 5천 필을 바침과 아울러 군량미를 내어 주었다.

→한 무제(재위 기원전 141~87)가 우거(~기원전 108)를 달래게 하자

우거가 말 5천 필과 군량미를 내어줌으로써 한과 위만조선이 화친을 맺음

→위만조선(기원전 194~108) 시기에 대량의 마필을 사육하고, 아울러

상당한 규모의 기병을 보유했음을 시사

### 2) 유물

□ 마구: 표비, 마탁, 마면

□ 수레부속구: 권총형동기, 샷갓형동기, 을자형동기 등

## 3. 삼한

### 1) 문헌

□ 마한

○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



- 소나 말을 탈 줄 모르기 때문에 소나 말은 모두 장례용으로 써 버린다.
  - 「後漢書」 東夷列傳 韓
- 마한...소나 말을 탈 줄을 모르고 오직 구슬을 귀하게 여겨서 옷에 꿰메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한다.
  - 「晉書」 東夷列傳 馬韓
- 소나 말을 탈 줄 모르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는 것은 단지 장사지 내는데 쓰기 위해서이다.
  - 진한
    - 「後漢書」 東夷列傳 韓
  - 진한...소나 말을 타고 다니며,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길을 양보한다.
    - 「晉書」 東夷列傳 辰韓
  - 소도 부리고 말도 탄다. 그 풍속은 마한과 같으며, 병기도 역시 마한과 같다.
    - 변한, 진한
      -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
    - 토지는 비옥하여 오곡과 벼를 심기에 적합하다. ... 소와 말을 탈 줄 알았다.

2)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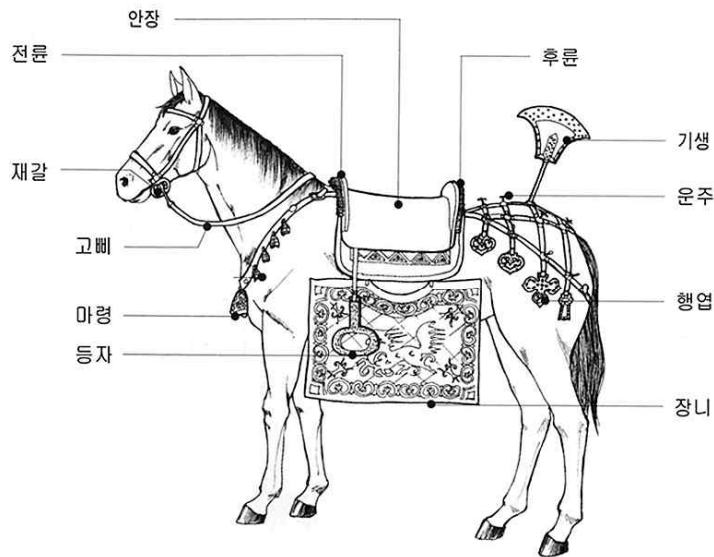
- 마구: 표비, 마탁, 마면
- 수레부속구: 샷갓형동기, 을자형동기, 일산살꼭지 등

### 3. 가야마구의 이해

□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등으로 대표되는

가야고분군의 부장품으로 전하는 마구는 대부분 기승용 마구로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 제어용·안정용·장식용·방어용 마구 등 네 가지로 구분



마구의 종류와 명칭

#### 1. 가야마구의 종류와 특징

1) 제어용 마구

① 재갈(轡)

□ 말을 조종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마구

- 표비 · 관비 · 환관비 · 원환비 등 4가지 형식으로 구분

## 2) 안정용 마구

### ① 안장(鞍裝)

- 기승자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마구로, 기승자가 앉는 부분인 좌목과 그 앞뒤에 장치되는 안교(전륜, 후륜) 등으로 구성
- 재질에 따라 유기질의 가죽이나 모, 펠트 등으로 만든 연식안(軟式鞍)과 안교의 본체와 좌목을 단단한 나무로 만든 경식안(硬式鞍)으로 구분

### ② 발걸이(鎧子)

- 기승자가 말을 타거나 내릴 때, 말을 타고 달릴 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마구
- 발을 딛는 윤부의 형태에 따라 윤등과 호등으로 구분

## 3) 장식용 마구

### ① 말띠꾸미개(雲珠)

- 삼계의 혁대가 교차되는 곳을 묶거나 혁대 위에 박아서 말을 장식하는 마구
- 환형운주, 판형운주, 반구형운주, 입주부운주, 패제운주 등

### ② 말띠드리개(杏葉)

- 말의 가슴걸이나 후걸이에 매달아서 말을 장식하는 마구

- 형태에 따라 심엽형행엽, 편원어미형행엽, 검릉형행엽, 자엽형행엽 등으로 구분

③ 말방울(馬鈴)

- 말의 가슴걸이 또는 후걸이에 매달아서 말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를 내게 하여 기승자의 권위나 위세를 과시하는 장구
- 마령, 마탁, 환령

④ 기꽃이(蛇行狀鐵器)

- 기를 꽃기 위하여 안장의 후륜에 장착한 마구

4) 방어용 마구

① 말투구(馬靑)

- 적의 화살이나 칼, 창 등의 공격으로부터 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마구

② 말갑옷(馬甲)

- 마주와 더불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말을 보호하기 위한 마구
- 여러 철판으로 말의 목(頸甲)과 가슴(胸甲), 몸통(腹甲), 엉덩이(尻甲) 부위에 맞게 가죽끈으로 연결하여 제작
- 가야고분에서 출토되는 마주와 마갑은 가야지역에 중장기병이 실재했음을 보여주는 실물자료



복원된 마갑총의 기마전사와 마구 (함안박물관 2004)

## 2. 가야마구의 성립과 전개

### 1) 마구의 수용과 전기가야 마구의 성립

- 가야지역에 기승용 마구가 도입되는 것은 4세기부터로, 낙동강 하류 역의 김해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기가야의 맹주국인 금관 가야지역에 북방의 고구려·선비계 마구가 도입되면서 기마문화 개시
- 4세기 전반의 김해 대성동 91호분과 동래 복천동 38호분과 69호분 출토 마구가 최초의 사례로, 북방의 부여와 고구려, 선비지역 마구에서 유래
- 금관가야의 왕들이 묻힌 김해 대성동고분군을 비롯하여 부산 동래 복천동 고분군, 김해 양동리고분군에서 발견되는 마구로 보아 4세기 후반경 표비와 판비, 안장, 등자, 심엽형행엽 등으로 구성된 「전기가야 마구」 성립

### 2) 전기가야 마구의 확산

- 5세기에 들어서면 전기가야 마구는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황강 하류의 합천 옥전지역에 이르고, 한편으로는 남강 하류의 함안 지역에 이르는 등 가야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
- 또한 마구의 종류에 있어서도 표비와 판비를 비롯하여 새로운 형식의 환판비와 금속판으로 보강한 목심등자, 안장, 그리고 사람과 말 모두 갑주로 중무장한 중장기병의 출현을 시사하는 마주와 마갑 채용
- 이러한 가야마구의 질·양적인 변화와 보급은 A. D 400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남정으로 야기된 동북아시아의 정세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는 전기가야가 해체되고 후기가야가 형성되는 중요한 배경

### 3) 후기가야 마구의 성립과 전개

- 5세기 중엽부터는 후기가야 시기로, 이때는 고령의 대가야와 함안의 아라가야, 그리고 경남서부지역의 여러 가야를 통칭하는 소가야를 중심으로 발전
- 후기가야 지역에서는 굽은 타원형 외환의 일조선인수와 유환이 채용된 표비와 환판비, 그리고 장병의 등자를 대표로 하는 「후기가야 마구」가 성립
- 특히 대가야지역의 지산동과 옥전지역에서는 내만타원형판비와 장병의 금속제 등자, 검릉형행엽으로 구성된 이른바 「대가야형 마구」가 성립되고 합천 반계제, 함양 백천리, 거창 말흘리, 남원 월산리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 → 대가야의 세력

확장 경로와 대가야 연맹제국의 실상을 반영

- 한편 3세트 이상의 금동제 마구와 마주가 부장된 합천 옥전 M1호분과 M3호분의 마구는 이 시기 가야지역에는 위계에 따른 마구 부장의 차별화와 마구의 복수 부장이 있었음을 시사 →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가야마구의 실용성과 왕과 지배자들의 사회·정치적 지위를 과시하는 위세품적인 성격을 반영

#### 4) 후기가야 마구의 다양성과 종언

- 대가야와 아라가야, 소가야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던 가야마구는 6세기 전엽 경 새로운 형식의 마구 채용
- 가야 특유의 판비나 환판비와 함께 원환비가 사용되거나 호등이나 철제등자의 예가 많아지고, 마장에 있어서 김릉형행엽을 표상으로 하는 대가야형 마구를 대신하여 인동타원문심엽형행엽이나 반구형운주로 구성된 신라계 마구가 지배층의 무덤에 부장
- 이 같은 후기가야 마구의 변질과 다양성은 6세기에 들어 동서에서 압박해 오는 신라와 백제의 영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562년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면서 가야마구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고분의 부장품으로 전함

### 3. 가야마구의 성격과 의의

#### 1) 가야마구의 성격

##### □ 실용성

- 현재 마구 연구자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고분에서 부장품으로 출토되는 마구가 실용품인가? 비실용품인가? 하는 문제
- 고분 부장품 중 보수흔이 관찰되는 마구: 실제로 사용하던 것을 부장
- 장식성이 강한 마구: 실용품을 모델로 하여 제작

→ 고분 출토 마구는 실용품이거나 실용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

##### □ 무장성

- 가야고분에서 다량으로 발견되는 기승용 마구는 기마풍습이 성행했음을 보여주는 실물자료
- 특히 대도와 철모, 철촉, 갑주 등과 같은 무기·무구와 함께 출토되고 있는 것은 가야마구의 무장적 성격을 강하게 시사

##### □ 위세성

- 가야마구는 공반하는 마구의 조합양상과 사용재질에 따라 크게 「기본마구」, 「갑마구」, 「장식마구」로 구분
- 장식마구는 기본마구 또는 갑마구에 행엽·마령 등과 같은 장식용 마구를 공반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금동·은·청동 등과 같은 호화로운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에서 실용보다는 장식성을 중시한 마구로 이해
- 이러한 장식마구는 가야고분 가운데 최고지배자 또는 지배자의 무덤에 부장되며, 그 외의 무덤에는 기본마구 또는 갑마구가 부장되어 있다.



즉 가야마구는 피장자의 위계를 반영하고 있는 위세품

2) 가야의 기병전술

- 가야의 기병: 경장기병, 중장기병, 개마무사, 장식기병
- 기병전술
  - 기병단독전술: 일대일 기병전술, 기습전술, 추격전술, 충격전술
  - 보기합동전술

3) 마구로 본 가야의 대외교류

- 북방과의 교류
- 신라와의 교류
- 백제와의 교류
- 일본과의 교류

#### 4. 맺음말

- 가야마구는 가야지역에 기마문화가 성행했음을 보여주는 물질자료
- 전기가야 시대에는 김해와 부산의 금관가야지역, 후기가야 시대에는 고령의 대가야와 함안의 아라가야, 서부경남의 소가야지역에 분포하고 있어서 가야제국의 성장과 발전을 반영
- 가야지역에 경장기병이나 중장기병이 실재했음을 보여주는 실용적·무장적 성격의 자료이면서 왕과 지배자들의 지배력과 위세를 반영하고 있는 위세품

154 제 11기 가야학아카데미

- 북방의 선비나 고구려 마구를 수용하여 가야 특유의 것으로 개발·발전시켰으며, 바다 건너 일본열도 왜의 기마문화의 성립과 발전에도 깊은 영향을 끼침
- 가야문화의 국제성과 독자성을 잘 보여주는 물질자료





Part. 10

---

**우리배의 역사와 보존**

김익주  
경담연구소장

---



## 1. 여는 글

먼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문명이 시작된 곳에는 어김없이 강과 바다가 있었고, 그들은 배를 이용해 고기를 잡고,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났으며, 문명을 주고받았다. 한반도 역시 삼한시대부터 강과 바다를 통해 중국, 일본 등과 내왕했고, 삼국시대에는 세 나라가 해전을 벌이면서 힘을 겨뤘으며 주변국들과 독자적으로 교류했다. 특히 서남해안 지역은 발달된 내륙수로인 ‘강’과 바다의 연계를 통해 일찍이 해상활동이 왕성했다.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던 장보고는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다를 장악하여 동아시아의 역사 속의 해상왕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역시 내륙 깊숙이 연결된 수운(水運)을 통해 세금으로 걷힌 쌀, 소금 등이 전국에서 모아지고 모든 물자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고려 태조 왕건은 궁예의 휘하 장수로 있던 시절, 영산강을 타고 들어와 나주를 점령하여 후백제를 견제하는 교두보이자 고려건국의 기초를 세웠다. 이처럼 당시 사회의 혈류(血流)였던 ‘물길’을 꿰뚫어 이용하지 못하고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

큰 강마다 댐을 세우고 하구에는 둑이 쌓여진 지금의 강을 보고 곡식 천 가마를 실은 배가 항해했으리라는 상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량이 풍부했을 옛 강과, 수심이 얕은 연안의 조건에서 운항했던 우리의 배가 있었다. 이것은 배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형(平底船形)’ 구조를 갖고 있어 어느 나라의 선박과도 뚜렷이 구별

된다. 이런 형태는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 나타나는 심한 조수간만의 차이와 더불어 개펄이 넓게 발달한 지리적 여건에서 기인한다. 우리 배의 평저선형 구조는 물속에 잠기는 뱃전의 깊이가 낮아 얕은 수심의 연안과 강을 항해하는데 적합하며, 또한 만조 때는 물에 떠 있다가 썰물 때에는 개펄에 그대로 안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완도 어두리섬 앞 바다에서 발견된 11세기 ‘완도선’ 역시 전형적인 전통 우리 배의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일본정벌에 나섰던 여몽연합군의 선단 중에서 중국배는 대부분 태풍에 깨어지고 고려 배들만 남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뛰어난 배의 구조와 함께 한 발 앞선 조선술이었음을 보여준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으로 활약했던 판옥선(板屋船) 역시 우리 배의 전형이며 돌격함으로 쓰였던 그 유명한 거북선(龜船)도 판옥선의 갑판 부분만 떼어내고 거북등을 씌운 배이다.

## 2. 배의 출현

인류의 역사에서 배의 출현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대략 2만 5천 년에서 3만년 전에 배가 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운송수단으로서의 배의 발달은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해온 매우 오래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사람들은 일찍부터 물을 건너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방법을 생각해 왔고,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배이다.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운송수단은 통나무 그대로였을 것이며, 그 추진력은 손이나 발을 물갈퀴로 이용한 것이었다. 그 후 차츰 발전하여 동물의 가죽으로 만

든 배, 갈대나 대나무를 묶어서 만든 뗏목 배, 통나무를 파서 만든 배 등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원시적인 배들이 출현한 시기는 고고학적 증거물로 볼 때 기원전 8000년 까지 소급된다.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면 스칸디나비아지방에서 발견된 기원전 4000년경의 암각화에 배 그림이 있었으며, 기원전 3500년경 이집트에서는 이미 構造船이 등장하고 있다. 인간이 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수렵채집생활 단계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가 식량채집 및 수상운송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고고학적 자료들이 확인 되었는데, 신석기시대의 자료로는 함경북도 서포항에서 출토된 고래뼈로 만들어진 노를 들 수 있다. 청동기 시대의 자료로는 저 유명한 울주 반구대암각화가 있다. 또한 2005년 창녕 비봉리 유적에서 출토된 나무배는 고고학적 퇴적층위로 미뤄 그 제작연대가 8천여 년 전쯤의 신석기 시대 유물로 추정되었다. 이는 한반도와 근접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배로 알려진 토리하마(鳥浜)1호(일본 후쿠이 福井 현의 신석기시대 패총에서 발굴된 고선박 유적)이나 이키리키(伊木力)유적보다도 약 2천년 이상을 앞서는 것이다.

### 3. 우리 배(韓船)

우리 배란 이 땅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선조들이 물길을 극복하고 개척하면서 만들기 시작한, 원시적인 형태의 것에서부터 근대까지 발달되어온 독특하고 고유한 배를 총칭하는 것으로 ‘한선’이라는 용



어로 정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바닥이 평평한 것과 배의 전면이 곡선을 이루고 있는 구조는, 우리나라의 강과 해안지형에 맞게 오랜 기간 동안 적응과 개선을 거쳐온 결과이다.

농경문화가 정착되기 전에는 통나무배 등에 의한 어로와 수렵활동이 주된 생산활동이었다. 이 시대의 유적들이 대동강, 한강유역, 서해안 유역과 섬들, 낙동강, 남해연안, 두만강 동북해안 등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대 원시 사회에서는 통나무배를 만들어 강이나 호수를 건너고 고기를 잡는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통나무배는 점차 발달하여 한 토막의 통나무로 만든 배에서 여러 토막의 통나무를 이어 붙인 배를 만들게 되었다. 또한 강의 상류에서 강의 하류로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뗏목을 만들어 물의 흐름을 이용하기도 했다. 수로를 통한 운반은 특히 압록강, 두만강, 한강 등지에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뗏목은 정확한 말로 뗏목 배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는 나무 널쿨로 엮어 만든 배이다.

삼국시대의 선박 건조술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 시대의 통나무 배모양의 제사용 토기로 미뤄볼 때, 이미 이 시기에 원양항해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백제는 동성왕 10년(488년)과 12년에 있었던 일본의 침공을 격파했고, 근초고왕 27년(372년)부터 중국 진나라와의 해상무역을 시작으로 송나라와 무역하고, 일본에 학자와 선진기술자들을 파견했다. 통일신라시기엔 해상교통과 해안방어에 힘써 조선기술 발

전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흥덕왕 3년(828년)장보고 장군에 의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 해적소탕과 신라인 노예구출, 당나라에 신라원과 신라방을 설치하고 당나라와 일본간의 해상무역을 주도하는 등 해상권을 장악했다. 신라 고구려 백제 등 삼국은 모두 수군을 보유하고, 한편 각기 해로를 이용하여 중국 대륙의 여러나라와 통교를 하고, 특히 신라는 선부서(船府署)라는 해사(海事) 관청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어떠한 배를 만들었는지를 알기에는 실증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조운의 제도가 처음 확립된 것이 고려 초기인데 수로와 육로 모두를 이용하여 세금에 해당되는 물건을 운반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조운선으로 哨馬船이란 것을 이용하였다. 초마선은 조선 시대에도 사용되었고, 따라서 이것도 한선의 구조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고려 시대 때부터는 우리나라의 해운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고, 따라서 해운선과 군선이 발달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해상전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어 활로 적선을 초멸하는 기술을 주로 사용하여 왔는데, 왜군이나 해적선은 백병전을 자주 사용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군선들은 적을 방비하기 위해 선수에 철각을 붙이고 선체에 창을 꽂아두었고 이러한 방법은 후세에도 널리 쓰이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민간인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엄히 규제하였으므로, 민간용 배가 클 필요가 없어졌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왜구가 수시로 침범했기 때문에 수군을 중시해서, 상비 수군을 유지 발전시켜 왔고,

이런 상비수군이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이 나라의 위기를 구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700~800척의 대소전선을 가진 수군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고 한다. 조선왕조가 1392년 개국한 이래 이만한 막대한 수군을, 500여년간 유지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예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증물로 출토되거나 확인된 우리 배는 경주 안압지 배(8세기), 완도선과 십이동파도선(11세기), 안좌도선(13~14세기), 달리도선(14세기) 등 비봉리의 신석기 시대 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역사시대의 것들이다. 이외에도 2004년 전북 군산의 십이동파도선, 2007년 충남 태안의 고려시대 선박 등이 있다.

## 4. 고대의 선박기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선박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모든 선박에는 당연히 노(櫓)가 사용되었던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노에는 문명권적 차원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노가 있다. 그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노'고, 또 하나는 유원지 등에서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보트의 노다. 한국의 노와 보트에 쓰이는 노는 모두 동일한 선박의 추진도구이지만 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존재이다.

즉 보트의 노는 한 쌍, 두 쌍 또는 여러 쌍을 좌우대칭으로 장착하였으며, 보트에 앉아 잡아당기는 반작용으로 배가 전진한다. 이러한

노를 원래 노라 하지 않고 "도(櫂)"라 하며, 이를 사용한 선박을 도선(櫂船)이라 한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로마군단이 많은 노예들을 혹사시키면서 운항하던 노예선박(galley)이 대형 보트에 해당하는 도선이다. 그러나 한국 노는 배 한 척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노를 장착하더라도 좌우대칭이 아니다. 그리고 길이가 무척 길면서도 허리가 약간 엉거주춤하게 굽으면서 휘청거리도록 탄성이 주어져서, 손잡이를 앞뒤로 움직이며 팔을 전후진하면 물속의 노 끝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스크루 작용으로 배가 전진한다. 따라서 보트형 노선은 도의 반작용으로 전진하지만, 우리의 노선(櫂船)은 노의 스크루 작용으로 전진한다. 도와 노는 그 작용이 전혀 다른 것이다.

기원 전후의 시기에 백제인들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려면 동아시아 해역(서해, 동중국해)을 횡단해야 하며, 그러려면 유럽의 지중해나 북해 연안과는 달리 거치른 쿠로시오(黑潮)의 해류를 가로질러야 했다. 따라서 백제선은 노와 키 및 돛을 모두 구비한 해선이 었다. 이에 반하여 인력으로 도를 저어 가는 중국식의 도형선박은 원칙적으로 강물을 따라 운항되는 강선(江船)이며, 이들 선박이 비록 바다에 나오더라도 육지를 바라다보고 운항되는 연안항해만 가능할 뿐 횡단항해에는 부적합하다. 때문에 키는 애초부터 발달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된다. 결국 백제선은 노와 키 그리고 돛의 3요소를 모두 구비한 노형해선(櫂型海船)이었던 것에 반하여 중국선은 내륙 수운용으로 개발된 도형강선(櫂型江船)이었다. 이러한 중국선의 구조로 볼 때 당대의 중국은 비록 당대 최고의 문명국가였을지라도 수운은

고작 내륙주운(內陸舟運)에 불과한 것이었고, 바다와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 옛 배에 쓰인 나무

바다, 강, 호수 등지에 가라앉아 있는 고대유적이거나 유물 등을 발굴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복원하려는 고고학의 한 분야를 水中考古學(Underwater archaeology)이라 한다. 이 수중고고학에 속하는 한 분야로서 고대의 선박과 浮體를 연구하는 선박고고학이 있다. 옛 사람들이 만든 나무배는 각 구조마다 나무의 재질을 달리하여 만들었다. 또한 주변에서 별채하기 쉬운 목재로 배를 만들었는데, 1970년대 말 신안선의 발굴로부터 시작된 수중고고학(선박고고학) 결과물 중 주요한 선박에 쓰인 나무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 안압지선

안압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신라 때의 연못. 삼국통일을 전후로 조성되어 674년(문무왕 14)에 완성되었다. 1975년 부터 86년까지 발굴·조사한 결과 석축호안으로 둘러싸인 연못, 3개의 섬, 연못 서쪽의 호안변에서 5개의 건물지 등이 밝혀졌던 유적이다. 연못 안팎에서 출토된 원형유물만도 1만 5,023점에 달하며, 그 중 와전류(瓦搏類)는 신라 와전류 문양편년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이었다.

1975년 경주의 안압지에서 통나무배가 인양 되었다. 이 배는 좌·우 현재, 중앙저판재의 3쪽으로 구성되며 통나무배를 2개로 쪼개고 그 중간에 하나를 더 넣은 것이다. 배의 재질은 모두 소나무였으며 함께 출

토된 노(櫓)도 동일한 수종이었다.

#### ■ 신안선

신안선은 14세기 후반 중국 원나라의 배로 동양의 조선사와 교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1975년 8월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청자화병 등의 유물을 문화재 관리국에 신고 하면서 시작된 신안 침몰선의 발굴은 1984년까지 계속 되었다. 22,000여점의 송원대 도자기를 비롯하여 720편의 선체편 등 막대한 양의 유물을 수습하므로써 고고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갖게한 것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증고고학을 시작하게된 계기가 되었다.

신안선은 주로 마미송(*Pinus mansonia*)과 광엽삼나무(*Cunninghamia lanceolata*)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수령 60-100년의 판재와 150-170년생의 거대 골격구조체(龍骨)가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외에 녹나무류, 가시나무류, 조록나무류, 잣나무류 등이 사용되었으며, 이들 수종은 대부분 중국남부에 분포하는 수종이었다.

#### ■ 완도선

완도선은 한선의 전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11세기경의 고려시대의 선박으로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등을 사용하다. 전남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앞 바다에서 도자기를 실은 배가 매몰되었다는 것이 신고되어, 이후 1984년에 문화재관리국이 30,000여점의 고려청자와 선상생활용구 등과 함께 침몰선을 발굴 하였다.

사용된 목재의 수종은 침엽수로서 소나무와 비자나무, 활엽수로서

는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 굴참나무, 동백나무이다. 완도선은 방부·방충의 목적으로 표면을 얇게 태운 두께 1~2 mm 정도의 燃化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들중 선체에 쓰인 비자나무와 굴피나무, 목제품에 사용된 동백나무는 남부지방 혹은 남해안에만 분포하는 수종으로 이 배의 건조지역과 무역의 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 ■ 진도 통나무배

진도선은 1992년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발굴 되었으며 조사결과 하나의 대형목재를 U자형으로 파낸 통나무배였다. 이 배는 주로 녹나무(*Cinnamomum camphora*) 로 제작 되었으며, 마미송(*Pinus massoniana*) 과 상수리나무가 조사되었다. 녹나무는 우리 나라의 남해안과 일본에 분포하고 있으나 분포 중심지는 중국남부 이다. 녹나무는 잘 썩지 않고 충해에 강하며 특히 해충에 잘 견디므로 조선재로 쓰이고 가구나 기구재로도 유명 하다. 또 줄기, 가지, 뿌리, 잎에서는 장뇌를 채취하여 의약품 및 방충제로도 사용하였다.

벽파 통나무배를 제작한 원목은 수령 약 750년생이며, 지하고 15m, 총재적 47m<sup>3</sup>, 무게 38톤 정도의 초대형 원목으로 추정된다. 또한新安선에도 사용되었던 돛대받침이 동일한 녹나무로 제작되어 중국에서는 조선재료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수종임을 알 수 있었다.

#### ■ 달리도선

완도선과 함께 13세기 경의 고려시대 배인 달리도선은 1995년 목포시 달리도 해안에서 발굴인양 되었으며, 골격재와 판재는 주로 소나무였

고 이외에 상수리나무와 졸참나무, 뽕나무류를 확인 하였다.

가공단면부의 나이테를 조사해본 결과 저판 및 외판에 사용된 소나무는 수령 50~70년의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박의 건조에 사용된 목재의 총사용량은 0.55m<sup>3</sup>(生材比重을 0.75로 계산하면 총무게는 38~41ton)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뽕나무류는 휨강도와 전단강도가 높은 즉 잘부리지 않는 목재여서 강인함이 요구되는 곳에 선별 사용된 것으로 보였다. 1997년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실시한 '가거도배'의 복원에서도 배목수들이 장식이나 쇠부분에 산뽕나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처럼, 예로부터의 전통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 출토 고선박의 보존

우리 나라에서의 수중출토 목조문화재에 대한 보존은 1976년부터 시작된 신안해저 발굴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1년 신안선이 발굴되면서 '문화재로서의 수침고목재의 보존'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84년 완도선, 1992년 진도 통나무배, 1995년 목포 달리도선 등이 發掘되었다.

물길을 이용한 탈것으로서의 배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목재가 주요 구성재료였다. 목재는 인간의 문명사와 함께해 왔으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곤충에 의해 식해되는 특성상 금속 또는 도자기와는 달리 원형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많지 않다. 따라서 매우 건조된 장소에 놓여 있었거나, 수침상태에 있었던 목재 들이 발굴되거나 출토될 뿐이



다. 고고학적 가치가 있다는 목재는 통상 세가지 조건, 즉 수침 상태, 탄화 상태 및 극도의 건조 조건 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고목재는 함수율에 따라 건조고목재와 수침(waterlogged)고목재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고고목재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모든 목재, 또한 수침고목재는 바다나 호수 또는 늪지에서 발굴된 고고목재로 정의된다. 수침고목재는 목재의 기본 구성단위인 세포가 물로 채워져 있어서 그 형태를 유지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주로 생물적 요인(충, 균, 세균)에 의해서 파괴된다. 즉 목재의 골격물질을 이루는 섬유소 성분이 주로 파괴되어 목재의 강도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수침 목재는 보존(치수안정화 및 강도보완)을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공기 중에 방치하면, 목재 내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수축과 변형을 수반하여 원형을 잃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 하게 되는 것이다.

#### 세계의 침물선 보존처리

##### ▶ 그리스상선

키프러스에서 발견된 B.C 4세기경의 상선으로 왁스성분을 목재에 스며 들게 하여 경화 처리 후 복원하였고, 전시실에는 공기조화 장치를 하여 변형을 방지하였다.

##### ▶ 바이킹선(Viking)

950~60년대에 덴마크의 로스킬데 해협에서 5척이 인양되어 PEG 함침법으로 보존처리 되었다.

##### ▶ 천주만선

중국송나라 때의 선박으로 신안선과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로 특별한 보존 처리는 취하지 않았다.

▶브레멘 코그(BremenCog)호

1962년 10월 독일 브레멘 항구에서 발견 되었다. 연륜연대측정법에 의하여 1379년~1380년 사이에 건조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PEG 함침법으로 보존처리 되었다.

▶바사(Wasa) 호

바사호는 1628년 스웨덴 스톡홀름항에서 처녀항해 중 침몰된 군함 이다. 선체는 해체되지 않은 상태로 인양되었으며, 자동분무기를 활용하여 PEG 용액을 선체에 도포처리 하였다.

▶메리로스(Mary Rose)호

1970년대에 인양한 영국의 튜터 왕조시대의 전함으로 1986년부터 PEG분무법으로 보존처리 하였다.

수침목재보존처리 과정

유물 상태분석 : 수종조사, 재질분석, 정밀실측, 사진촬영

세척 및 탈염 : 목재 가해미생물의 생성억제, 염분 등 이물질 제거

모형 복원 : 모형복원을 통한 제작양식 조사, 복원 방법 연구

치수안정화와 경화처리 : 합성수지등 고분자물질 주입, 동결건조,

유기용매 치환건조

건조 : 온·습도 조절건조

표면처리 : 표면 변색 및 과잉 약제의 제거

유물복원 : 가 복원 후 완전복원

보존환경관리 : 온·습도, 유해기체 등을 상시 점검한 후 전시환경 관리

## 6. 나가는 글

### ■ 울산 반구동

중세 아랍인들에게 ‘신라’는 한마디로 ‘동방의 이상향’ 이었다고 한다.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세상에는 행운의 섬이나 불멸의 섬으로 알려진 이상향이 두 곳 있는데, 그 하나는 서방의 그리스 전설에 나오는 대서양 상의 신비의 섬 아틀란티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동방의 신라다. 아틀란티스는 전설속의 한낱 이상향에 불과하지만, 신라는 속세의 살아 숨쉬는 이상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동경과 선망은 신라에 대한 그들 나름의 지식과 견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정수일, 2005, 한국속의 세계, 창비).

옛 울산만이 위치하였던 울산시 태화강 하구의 반구동 일대가 고대 항구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007년 5월 울산 중구 반구동의 주택재개발지구에서 고고학적인 조사결과 신라의 대외 교류를 엿볼 수 있는 중국 당(唐)대의 해무리굽 자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항구 배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되는 목책시설(나무울타리) 등은 이곳이 고대의 울산항이었음을 시사하는 실물자료로 판단되었다. 항만접안시설물로 추정되는 목책은 2열로 둥근 통나무가 1m 간격에 4~5개씩 가지런히 박혀있어 운송물자의 보호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책시설이 위치한 강변에 기둥지름 70cm내외의 원목으로 축조된 굴립주건물지(망루)도 발굴됐다.

문명교류사 전문가인 정수일 박사는, "10세기 전후 모든 해로를 검토하면 한반도 남단~중국 광저우~베트남 동해안~말라카해협~인도~페르시아만~콘스탄티노플~로마로 연결되며, 이 가운데 한반도 남단의 울산은 중요 기항지"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실증물이 반구동의 유적과 유물들인 것이어서, 울산이 로마~중국광주~경주로 이어지는 해양실크로드의 동쪽 끝 또는 신라 최대의 무역항이라는 학설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고학 조사를 담당하였던 관계자에 의하면, 기초사된 토성과 함께 목책은 신라시대 당시 울산항의 물류시설 등 배후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일 것으로 보이며, 고대 울산항은 이곳에서 수백m 떨어진 태화강 쪽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전시기의 유물이 출토된 것은, 그동안 울산이 경주의 관문역할에만 머문 것으로 조명돼 왔으나 이 시기 울산 학성 바닷가 쪽에 독자적 역사적 행위가 존재했음을 물질적으로 보여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신라시대 연꽃무늬 수막새기와는 고급건축에 쓰는 것으로 경주에 서조차 드물게 발견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여러 점이 나왔다. 또한 창고로 추정되는 많은 대형 건물이 있었으며, 당대 최고의 선진국이던 당나라의 자기가 발견되어 대외 교류가 유물로 확인된 셈이다. 무엇보다 이들 시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그 당시에 축조한 토성과 목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유적의 중요성과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유물과 유적으로 확인되듯 이곳에는 신라시대 경주의 최고급

건축물에 버금가는 시설이 있었다. 또한 과거나 지금이나 대규모 물류의 주요한 통로인 항구가 존재했을 지리적,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실증물이 확인되었다.

토성은 이미 주택지가 되었고, 그 주택지는 다시 시류에 편승하여 아파트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매장문화재 조사에 관한 비용의 부담은 그 주체가 공이든 사든 간에 모두 개발자의 몫이다. 그러나 문화재는 당연히 공공의 것, 국가의 소유이다. 문화재 조사가 마무리되어 가던 2008년 봄에는, 목구조를 이용한 더 큰 규모의 방어벽과 그 안쪽에서 목조우물이 드러났다. 몇 줄의 글과 사진으로만 기록하고 만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고, 민간주택을 지으려 하였던 사업자에게 또다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에는 참으로 면목이 없다. 진퇴양난이다.

2008. 4

#### ■ 제주 덕판배

제주사람들은 사면의 열린 바다를 기회와 자유, 그리고 도전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으며 특히 조선중기에는 대선단을 이루어 한반도로 진출하여 해양활동을 하였다. 제주민들은 지극히 진취적이며 개척자적인 모험가들이었다. ‘노도의 바다’로 알려진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의 소위 ‘제위 바당’에 적응한 ‘제주배(덕판배)’는 조선배보다 날쌔고 일본배보다는 견고해서 수전시 공방에 유리한 나무로 된 갑판선이였다. 제주도 해역의 배는 덕판배와 ‘티우’라고 하는 뗏목 배로 나눌 수 있는데, 덕판배는 어선이었음과 동시에 연륙선이기도 하였다.

덕판배는 제주섬의 암석해안을 의식해서 만든 배의 맨 앞부분 상부에 두툼한 나무판인 ‘덕판’ 과 그 밑에 가로로 댄 통나무 보호대가 충돌시 어떠한 배도 침몰시켜 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여기에 돛과 노 혹은 키 등 모든 동력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배를 안전하게 표류케 할 수 있도록 대바구니로 만든 낙하산 원리의 부동식 닻이라 할 ‘뽕’ 을 개발한 것도 제주 해민들만의 지혜였다. 덕판배는 1.5톤에서 5톤 규모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가 있었다고 한다. 보통은 2.5톤 정도의 규모였는데 길이는 32자, 갑판너비는 10자, 높이는 5자로, 피자리 혹은 왕골자리로 만든 돛 3개를 달았다고 한다. 재료는 구상나무와 소리가시나무를 썼지만 특히 구상나무를 많이 썼다고 한다. 조선 수군도 이 제주 해민들의 덕판배를 모방하여 병선을 만들자고 했던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 이미 2척의 제주배를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한 몽골이 일본 원정을 위해 제주배 100척을 짓도록 요청한 것도 먼 바다에 강한 제주배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는 1918년부터 대대적으로 선박을 개량하였다. 이는 조선형을 일본형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본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전통의 ‘덕판배’ 는 서서히 사라지고 말았다. 제주덕판배는 1939년까지 21척이 남아 있었지만 재료의 고갈과 일본의 어선개조정책으로 건조 비용 면에서 불리하여, 해방 당시 우도에 마지막 남은 한척이 소실되면서 사라졌다. 1990년대에 이르자 제주 덕판배의 실물은 모두 사라지고, 해방전후의 시기를 기억의 꼬트머리로 남겨두고 있었다.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덕판배는 제주사람 金千年에 의해 KBS 제주방송총국이 도승격 50주년 기념사업으로 1996년에 제작하였던 것이다. 성산포에서, 뜻있는 제주인들이 그렇게도 숙원하던, 그 자랑스러워할 그리고 제주인의 세계지평을 동아시아까지 열었던 그 해민정신의 상징이 될 옛 덕판배의 복원이었다. 최근에 이르러 삼나무로 복원된 이 덕판배가 옥외에서 전시되던 중 노화와 열린 바다의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제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제주의 언론들은 ‘제주의 승례문’, ‘제주인의 정신’을 잃는 것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1996년에 복원된 이 덕판배는 그림이나 설계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단지 배 만드는 이의 유년시절 기억에 기초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의 시점마저도 일본배의 기술이 많이 얹혀진 이후 엮음이 최근의 정밀조사결과가 밝히고 있다. 조랑말을 30마리까지 실었다는 기록도 있고, 15세기 말 최부의 ‘포해록’에는 43명이나 되는 사람이 승선했다는 기록도 있는 덕판배는, 다시 충분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 복원될 계획이다.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려는 순수하지만 더딘 행보의 학자들과 충돌하는 다중의 성마른 시각이 안타깝다. 각자의 다름을 전제로 하는 어우러짐(和而不同)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제 11기 가야학 아카데미

가야, 다시 만나다

---

**발행처** : 국립김해박물관

621-900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구산동 232번지)

Tel\_ 055)320-6800 Fax\_ 055)325-9334

홈페이지\_ [gimhae.museum.go.kr](http://gimhae.museum.go.kr)

---

**발행일** : 2014년 4월

---

**인쇄처** : 핸드즈디자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40번길 6 (1층)

Tel\_ 070)7380-0641 Fax\_ 0303)3130-0621

---

